

지역사 기반  
2022  
개정교육과정

# 한국사 교수학습 자료집

"우리는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존재다."

- 넬슨 만델라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자신과 지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의 내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 지역사 교육 자료는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약자의 목소리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인천의 풍부한 지역사 교육 자원 중 하나인 구술사를 활용하여 고려인, 여성 근로자, 6.25 피난민 등 역사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간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에 맞춰 인천 지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 자료를 개발하여 교사들의 역사 수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육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기르고, 현재의 삶이 소중한 역사임을 인식하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나가기 기대합니다.

<b>01</b>	<b>교통의 발달을 통해 본 인천의 변화</b>	<b>07</b>
	가. 수업 개관	07
	나. 수업의 실제	09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10
	라. 교사 참고 자료	20
	마. 참고 자료	21
<b>02</b>	<b>노동 구술사를 낭송극으로 - 동일방직 노동자 이야기 -</b>	<b>23</b>
	가. 수업 개관	23
	나. 수업의 실제	25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26
	라. 교사 참고 자료	37
	마. 참고 자료	40
<b>03</b>	<b>인천 5·3항쟁, 기억의 길 만들기</b>	<b>41</b>
	가. 수업 개관	41
	나. 수업의 실제	43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44
	라. 교사 참고 자료	53
	마. 참고 자료	55
<b>04</b>	<b>섬, 사람과 미래를 잇다</b>	<b>56</b>
	가. 수업 개관	56
	나. 수업의 실제	58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59
	라. 교사 참고 자료	74
	마. 참고 자료	76

<b>05</b>	<b>안녕, 나의 엄마들 - 여성 구술(생애)사 쓰기</b>	<b>77</b>
	가. 수업 개관	77
	나. 수업의 실제	79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80
	라. 교사 참고 자료	89
	마. 참고 자료	94
<b>06</b>	<b>함박마을로 귀환 이주하는 고려인 이야기</b>	<b>96</b>
	가. 수업 개관	96
	나. 수업의 실제	98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99
	라. 교사 참고 자료	110
	마. 참고 자료	121
<b>07</b>	<b>인천에서 듣고, 말하는 6·25 전쟁</b>	<b>123</b>
	가. 수업 개관	123
	나. 수업의 실제	125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126
	라. 교사 참고 자료	137
	마. 참고 자료	142

## 가. 수업 개관

## 1) 수업 개요

수업 주제		교통의 발달을 통해 본 인천의 변화	총 차시	5차시
교과		한국사, 한국사2		
성취기준		[10한사03-04] 사회 모습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사회 운동을 근대 사상의 확산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10한사2-01-04] 일제의 식민 통치로 인한 사회 및 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의 양상을 파악한다.		
교수학습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교수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토리텔링 <input type="checkbox"/> 프로젝트 학습 <input type="checkbox"/> 토의·토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마트 학습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 학습 <input type="checkbox"/> 거꾸로 학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학습		
학습자 역량	인천교육 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역량		
	교과 역량	<input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수업 준비	교사	스마트 기기(아이패드 등), 학습지(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디지털교과서 자료 정리, 교육과정구성질문(본질적 질문, 프로젝트 질문, 내용 질문)		
	학생	Capcut(캡컷) 사용법 익히기 뱀믹스1,2 사용법 익히기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활용 가능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말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함		
	수업환경	1. 교사 : 1인 1디바이스, 학생 : 1모둠 1디바이스, 서책형 교과서 병행 2. 학교 무선인터넷 제공 및 유/무선 미러링 가능: 교사의 스마트패드와 대형모니터 연결		
주요 산출물		〈구술로 보여주는 인천의 교통 이야기〉 영상 자료 및 발표 자료		
평가 방법		개인활동 - 프로젝트 학습지 모둠활동 - 프로젝트 산출물, 발표 동료평가, 자기성찰일지 작성		



## 2) 수업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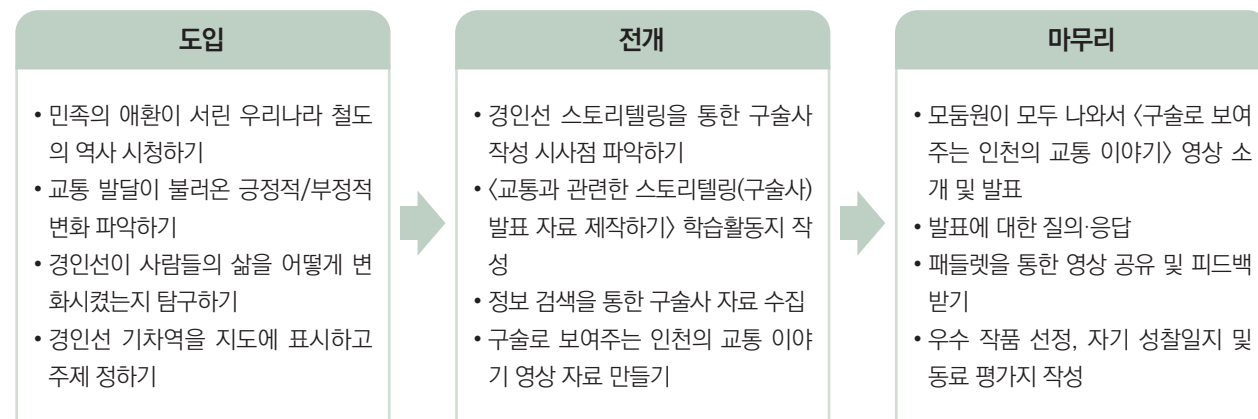
개항 이후 근대 문물의 도입으로 인해 근대 의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경인선 철도의 건설로 인한 기차의 정기 출발은 시간의 개념을 사람들에게 확산시켰다. 특권층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마차와 달리 대중교통인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면서 평등 의식이 어느덧 대중에게 자리잡기도 하였다. 한편, 경인선 철도는 개항장의 상권도 변화시켰다. 서울로 가는 기차가 생기기 전에는 인천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은 개항장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고 대불호텔을 비롯하여 숙박 업소 및 주변 상권은 크게 번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경인선이 생기면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불호텔을 비롯한 숙박 업소와 인근 상권이 쇠퇴하게 된 것이다. 또 인천에 있던 중요 상사, 금융기관, 관청, 언론기관 등이 서울로 이전하게 되면서 인천이 쇠락해지는 한편 일본의 침략성이 경인선을 따라 서울로 옮겨지게 되었다.

경인선의 개통으로 인한 변화는 인천의 도심지도 바꿔 놓았다. 부평의 경우 원래 중심지는 '부평도호부청사'가 있었던 현재 계산동이다. 1982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평도호부관이 위치한 부평초등학교가 계산동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평역은 경인선이 완공된 1899년 이전에는 넓은 평야 지대로 농부들이 농사짓던 땅이었다.

경인선 개통 초기 주안에는 염전(소금밭)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 경인선은 주안의 천일제염업, 부평의 미곡농업·군수공업 수송을 담당하였다. 1960~70년대는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주안과 부평지역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공단 인근에는 주거단지와 상업지구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인선의 여객 수송 기능이 강화되었다. 1970년대 이후 경인선은 전철화가 되면서 광역도시권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통의 변화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경인선 철도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인천 사람들의 거주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러한 변화를 구술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시각 자료에 익숙한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인천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공감해볼 수 있게 한다.

## 3) 수업 흐름



## 나. 수업의 실제

단계	차시	수업 예상 흐름	유의점	교수학습자료
도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의 애환이 서린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 시청하기(YTN 사이언스)</li> <li>교통 발달이 불러온 긍정적 변화/부정적 변화 파악하기</li> <li>경인선 기차역을 지도에 표시하고 관심 있는 지역을 고르기</li> <li>경인선이 당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개항장을 중심으로 탐구하기</li> </ul>	경인선 개통 당시의 7개 역사명이 오늘날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옛 지도를 통해 기차역 확인	[활동지1,2]
실행	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술로 인천의 삶을 들려주는 영상 보여주기</li> <li>〈경인선 스토리텔링〉 영상과 구술 자료를 통해 시사점 파악하기</li> <li>주요할 점, 개선 사항, 구술사 인물의 주장, 역사적 사실 및 추론, 영상을 본 후 궁금한 점 및 조사할 사항</li> </ul>	구술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이며 개인정보 보호도 고려해야 함	[활동지3]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술로 보여주는 인천의 교통 이야기 주제 선정</li> <li>지역 및 관심에 따라 2~4인으로 구성된 모둠 편성</li> <li>정보 검색을 통한 구술사 자료 수집</li> <li>시사점을 바탕으로 질문지 구성, 인터뷰 대상 선정, 모듬원 역할 안내</li> <li>주제에 맞게 구술 자료 분류하고 정리하기</li> <li>구술로 보여주는 영상 및 발표 시나리오 구성하기</li> <li>발표 방식 정하기</li> </ul>	학생들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영상은 3분 이내여야 함. 추가 설명은 가능	[활동지4,5]
	결과물 개발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 순서 정하기</li> <li>〈구술로 보여주는 인천 이야기〉 영상 자료 만들기</li> <li>캡컷, 뱀믹스1·2 프로그램 활용, PPT 등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활용 가능</li> <li>영상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시각 자료를 보면서 설명할 수 있음</li> <li>모듬별 완성된 영상 자료/발표 자료 모으기</li> </ul>	모듬 발표는 최대 6분 이내로 제한하며 시각 자료의 분량은 제한 없음	[활동지5]
프로젝트 결과 발표 또는 정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듬원이 모두 나와서 〈구술로 보여주는 인천의 교통 이야기〉 영상에 대한 소개 및 발표</li> <li>영상에 대한 질문 및 피드백 받기</li> <li>우수 작품 선정 및 그 이유</li> <li>패들렛 등을 활용하여 답변 및 추가하고 싶은 내용 공유하기</li> </ul>		[동료 평가지] 작성
성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 평가지 작성</li> <li>활동을 통해 성장한 부분/더 알고 싶은 부분 작성</li> </ul>		[성찰일지] 작성

##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경인선을 통한 철도의 장단점 분석	경인선		
	학년	반	번 이름

활동지1	학년	반	번 이름
------	----	---	------

### 1. 영상은 [민족의 애환이 서린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입니다.

영상을 보고 물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봅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1897년 3월 22일 우각현(지금의 도원역 부근)에서 착공하여, 1899년 9월 18일 제물포역(현 인천역)~노량진역 간 개통된 경인철도이다. 당시 개통된 역은 제물포-축현-우각동-부평-소사(현 부천역)-오류-노량진의 7개 역이었다. 경인선의 완공은 도로로 12시간 걸리던 것을 1시간 30분으로 줄이면서 서울과 인천이 1일 생활권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의 경인철도는 Mogul-tank형 증기기관차 4량, 객차 6량, 화차 28량에 전체 종업원 119명으로 영업이 시작되었다.



민족의 애환이 서린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RD8XvurvcwE>

#### 1-1. 우리나라에 근대 교통 시설인 철도를 들여온 배경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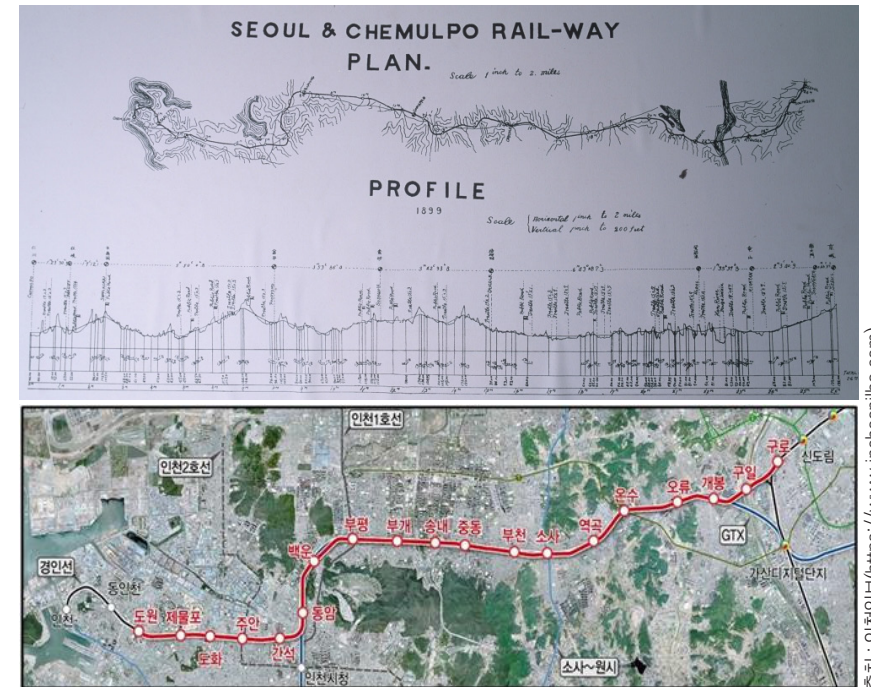
#### 1-2. 다음 글을 읽고 경인선 등 근대 시설인 철도의 장단점을 서술해보자.

경인선의 개통으로 등장한 철도가 오늘날처럼 바로 여행이나 관광의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경인선 부설 자체가 일본의 조선 침략을 위한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객실 이용료도 비싸서 서민들에게 철도 이용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경인 철도 회사는 철도의 대중화와 고객을 유치하는 광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경인선에 이어 경부선과 경의선 등 철도망이 확충되면서 사회 경제의 중심이 개항장(開港場)과 포구(浦口)로부터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신흥 도시와 정거장으로 옮겨 갔으며, 철로가 어디를 지나느냐에 따라 쇠락하거나 발전하는 도시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명승지가 있거나 가까운 곳은 관광 도시 또는 관광지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곧 철도는 산업 개발, 인구 증가, 도시 촌락의 개선 등에 직접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명승지와 유람지를 제공하여 발달시키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 경인선 탐구하기

활동지2	학년	반	번 이름
------	----	---	------

### 2. 다음은 1899년 개통된 경인철도의 설계도면입니다. 경인선의 7개 역을 오늘날 지도에 표시해보자.



### 3. 경인선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보시다.

경인철도회사에서 어제 개업 예식을 거행하는데 인천에서 화률품가 떠나 삼개 건너 영등포로 와서 경성의 내외국인 빈객들을 수레에 영접하여 앉히고 오전 9시에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데 화률품가 구르는 소리는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의 굴뚝 연기는 반공(半空)에 솟아오르더라. 수레를 각기 방 한 칸 정도 되게 만들어 여러 수레를 철기로 연결하여 앞과 뒤를 서로 접하게 이었는데 수레 속은 상중하 3등으로 수장하여 그 안에 배포한 것과 그 밖에 치장한 것은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더라. 수레 속에 앉아 영창으로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활동하여 달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대한 리수(里數)로 80리 되는 인천을 순식간에 당도하였는데 그곳 정거장에 배포한 범절은 형형색색 황홀 찬란하여 진실로 대한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더라. …(중략)… 예식을 다 행하고 오후 1시에 서울 빈객들과 인천 빈객들이 도로 화률품가에 올라 2시반에 영등포에 당도하여 서울빈객들은 서울로 들어오고 인천 빈객들은 도로 타고 4시 반에 인천에 당도하였더라.

- 독립신문 1899년 9월 19일 3면(제 4권 204호) -

○ 특히 인천 개항장의 대불호텔 등 각종 숙박 시설 및 여러 은행 및 공공 기관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서술하시오.

## 경인선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술사 작성 시사점 파악하기

활동지3

학년 반 번 이름

※ 다음 영상은 경인선에 대한 구술사 기록입니다. 다음 구술사 기록을 통해 구술 관련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시사점과 주의점을 정리해보자

경인선 스토리텔링  
https://www.youtube.com/watch?v=X48-7Li-B-w  
(10분 영상, 2019.7.11.)



인천광역시 동구홍보영상

### 경인선 역사문화자산 스토리텔링

출처: 화도진도서관, 인천광역시청

#### <인터뷰1>

##### Q. 경인선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6.25때 탱크가 들어오는데 소리가 무지하게 컸어요. 어린아이들이 도망 다니고 쫓덩어리가 굴러들어오는데 다들 처음 보는 거라서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 Q. 과거에 인천광역시 중구와 동구의 지역차별이 있었나요?

이 동인천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예요. 옛날에는 만석동에 사는 사람들하고 화수동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했어요. 옛날에는 양반이다 싶으면 종들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동인천 사는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 붙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도둑놈 소굴이에요. 만석동, 화수동, 화평동, 전부터 도둑놈 천국이래요. 만석동에 사는 사람은 배타고 가서 배만 들어오면 고철..., 뭐 이런거 훔쳐 오는 거고 여기는 지금 옛날에 기차만 들어오면 조개탕 같은게 들어와요. 그냥 새까맣게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담고 바닥으로 떨어트리면 밑에서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진을 빼는 거지. 여기가 그래서 도둑놈 소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신 여기서 돈이 많이 나왔어요. 도둑질을 많이 해갔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 인천 먹여살렸다는 얘기도 나와요. 도둑질을 하니까. 우리 서쪽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도둑놈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가 전부 도둑놈 소굴이에요... 여기도...

#### <인터뷰2>

##### Q. 과거 경인선과 관련된 놀이가 있었나요?

[아빠]어렸을 때는 우리 못 같은 거 올려놓고 기차 지나가면 찌부러지니까...  
[딸] 근데 그걸로 뭐 해요?  
[아빠] 그걸로 썰매 탈 때 지팡이로 쓰던가...  
[엄마] 그러다 기차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아빠] 아, 절대로 사고 안 나~

[딸] 못을 올려놓고 기차가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거지.  
[아빠] 밖에서 기다리는 거지...  
[엄마] 아니 그게 아니라 기차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 사람들이...  
[아빠] 아~ 기차가 전복될까 봐?  
[엄마] 그러!  
[딸]어렸을 때니까...  
[엄마] 아 미친 사람들이구만 하하하하...  
[아빠] 돌덩이들 다 박살나  
[엄마] 그러다가 사고 나서 기차 전복돼...  
[아빠] 아냐 그러고 나서 전복됐다는 사고는 한 번도 없었어~  
[딸]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놀았나 봐요?  
[아빠] 예, 옛날부터 그렇게 놀았어요.

#### <인터뷰3>

##### Q. 과거 경인선이 열차 칸마다 학생들을 나눠서 태웠었나요?

그 당시에 기차가 좀 특별해서 인천공고 애들하고 선인고 남자애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뭐 그럴까.. 공고 애들이 좀 거칠고 선인 애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진 애들이 거의 다 갔거든요. 그때도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좀 거칠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열차 칸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쪽은 공고, 이쪽은 선인 애들.

#### <인터뷰4>

##### Q. 과거 인천광역시에서 학생들이 자주 놀던 곳은 어디였나요?

그 당시에는 신포시장이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어요. 인천의 메카 같은 곳이에요. 애들 학교 끝나고 나면 신포시장으로 해서... 그 경동시장으로 해서 경동 애관극장 앞에서 쪽 내려가면 신포시장 한 바퀴 돌고... 먹고... 누가 누가 많이 먹나~ 그때 튀김이... 신포시장 튀김이 이만했어요, 이만해. 그거 두 개 먹으면 찝 하거든요? 누가 많이 먹나... 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 <인터뷰5>

##### Q. 과거 인천광역시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컸던 도시 같아요. 제가 인천에서 역이란 데를 처음 갔던 게 6살 때? 저도 원래 집이 인천은 아니거든요~ 인천에 저희 아버지 세대는 대부분 토박이들이 거의 없어요. 산업화 이럴 때 돈 벌러 인천에 오셨던 분들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 집이 인천은 아닌데 엄마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에 사시면서 아버지가 인천에 돈을 벌러 나오셨던... 그런 전형적인 인천의 80년대생이거든요 저는요. 한창 동인천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올라갔는데 동인천역이 엄청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리고 초, 중학교 때 동인천역이 엄청 인천의 중심지였어요. 인천백화점이 있었고 그 앞에 대한서림이 있었고 대한서림 앞에 동인서관이 있었고 인천학생문화회관 거기... 그 터가 옛날엔 축현초등학교였어요. 축현초등학교 그길로 쪽 올라가면 인일여고, 인천여중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 되게 동인천역이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빠는 송현동 거기 달동네에 살았는데 그 송현동 달동네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되게 산동네였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오. 물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있었는지 더 잘 아시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뭐



사고 뭐 한다 그러면 인천에선 무조건 인천 백화점을 갔거든요. 뭐 고급진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인천백화점을... 고등학교 때까지도 인천백화점이 있었어요. 인천백화점이 저 대학교 들어갈 때 망했거든요. 그러고선 쇼핑센터가 생겼다가 지금은 뭐 이상하게... 지하상가도 거기 정말 대박이잖아요. 모든 중, 고등학생들이 시험 끝나면 거기로 나오는...그런 곳이었고... 되게 인천의 변화가었는데 갑자기 그게 구월동이나 이쪽으로 저 고등학생 때 1997년을 기점으로 인천1호선이 들어오고, 인천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거든요. 아니 백화점... 그때 되게 쌍벽을 이뤘던 백화점이 인천백화점, 희망백화점, 그 다음에 산곡동에 있는 부평현대백화점이었어요. 부평에 있는 롯데백화점은 별로 그때 우리가 안쳐쫓고 희망백화점... 그런 백화점이었는데 인천백화점이 갑자기 훅 가더니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고 나서 진짜 비교가 안될 만큼...

#### <인터뷰6>

##### Q. 경인선을 타고 통학이나 출근하셨던 기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초등학교 시절에 부산에 계신 외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기차 신호음도 컸고 덜컹거리던 그런... 차량 탑승 느낌도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서울에 갈 때마다 지금 9호선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역사 시간에는 경인선이 한국 최초의 철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천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통이 발달된 현재의 경인선이 되기까지 긴 시간동안 저처럼 많은 인천 시민들이 만원의 열차에서 힘들게 출퇴근하는 고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인터뷰7>

##### Q. 인천광역시에는 어떤 역사문화 자원이 있나요?

인천은 개항장이라서... 문화유산이 많고... 인천에서는 전 동인천이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봐야 할 곳은 아무래도... 맥아더 장군이 있는 자유공원과 연계해서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홍예문... 반나절 정도 돌면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러면 안내해 달라고 하시면 안내도 가끔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 <인터뷰8>

##### Q. 앞으로 인천광역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인천은 개항의 도시로 그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초로 문물을 들여왔고 항구도시로서 무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어요. 이렇게 산업화의 많은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 인천이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한계로 인해서 문화와 역사 등 인천만의 특색을 많이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인천지역에서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 분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지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잘 보존해서 인천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 ○<경인선 역사문화자산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술사 작성 및 영상 제작 시 시사점 파악하기

주의할 점(예시)	개선 사항(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움</li> <li>〈인터뷰1〉에서 만석동, 화수동, 화평동 사람들에 대해 도둑놈이라는 비하발언이 그대로 사용됨</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술사 작성을 할 때 구술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성별, 나이, 직업 등)가 자세하게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li> <li>지역 비하 발언이나 인신 공격, 차별 및 언어 폭력 등은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해야 함</li> <li>.</li> <li>.</li> </ul>
주장(3가지 더 추가하기)	역사적 사실 및 추론(4가지 추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음에 기차를 보고 그 크기와 소리에 놀라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음</li> <li>동인천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중구와 동구에 지역차별이 있었다.</li> <li>경인선과 관련된 놀이들이 있었는데 기차가 전복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놀이였다. 그런데 당시 아이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li> <li>.</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음에 기차를 보고 그 크기와 소리에 놀라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음</li> <li>동인천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중구와 동구에 지역차별이 있었다.</li> <li>경인선과 관련된 놀이들이 있었는데 기차가 전복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놀이였다. 그런데 당시 아이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li> <li>.</li> <li>.</li> <li>.</li> </ul>
영상을 본 후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백화점의 위치, 번성했던 인천 백화점이 왜 없어지게 되었는지?</li> <li>신평동→구월동→부평역 지하상가 등으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li> <li>.</li> <li>.</li> </ul>	

교통과 관련한 스토리텔링(구술사) 발표 자료 제작하기

활동지4

학년

반

번 이름

1. 경인선 시발지 기념물과 기차 테마거리(디오라마) 살펴보기

국내 최초 증기기관차 모갈 1호

인천역 기차 조형물(한국 철도 탄생역)

2. 교통과 관련된 스토리텔링(구술사) 발표 자료 제작하기

- 자신과 가족 및 친척과 이웃의 삶을 변화시킨 교통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경험에 바탕을 둔 구술사(스토리텔링)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 인천공항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인천공항을 둘러본 소감, 비행기를 탔을 때의 경험담 등
- 지하철역이 거주 지역에 들어오면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 인천지하철 1호선이 인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인천지하철 1호선 설립 목적과 과정, 인천지하철 1호선을 지도에 표시하기
-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인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무인 전철 승차 소감기,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 도시가 어떻게 변했는가? 루원시티 및 검단 등
- 수인선(인천역~소래포구역)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수인선은 인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인천항 여객터미널 및 크루즈터미널의 이용객 및 관광객으로 인한 변화는 무엇인가?
- 인천의 각 섬을 연결하는 교통편인 배(선박)나 다리로 인한 변화는 무엇인가? 강화군 교통도, 영종도, 인근 섬 등을 활용한 해양 관광코스 개발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이 외 모둠이 선정한 교통 관련 다양한 주제

- 구술사(스토리텔링)의 질문지 작성하기: 2~3개
- 인터뷰 형식뿐만 아니라 인터뷰가 없이도 발표 주제와 관련 있는 시각 자료로 구성 가능
-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영상 제시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가능함. 발표 형식은 모둠별 특성에 맞게 변형 가능함

교통과 관련한 스토리텔링(구술사)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활동지5

학년

반

번 이름

모둠명		
모둠원		
탐구 주제		
역할 분담 (예시)	모둠장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인터뷰 대상 선정 및 질문지 작성	
	시나리오 작성 및 자료 정리	
	발표 자료 제작	
	발표(질문에 대한 답변)	
주제 선정 이유		
인터뷰 대상 선정 (정보), 질문 2~3개 구성		
발표 자료 구성 (시나리오 작성, 시각 자료 선정) *동영상 편집/ppt 발표 활용 가능		
발표에 대해 예상되는 질문		
참고 자료		

16

지역사 기반 2022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교수학습 자료집

17

[ 성찰일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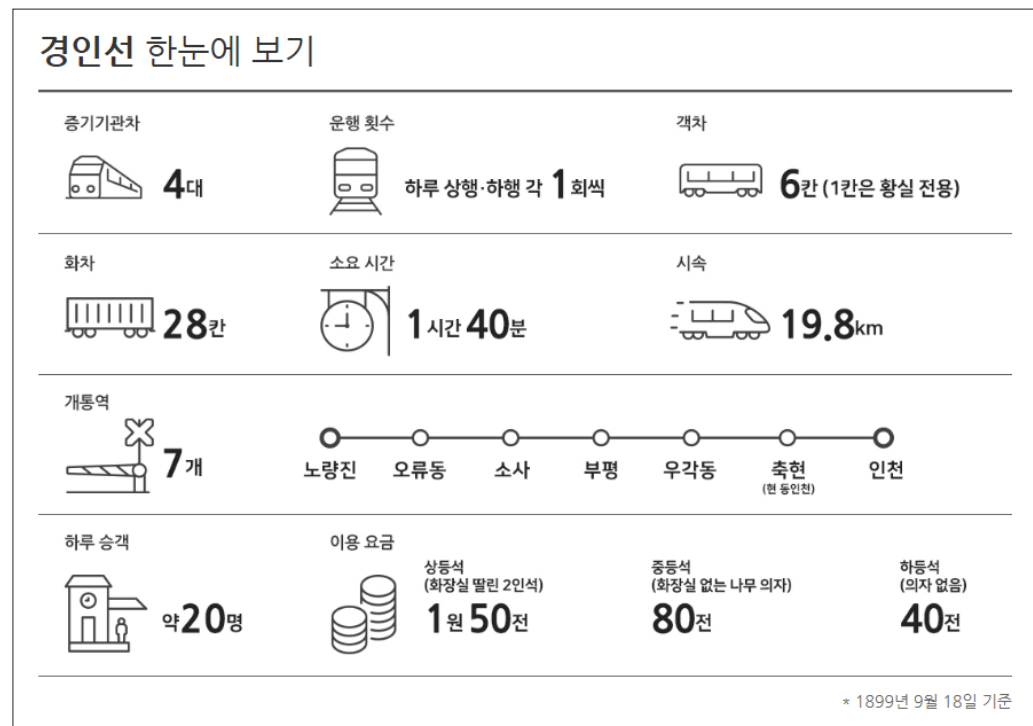
모둠		학년	반	번	이름:
프로젝트명 (혹은 수업 주제)					
탐구 질문 (혹은 핵심 질문)					
프로젝트 요약 (혹은 활동 요약)					
자기 자신에 대하여					
프로젝트(혹은 수업)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학습내용)					
프로젝트(혹은 수업)를 하는 동안 어떤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나요?	인천교육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type="checkbox"/> 협력역량			
	교과 역량	<input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가장 최선을 다한 프로젝트 활동(수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더 시간을 들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 (혹은 수업)에 참여한다면 무엇을 하기 원하나요?					
프로젝트(혹은 수업)에 대하여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젝트 (혹은 수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아쉬웠던 프로젝트 (혹은 수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 (혹은 수업)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 동료 평가지 ]

모둠 발표 제목	
발표를 듣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궁금한 점	
발표에 대한 평가	☆☆☆☆☆
모둠 발표 제목	
발표를 듣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궁금한 점	
발표에 대한 평가	☆☆☆☆☆
모둠 발표 제목	
발표를 듣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궁금한 점	
발표에 대한 평가	☆☆☆☆☆
모둠 발표 제목	
발표를 듣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궁금한 점	
발표에 대한 평가	☆☆☆☆☆

## 라. 교사 참고 자료

### 1. 경인선 도식화 자료



### 2. 경인철도가-인천 콘서트 챔버



한양을 작별하는 기적소리는/연화봉을 진동하며 작별을 하고/한 바퀴 두 바퀴는 차례로 굴러  
 종남산의 단색은 등에 멀었네/변화한 좌우시가 다투어 비키고/굉광한 바퀴 소리는 땅을 가르는데  
 대지를 울리는 기적일성은/장엄한 용산역을 부수우는구나  
 경부선과 경원선을 서로 나누어/한마디의 기적으로 고별을 하고/웅장한 남한강의 철교를 지나  
 철마요람노량진에 다랐도다/살같이 나타나는 장엄한 기차  
 어언 듯 영등포 잠깐거치여/부산행 급행을 멀리 보내고/오류동 정거장 지내었구나  
 넓고 넓은 소사벌을 갈라 나가면/소사역과 부평역도 차례로 거쳐산 넘고 물 건너 급히 달하니  
 속하다 주안역도 지내었구나/원산을 우구려 가깝게 하고/근산에 뽀치어 멀게 하면서  
 우렁찬 기적을 울리는 철마/어언 듯 제물포에 다다랐도다.

### 3. 영상 편집 참고 사이트



캡컷 활용 동영상(Capcut으로 기본 영상 편집 마스터하기, 캡컷 특징 및 사용법 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1CvCBk4hcXc>  
 (3분 이내로 제작하는 것이 좋음)



맵믹스2 편집 방법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9QUzhIBJ9yY>  
 무료 다운로드  
<https://www.vapshion.com/vapshion3/download.php?attractor=menu%2Fdownload>

## 마. 참고 자료

### 1) 문헌

- 서울 도시철도 120년 -서울노면전차 서울지하철 50년 경전철 20년의 스토리텔링-, 최항길, MATE.

### 2) 인터넷 자료

- 민족의 애환이 서린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  
 (https://www.youtube.com/watch?v=RD8XvurvcwE)
- 경인철도와 공단, 부평을 피워내다  
 (https://enews.incheon.go.kr/home/kor/news-board/detailView.do?menuCode=STORY01&idx=5748)
- 45년생, 보통사람들의 위인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1964.html)
- https://blog.naver.com/mangsangroom/223539875185
- KBS 다큐, 개항인천, 최초의 도시가 되다, 2023.8.19.
- 경인선, 디지털동작문화대전 <https://www.grandculture.net/dongjak/toc/GC08200236>
- 경인선의 개통과 관광의 인식,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print.do?levelId=km\_022\_0040\_0010\_0030&whereStr=)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공감> <https://www.much.go.kr/webzine/vol25/sub2-4.html>

3) 기사 자료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062162&memberNo=24167781>
- <https://v.daum.net/v/20240203093008587>
-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194>

4) 기타 자료

- 그 시절, 인천 서구를 말하다. '조길휘 구술자'의 인천 서구 구술채록(feat.인천서구문화원)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8X6NVmceeNg>
- <https://www.youtube.com/watch?v=1CvCBk4hcXc>
- <https://www.youtube.com/watch?v=9QUzhIBJ9yY>
- <https://www.vapshion.com/vapshion3/download.php?attractor=menu%2Fdownload>

02

노동 구술사를 낭송극으로  
- 동일방직 노동자 이야기 -

20

가. 수업 개관

1) 수업 개요

수업 주제		노동 구술사를 낭송극(Reader's Theatre)으로 - 동일 방직 노동자 이야기 -		총 차시	7차시
교과		한국사			
성취기준		[10한사2-02-04]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하고, 그것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친 영향을 인식한다. [10한사2-02-05]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문화 변동과 일상생활의 변화 사례를 조사한다.			
교수학습 방법		■ 스토리텔링      ■ 교육연극(낭송극 Reader's Theatre) ■ 스마트 학습      ■ 협력 학습      □ 직접교수법      □ 거꾸로 학습      □ 문제해결학습			
학습자 역량	인천교육 핵심역량	□ 자기관리역량      ■ 의사소통역량      ■ 다양성존중역량 □ 문제해결역량      ■ 협력역량			
	교과 역량	■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 자료·정보 활용 역량      ■ 의사소통 역량 ■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 자기 성찰·계발 역량      ■ 문화 향유 역량			
수업 준비	교사	읽기 자료 1: 구술사 분석 관련 자료, 읽기 자료 2: 동일 방직 관련 자료, 수행 활동지 1(구술자료 분석 활동지), 수행 활동지 2(스토리보드 및 대본 작성 활동지)			
	학생	자료 수집 및 대본 작성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낭송극(Reader's Theatre) 필요 소품 등			
	수업환경	교사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1대, 학생 모둠별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1대, 학교 무선인터넷 제공 및 유/무선 미러링 가능, 빔 프로젝트, 삼각대, 촬영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또는 캠코더			
주요 산출물		수행 활동지 1, 2, 낭송극(Reader's Theatre)으로 발표하기			
평가 방법		개별 평가 - 구술자료 분석 : 1960~70년대 사회상 및 노동 조건 추론하기 모둠 평가 - 스토리보드, 대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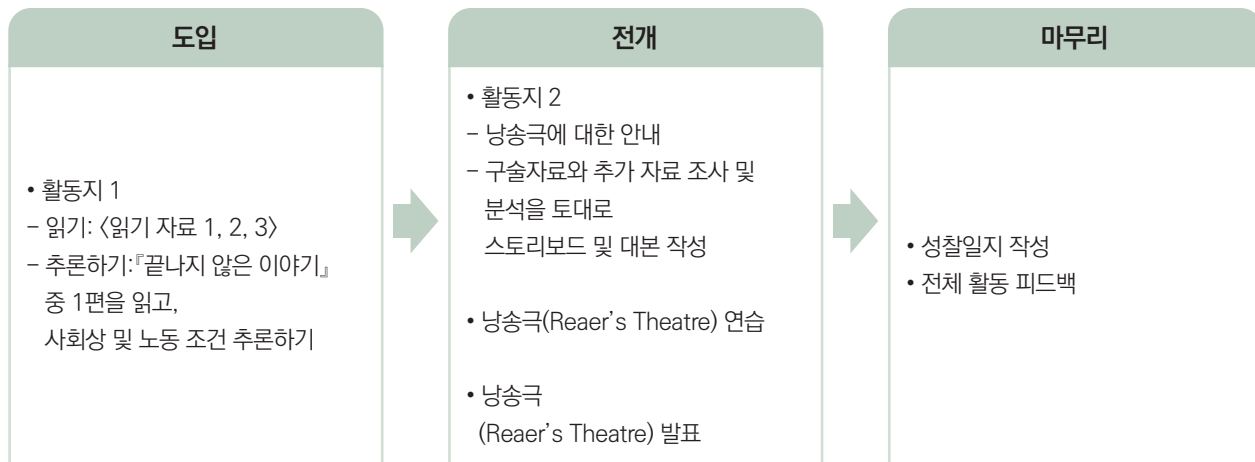
## 2) 수업 의도

구술자료는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특히 비주류와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를 담고 있어 역사서술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대개 구술자의 기억과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구술자료를 전적으로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자료는 구술자료의 비판적 분석 작업을 거쳐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당시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노동 구술사를 낭송극으로’ 수행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인천 지역 동일 방직 노동자들의 삶을 낭송극 형식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구술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스토리보드와 대본을 작성하게 된다. 연극 형식으로 발표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협업을 통해 이야기 구성력을 키우고, 감정이입 과정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리라고 본다.

구술자료를 통해 전해지는 개인의 경험은 역사적 사실을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어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 3) 수업 흐름



## 나. 수업의 실제

단계	차시	수업 예상 흐름	유의점	교수학습자료
도입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 활동 안내: 구술사 〈읽기 자료〉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자료 1 : 구술사의 삶과 분석상 유의점</li> <li>- 읽기 자료 2 : 동일 방직에 대한 개관</li> <li>- 읽기 자료 3 : 동일방직 구술자료</li> </ul> </li> <li>활동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 〈읽기 자료 1, 2, 3〉</li> <li>- 추론하기 : 『끝나지 않은 이야기』 3편 중 1편을 읽고, 1960~70년대 사회상 및 노동 조건 추론하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읽기 자료 3의 pdf 파일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도록 개별 확인한다.</li> <li>읽기 속도가 빠른 학생의 경우 1편 이상 읽기를 권장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지 1</li> <li>개인별 스마트폰, 테블릿, 노트북 중 1대</li> </ul>
실행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 낭송극(Reader's Theatre) 안내</li> <li>모둠 구성</li> <li>주제 선정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의 연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낭송극에 관해 안내한다.</li> <li>전체 인원을 고려하여 4~6명으로 모둠을 유동적으로 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지 2 (낭송극 안내)</li> <li>교실 데스크탑 및 빔프로젝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수집 및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토리보드는 전체 이야기의 대강을 잡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림 속 시에 연연하지 않게 안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둠별 노트북</li> <li>스토리보드 작성 활동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물 개발 및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본 작성, 배역 및 역할에 대해 중간 점검하고 피드백을 준다.</li> <li>낭송극에 필요한 장소, 필요 물품을 확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본 작성 활동지</li> <li>교실 데스크탑 및 빔프로젝터</li> </ul>
프로젝트 결과 발표 또는 정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성한 대본을 토대로 낭송극(Reader's Theatre)을 발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실도 가능하나, 가능하면 별도 공간을 이용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낭송극 발표 장소</li> <li>마이크 시설</li> <li>성찰일지</li> </ul>
성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찰일지 작성</li> <li>전체 피드백 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본 및 연극 등에 대해 피드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찰일지</li> </ul>

##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수행 읽기 자료 1

### 구술사 알아보기

학년 반 번 이름

#### <읽기 자료 1> 구술사

• 구술사의 사전적 정의: 동시대 사람들이 경험 따위를 구술(입으로 말함)한 것을 기록한 역사

#### • 구술사의 쓸모!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의 저자는 우리가 배우는 역사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한다.

“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은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줄기와 연결되는가.

우리가 배운 거시적인 역사상은 개인의 목소리를 잘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구술사는 이와 같이 거시 역사가 담을 수 없는 개인,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건조한 역사서술을 벗어나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역사상을 보여 줄 수 있다.

#### •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로 본 구술자료를 활용한 사료 분석의 유의점

(가) “집에 술항아리도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 술 갓다주고 집에서 할아버지가 잡숫고 하느라고 항아리가 어른 키 만 했어. 술 만들 때 쌀이 한 가마씩 들어갔다고. 근데 당시 일본 놈들이 ‘술 조사’를 나왔어, 못 해 먹게 하려고. - 종락 - 술 조사 나와서 걸리면 벌금 나오고, 술 다 압수해 가고, 막 처벌받고 그랬어. 그거 피하려고 땅 파서 항아리 숨기고서 위에다 짚 같은 거 막 쌓아 놓았어. 그 안에다 해 놓고 먹고 그랬는데, 그거까지도 막 뒤져서 걸린 사람들 많았지. 걸리면은 영창에다 집어넣었어. 그때 영창에 들어간 사람은 한 달씩 있다 나오고 벌금도 물었어. 우리 집은 술에 대해 걸리면 적당히 돈을 쥐 가지고 무마했는데, 돈이 많고 하니까 일본 놈이 고개 숙이고 들어 오고 그랬어.”

(나) “그다음에 내가 어디로 갔나면 거제도, 그 당시 포로로 잡은 인민군 놈들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모아 뒀어. 우리 대대가 인민군 지키는 초소 경비하러 간 거야. 그때는 거제도 다리가 없었던 때라서, 밀양에서 기차 화물칸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 부두에서 군함 타고 갔어. 거제도 가려면 과정이 많았어. 수용소에 들어간 인민군 놈들은 저녁이면 막 서로 죽였어. 아침이면 시체가 나왔지.”

(다) “부산 차량 재생창에 있을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편지를 부치러 갔다가 만났어. 집에 편지를 해야 되는데, 쫄병이 편지를 부치려니까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처음이라 길도 모르는데 외출증은 끊어 가지고 나갔지. 편지를 다섯 장을 써서 집에 부치려고 부대 친구들하고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철길이 있었어. 그게 무슨 철길이나면은, 부산진에서 동네 사이로 가는 간이철도였지. 철도 가에 있는 집에 연탄 찍는 데가 있었어. 옛날에는 연탄을 찍었잖아. 사람이 탄 가루를 퍼 넣어 찍어서 떼어 가지고 말려서 연탄을 만들었어.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우체통이 붙었더라고, 길가에. 들어가서 우표 좀 달라고 하니깐 그 아가씨가 나온거야. 그렇게 해서 우표를 붙였어. 근데 보니까 괜찮더라고.”

- 이동해,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 - 중에서

수행 읽기 자료 1

### 구술사 알아보기

학년 반 번 이름

#### 1. 맥락 찾기:

구술자가 경험한 사건에는 반드시 그 시대적 배경이 있게 마련이다.

(가) 글에서 일제 관원이 ‘술 조사’를 위해 집으로 찾아왔고, 그 집에서는 단속을 피하려 술 항아리를 땅속에 묻기도 하고 돈으로 무마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대체 이와 같은 단속과 땅속 파묻기는 어떤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가) 글의 ‘술 조사’와 그에 대한 반응의 이해는 결국 ‘당시 일제의 주조 정책이 어떠했는지’라는 맥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검증 하기: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된다. 구술과정에서 때로는 기억의 왜곡, 의도적 왜곡,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난다. 이는 구술사가 지닌 맹점이다.

(나)의 글에서 구술자는 자신의 군대 입대 시기를 정확히 이야기 하지 않은 채 군대 시절 이야기로 ‘거제포로수용소’의 반공포로와 공산포로 사이의 싸움을 생생히 묘사하였다. 정전 직후 포로들은 송환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언은 구술자가 6.25 전쟁 중 입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그의 〈병적증명서〉, 〈거주표〉를 발급받아 보니 입대일은 전쟁이 끝난 후 1년이 다 된 때였다. 이후 문서를 구술자에게 보여 주니 구술자는 당시 자신이 거제에 갓을 때는 텅 빈 상태였다고 정정하였다. 단순 기억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정적인 이유가 맞물린 증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서술자는 반드시 ‘구술자의 진술이 정확한가?’를 묻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작업을 꼭 거쳐야 한다.

#### 3. 특정 하기:

녹취록을 보다 보면 당시의 경험을 생생히 묘사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지명, 인명, 사건명, 사물명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이럴 땐 주어진 단서를 최대한 활용해 특정할 수밖에 없다.

(다)의 글에서 구술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곳으로 부산지역의 어느 철길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그 철길이 어느 곳인지를 알 수 없어 서술자는 구술자가 말한 여러 단서를 이용하여 당시의 지도, 신문 기사, 논문, 다른 구술자료들을 확인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특정하였다. 즉 구술자의 기억과 말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단서들을 활용하여 특정함으로써 구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 • 구술사 인터뷰 영상 사례:

2023년 인천여성생애구술사 “인천지역의 공단과 여성의 공장노동”,  
<https://www.youtube.com/watch?v=AAtUdrdxPz8&t=45s>





## &lt;읽기 자료 2&gt; 동일방직, 한국민족문화대백과(검색일: 2024.10.31.)

## 정의

1972~1978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민주노동조합운동.

## 발단

동일방직은 1955년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설립된 방직공장에서 연원하여 1966년 1월 동일방직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70년대 대표적인 섬유류 제조업체가 되었다. 동일방직의 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지만, 1946년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1972년까지 역대 위원장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여성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어용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 경과 및 결과

1972년 5월 10일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주길자가 선출되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처음으로 여성 지부장이 되었다. 여성 위원장이 주도하는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시작이었다. 1975년에는 여성 노동자인 이영숙이 다시 지부장에 선출되었다. 회사 측과 남성 노동자들은 불신임안을 제출해 노동조합 집행부를 교체하려 하였다.

1976년 7월 23일 남성 노동자들의 고발로 이영숙 지부장이 연행되고 남성 노동자들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고두영을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에 반발하며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철야 농성에 들어가고 지부장 석방을 요구하였다. 회사 측이 수도와 전기를 모두 끊어 버렸지만 800여 명이 농성에 참여하였다.

7월 25일 오후 5시 경찰은 강제 진압을 개시하였고 그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은 작업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반나체 시위를 하며 저항하였지만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72명이 연행되고 50여 명이 기절하였으며 14명이 병원에 실려 갔다. 7월 26일 여성 노동자 300여 명은 출근하지 않고 섬유노동조합 본조에 물려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여 밤 11시경 지부장 등이 석방되었다.

1977년 1월 21일 노동조합원들은 '동일방직사건수습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에 사건 진상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노동청의 중재로 자율적인 대의원대회 개최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노동자들의 방해와 난동이 있었지만, 1977년 4월 4일 여성 노동자 이종각이 지부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1978년 2월 21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회사 측과 섬유노동조합 본조가 합세하여 민주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도시산업선교회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라는 빨갱이 불온 단체가 배후에 있다.”라고 선전하였다.

2월 21일 새벽 이른바 '똥물투척사건'이 일어났다. 남성 노동자들이 조합원 투표를 준비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똥물을 뿌리며 방해하였다. 3월 6일 섬유노동조합 본조는 동일방직 노동조합을 '사고 지부'로 규정하고 이종각 등 4명을 반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제명하였다.

3월 10일 76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식이 생

중계되는 가운데 “우리는 똥을 먹고 살 수 없다.”, “동일방직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부분 바로 연행되었지만 나머지는 명동성당으로 가서 14일 동안 단식 농성을 전개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의 중재로 회사에 복귀하였지만, 회사 측은 노동조합 탈퇴 각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불응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4월 1일 124명을 해고하고 2명을 자진 퇴사시켰다.

섬유노동조합위원장 김영태는 해고 노동자 126명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배포하여 취업을 못 하게 하였다. 4월 26일 해고 노동자 65명은 대의원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에 들어가 농성하였지만, 전원 연행되고, 4월 28일 박복례 지부장이 선출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이후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 투쟁을 전개하였다.

200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일방직 사건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다는 것을 밝혀 내고, 신청자 7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으며 34명의 복직을 권고하였지만 회사측은 거부하였다. 2018년 1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일방직복직추진위원회(위원장 최연봉)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 4억5천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의의 및 평가

동일방직 노동자투쟁은 1970년대 섬유산업의 여성 노동자들이 주도한 대표적인 민주노동조합운동이었으며, 1980년대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 참고문헌

단행본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이매진,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2006)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엮음, 『동일방직 노동조합 운동사』(돌베개, 1985)
인터넷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a href="https://www.kdemo.or.kr/blog/70s/post/110">https://www.kdemo.or.kr/blog/70s/post/110</a> )
신문·잡지	「민주노조 세운 여공들... 똥물도 이들의 저항 정신은 막지 못했다」(『경향신문』, 2020. 12. 16) 「알몸 시위로 버틴 여성들에 '똥물'을 뿌린 남자들」(『한겨레』, 2013. 1. 5)

## &lt;읽기 자료 3&gt; 인천 도시 연구 총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목록 : 발간물 | 연구원 간행물 | 인천연구원

- ▶ 오른쪽 QR코드를 읽어 인천연구원의 발간물 중 『끝나지 않은 이야기』 PDF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 ▶ 동일방직의 노동자로 살았던 최연봉, 공인숙, 김영순 세분의 이야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읽고 활동지를 작성한다!



**\* 활동지 1 작성 시 유의점**

- 사회상 및 노동 조건 3가지 작성하기.
- 예시 형태와 같이 구술자료의 맥락을 파악하여 추론할 것.
- 추론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

**1. 구술자료를 통해 알게 된 당시의 사회상 추론하기 [5점]**

예시) 16쪽 “우리 집은 머슴도 다섯 정도 있는 지주 집이었대요”

→ 1960년대 이전 농촌 마을에는 머슴이라고 불리는 직업군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머슴은 주로 농가에 고용되어 그 집의 농사일과 잡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내로 정의되어 있다. ……

1.

→

2.

→

3.

→

**2. 구술자료를 통해 알게 된 1960~70년대의 공장 노동의 조건 추론하기 [5점]**

예시) 21쪽 “거기도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 여름에는 너무 더웠거든요”

→ 공장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8시간 노동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고, 공장 내부의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 신문의 자 기사의 □□라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

1.

→

2.

→

3.

→

## 1. 낭송극(Reader's Theatre) 소개

가. **낭송극이란 의상, 메이크업, 무대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읽기와 연기를 결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는 방법이다.**  
무대나 의상, 연기 등 다양한 연극적 요소를 가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소한의 읽기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나. 역사 인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대본으로 작성하면서 구체화하고, 작성된 대본을 다양한 감정과 전달 수단으로 표현하여 역사 인물 및 상황, 그를 둘러싼 이들의 입장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다. 낭송극(Reader's Theatre) 소개 및 사례

리더스 씨어터 소개	리더스 씨어터 사례	우리나라 낭독극 사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1mStaalxA0">https://www.youtube.com/watch?v=w1mStaalxA0</a>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PYQYjlF9HFo&amp;t=132s">https://www.youtube.com/watch?v=PYQYjlF9HFo&amp;t=132s</a>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X5E5lUUGyQw&amp;t=56s">https://www.youtube.com/watch?v=X5E5lUUGyQw&amp;t=56s</a>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mwOsBVgt8c">https://www.youtube.com/watch?v=YmwOsBVgt8c</a>
		
		

## 2. 낭송극의 진행

가. 모둠 구성: 4~6명

나. 자료 읽기 및 대본 작성: 제공된 <읽기자료 2, 3>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1960~1970년대 노동 상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여 스토리보드 및 대본을 작성한다.

\* 구술자료와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인물상(人物像)이 입체적 드러나도록 공동으로 대본을 작성한다. (분량은 5~7부)

다. 대본 연습하기: 낭송의 방법 및 연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작성하고 대본을 연습한다.

\* 유의할 것은 대본만을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닌 적절한 동작 및 연출을 가미하여 실감 나는 연기를 한다.

라. 리허설 및 수정하기: 실전처럼 연기해 보고 고칠 점을 확인한 후 수정, 연습한다.

마. 낭송극을 발표한다.

바. 낭송극에 대한 자기 성찰 및 피드백 하기

## ■ 스토리 보드 작성

작품 제목		
제목 선정 이유		
등장인물		
발단에서 결말까지의 이야기 핵심 장면을 각각 그림과 1~3개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발단/장면1	(그림)	(문장)
전개/장면2		
위기/장면3		
절정/장면4		
결말/장면5		

## 배역 및 역할표(1인 2역 가능)

배역 및 역할	모둠원 이름	배역 및 역할	모둠원 이름
(예시) 해설자 1 / 연출	홍길동		

■ 위치, 소품, 음악 등 아이디어 자유롭게 적기!(선생님이 환경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적기)

▣ 대본작성하기 (\* 작성 분량이 더 필요한 경우 A4지 더 첨부해서 작성)



## [ 성찰일지 ]

모둠		학년	반	번	이름:
제목					
극 전개의 의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연극 발표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학습내용)					
연극 및 전체 수업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나요?	교과 역량	<input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연극 활동 전체 과정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점은?					
연극 활동 전체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연극 활동 전체 과정에서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다른 모둠 발표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가장 칭찬해 주고 싶은 모둠은? (이유까지)					
모둠 활동과 연극에서 행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연극 전 나의 역할					
연극에서 나의 역할					

## 라. 교사 참고 자료

## 1. 구술사를 바탕으로 쓴 역사책

##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서문 발췌

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은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줄기와 연결되는가. 우리가 배운 거시적인 역사상은 개인의 목소리를 잘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고 한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집중하다 보면 그 시대가 가진 구조적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둘을 적절히 배합할 순 없는 걸까. 어느 개인의 구술을 넘어, 시대의 맥락까지 함께 조명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은 이러한 고민을 담아 구술사 쓰기를 시도한 나름의 결과물이다. 구술사란 대상자와 면담을 진행해 구술을 채록하고, 이를 활용해 역사를 쓰는 걸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특히 한 사람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었으니,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구술생애사 쓰기를 했다고 하는게 맞겠다.

…… 중략 ……

그럼 결과물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고민 끝에, 허홍무의 구술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그에 대한 분석을 덧붙이기로 했다. 분석은 맥락찾기, 검증하기, 특정하기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했다.

## 1- 맥락 찾기

허홍무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면, 분명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있게 마련이다. 일례로, 허홍무는 일제 관원이 ‘술 조사’를 위해 집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일반 가정에서 술을 빚지 못하게 하려고 단속했다는 내용이다. 허홍무의 집에선 단속을 피하려 술항아리를 땅속에 묻기까지 했다. 대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이것은 허홍무 스스로 답할 수 없었던 질문이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선 학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일제의 주요 정책을 다룬 여러 논문을 들추는 것이다. 일제의 주요 정책을 모른다면, 우리는 허홍무가 말한 ‘술 조사’에 대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술의 맥락을 찾으려 노력했다.

## 2- 검증하기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된다. 더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모른다면 넘어가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얘기할 수도 있다. 구술사가 지닌 맹점이다. 그래서 검증 작업은 꼭 필요하다. 검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다르게 구술했는지 따지는 것이다. 허홍무는 처음에 자신의 입대 시점을 두고 한국전쟁 중인지, 정전이 된 후인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군 시절 거제포로수용소에 배치된 상황을 구술하면서, 반공포로와 공산포로가 서로 싸운 걸 생생히 묘사하는 게 아닌가. 정전 직후 포로들은 양 진영으로 곧 송환되었으므로,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걸 허홍무가 실제로 봤다면 분명 전쟁 중에 입대한 게 맞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었다. 후에 허홍무의 군 생활 내력이 담긴 <병력증명서>와 <거주표>를 발급받아 살펴보니, 그의 입대일은 전쟁이 끝나고도 1년이 다 된

때였다. 문서를 보여 주고 나서야, 허홍무는 거제도에 갔을 때 수용소가 텅 빈 상태였다고 정정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는 전쟁 후에 입대한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허홍무가 전쟁 중에 입대했다고 이해한 채로 분석을 이어 갔다면, 실제 역사와 동떨어진 결과물이 남았을 것이다.

둘째는 구술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다. 허홍무는 조부 허벽이 운영한 금광이 ‘천안 광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수많은 자료를 뒤졌고, 결국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허벽의 금광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금광은 천안 광덕이 아니라 청양, 예산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허홍무의 정보가 부정확했던 것이다. 아마도 한참 어렸을 때 일이니, 처음부터 부정확한 정보로 기억하고 있었지 싶다. 이렇게 계속 의심하며 검증하고자 힘썼다.

### 3- 특징하기

녹취록을 보다 보면, 당시의 경험을 생생히 묘사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지명, 인명, 사건명, 사물명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이럴 땐 주어진 단서를 최대한 활용해 특정할 수밖에 없었다. 허홍무가 부산에서의 군 생활을 이야기하던 중 어느 철길을 언급한 일이 있다. 허홍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곳으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다. 허홍무는 이 철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철길이 무슨 철길이나면은, 부산진에서 동네 사이로 가는 간이 철도가 있었어. 철도가에 있는 집에 연탄 짙는 데가 있고.” 여기서 부산진, 간이 철도라는 키워드와 철도 아주 가까이 집이 있었다는 점을 힌트 삼아 부산의 철도 개발 관련 자료를 뒤졌다. 옛 지도를 펼쳐 들고 부산진 근처의 철도 길도 직접 찾아봤다. 그렇게 몇몇 신문 기사, 논문, 그리고 부산시에서 수집한 구술자료집을 통해 허홍무가 언급한 철도가, 1970년대 초까지만 운행하고 지금은 사라진 ‘문현선’이라는 사실을 특정했다. 지명, 인명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되도록 많은 자료를 살펴 구술 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을 특정하고자 했다.

…… 중략 ……

비록 이 글은 허홍무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개인사로 출발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허홍무를 돋보기로 활용해 1935년부터 1959년 사이의 시대를 구석구석 조명했다. 이는 제도·사건·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 기존의 역사 서술 방식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마치 1590년에서 1640년 사이의 시기를 본다고 할 때, 임진왜란, 광해군, 인조반정, 이괄의 난, 병자호란과 같은 굵직한 사건·인물로 이해하기보다, 1580년 전라도 남원에서 태어난 농사꾼 자식 이 아무개가 1640년 환갑을 맞기까지 겪은 삶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일제의 식민지배, 태평양 전쟁, 해방과 점령, 한국전쟁까지, 그 속에서 허홍무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줄까. 이제 그 결과물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자 한다.

## 2. 낭송극(독자극장)이란?

### (1) 리더스 씨어터 (Readers’ Theater)란 무엇일까요?

배우들이 대본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대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실어서 대본을 읽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잘 전달이 되도록 말이죠.리더즈 씨어터란 낭독자들이 무대 위에서 대본 낭독을 하는 낭독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대본을 보면서 읽는 것이지만 발음, 억양, 속도 등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읽기가 유창하게 되어야 합니다. 영미권에서는 읽기의 유창성 향상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Readers’ Theater가 수업 시간에 읽기 연습의 한 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academic-accelerator.com/encyclopedia/kr/readers-theater>

### (2) 그러면 연극과 무엇이 다를까요?

의상, 소품, 장면, 배경음악 등 여러 가지 연출과 대본 암기가 필수적인 연극과 달리, 리더즈 씨어터는 무대 위에 서서 최소한의 몸짓과 표정 연기를 곁들여 대본을 낭독하기에 준비 과정이 간단하며, 대사 암기에 대한 부담감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연극	리더스 씨어터
대본 암기	대본 읽기
무대 위의 동작과 위치 중요	자리에서 간단한 동작만 필요
의상, 소품, 무대 장면과 배경 등의 연출 필요	생략 가능
공연 전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함	간단한 연습 후에도 무대에 오를 수 있음
소수의 영어에 능숙한 학생들에게 유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가 가능
역할이 주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	모든 참가자에게 균일하게 역할 배분이 가능

출처: [seed-learning.kr/STAR/goals.asp](http://seed-learning.kr/STAR/goals.asp)

### (3) 리더스 씨어터(낭독극의 실제)

리더스 씨어터 소개	리더스 씨어터 사례		우리나라 낭독극 사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1mStaalxA0">https://www.youtube.com/watch?v=w1mStaalxA0</a>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PYQYjIF9HFo&amp;t=132s">https://www.youtube.com/watch?v=PYQYjIF9HFo&amp;t=132s</a>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X5E5lUUgyQw&amp;t=56s">https://www.youtube.com/watch?v=X5E5lUUgyQw&amp;t=56s</a>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mwOsBVgt8c">https://www.youtube.com/watch?v=YmwOsBVgt8c</a>
			



## 마. 참고 자료

### 1) 문헌

- 안정윤 외, 『인천 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2018)
- 인천연구원,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인천연구원(2022)
- 이동해,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 푸른역사(2024)
- 이호연, 유해정, 박희정,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 구술을 어떻게 듣고, 기록할 것인가』, 코난북스(2021)

### 2) 인터넷 자료

- 독자극장 소개: <https://academic-accelerator.com/encyclopedia/kr/readers-theater>
- 동일방직 내용, 동일방직 노동자투쟁(東一紡織 労働者闘争)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리더스 씨어터 및 낭송극 유튜브 영상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w1mStaalxA0>  
<https://www.youtube.com/watch?v=X5E5IUUgyQw&t=56s>  
<https://www.youtube.com/watch?v=YmwOsBVgt8c>  
<https://www.youtube.com/watch?v=PYQYjIF9HFo&t=132s>
- 인천연구원 간행물, 『끝나지 않은 이야기』 목록 : 발간물 | 연구원 간행물 | 인천연구원
- 2023년 인천여성생애구술사 “인천지역의 공단과 여성의 공장노동”,  
<https://www.youtube.com/watch?v=AAAtUdrdxPz8&t=45s>
- 국립민속박물관, 『인천 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https://nfm.go.kr/user/publbook/home/1232/selectPublBookSetViewDetail.do?publBookIdx=8067&publBookCateS=&publBookSetIdx=882>

## 03

## 인천 5·3항쟁, 기억의 길 만들기

## 03

### 가. 수업 개관

#### 1) 수업 개요

수업 주제		인천 5·3 항쟁, 기억의 길 만들기	총 차시	9차시
교과		한국사2		
성취기준		[10한사2-02-03]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		
교수학습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교수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토리텔링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젝트 학습 <input type="checkbox"/> 토의·토론 <input type="checkbox"/> 스마트 학습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 학습 <input type="checkbox"/> 거꾸로 학습 <input type="checkbox"/> 문제해결학습		
학습자 역량	인천교육 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역량		
	교과 역량	<input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수업 준비	교사	스마트 기기(태블릿 등), 활동지		
	학생	디지털 기기(자료 조사 및 산출물 제작)		
	수업환경	1인 1디바이스, 학교 무선인터넷 활용 모뎀 모니터와 교사의 대형모니터 연결		
주요 산출물		- 학생 활동지, 발표자료, 결과물 평가·동료평가지 및 성찰일지 • 1차시: 들어가기 - 사진으로 인천 5·3 항쟁을 알아보기 • 2~4차시: 탐구하기 - 인천 5·3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다 • 5~7차시: 확장하기 - 인천 5·3 항쟁, 기억의 길을 만들다 • 8~9차시: 발표하기 - 기억의 길을 함께 나누고 제안하다  - 프로젝트 수업 이후에 인천광역시청 혹은 미추홀구청에 ‘기억의 길 만들기’라는 형태로 정책 제안을 하고 직접 탐방함으로써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활동 소감문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평가 방법		- 개인활동: 프로젝트 활동지 및 성찰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활동 참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모둠활동: 프로젝트 산출물 및 산출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활동 참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2) 수업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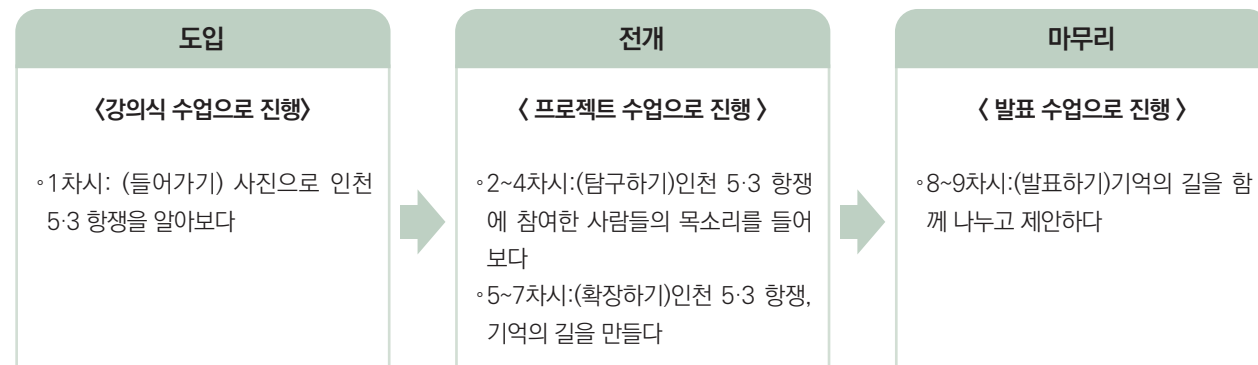
역사에서 기억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외른 뢰젠은 역사적 기억을 “과거의 의미, 현재의 이해, 미래의 조망들의 결합”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무엇을 기억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림으로써 역사적 과거가 현재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역사나 기억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그런데 이 수업에서 다룰 ‘인천 5·3 항쟁’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다수의 학생들은 ‘모른다’라고 답한다. ‘인천 5·3 항쟁’이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주주의사와 지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모른다고 답하는 이유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언급되는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 전개되는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인천 5·3항쟁’을 배움으로써 4·19 혁명 이후 민주주의의 역사를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구술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구술 자료는 개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역사가 주는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주화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에서 ‘인천 5·3 항쟁’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분류되어 정의되고 있다. 이와 연결하여 ‘인천 5·3 항쟁’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민주화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정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양한 관점에서 느낄 수 있도록 ‘기억의 길 만들기’라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인천광역시청과 미추홀구청에 ‘기억의 길 만들기’라는 형태의 정책 제안을 실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인천 5·3 항쟁’을 공동체가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3) 수업 흐름



## 나. 수업의 실제

단계	차시	수업 예상 흐름	유의점	교수학습자료
도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5·3 항쟁 관련 기록물 공개에 대한 영상을 제시하여 인천 5·3항쟁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동기를 유발한다. (<a href="https://youtu.be/5nUybrlkOzl?si=U-wefcN9FgVSaiNj">https://youtu.be/5nUybrlkOzl?si=U-wefcN9FgVSaiNj</a>)</li> <li>활동지에 제시된 사진을 활용한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고,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인천 5·3 항쟁의 전개 과정을 찾아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블릿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고 사건을 탐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상자료</li> <li>〈활동자료1〉 사진으로 인천 5·3 항쟁을 알아보기</li> </ul>
실행	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5·3 항쟁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시하여 인천 5·3 항쟁의 전개 과정을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 동기를 유발한다. (<a href="https://youtu.be/1jFjYBeovc4?si=YJTbPCxRkExB8kl8">https://youtu.be/1jFjYBeovc4?si=YJTbPCxRkExB8kl8</a>)</li> <li>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한다.</li> <li>모둠별로 구술 자료를 분석한 이후, 문헌 자료 발췌,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인천 5·3 항쟁의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여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5명으로 모둠을 구성한다.</li> <li>문헌 및 논문 자료 찾는 방법,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기사 검색 방법을 안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자료2〉 인천 5·3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다</li> </ul>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탐방길을 활용하여 인천 5·3 항쟁 관련 장소를 간단히 소개한다.</li> <li>모둠별로 인천 5·3 항쟁을 기억할 수 있는 탐방 코스 및 방안을 토의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의 수행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부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자료3〉 인천 5·3 항쟁, 기억의 길을 만들다(1)</li> </ul>
	결과물 개발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둠별로 구상한 인천 5·3 항쟁을 기억할 수 있는 탐방 기획안을 정책 제안의 형태로 발표 자료를 제작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 자료를 제작할 때 각자 역할을 맡아 진행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자료4〉 인천 5·3 항쟁, 기억의 길을 만들다(2)</li> </ul>
프로젝트 결과 발표 또는 정리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둠별로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한다.</li> <li>- 기억의 길 만들기 활동 결과물을 발표한다.</li> <li>자기 평가지 작성 후 모둠 내에서 활동 소감을 발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 및 경청하는 자세를 강조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자료5〉 결과물 평가 및 동료평가지</li> </ul>
성찰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5·3 항쟁, 기억의 길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배운 것, 실천할 것을 기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자료6〉 성찰일지</li> </ul>

##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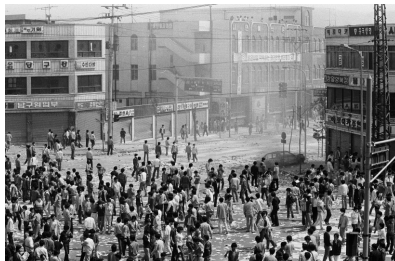
### 사진으로 인천 5·3 항쟁을 알아보다

활동지1

학년 반 번 이름

#### \* 들어가며: 인천 5·3 항쟁은 어떠한 사건일까요?

인천 5·3 항쟁은 1986년 5월 3일에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에 시민, 학생, 노동자가 집결하여 민주화를 외치며 시민회관 앞 사거리 일대에서 경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인 하루의 사건이다.



출처: 경인일보

#### ※ 인천 5·3 항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 \* 탐구하기: 사진을 활용하여 인천 5·3 항쟁의 전개 양상을 정리하여 봅시다.



- 인천 5·3 항쟁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하였을까요?



출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 5·3민주항쟁 사진전

- 당시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어떠한 구호나 주장을 이야기하였을까요?

### 인천 5·3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다

활동지2

학년 반 번 이름

#### \* 다음 자료를 읽고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가)

80년 이후에 대중적으로 학생, 노동자,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표출된 게 5·3이었다고 봐요. 5·3에 대 그때 나온 구호 때문이기도 하겠죠. ...**(중략)**... 86년 초까지만 해도 하나의 노선으로 정리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정치적 구호는 5·3 때 혼재돼 있었어요. 구호는 '독재타도,' '민주정부수립' 이런 구호가 주요한 것이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반전 반핵'이란 게 있었어요. 그 전에 다른 집회에서 이런 구호를 외친 적은 없어요. 5·3 때 처음 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운동의 거대한 흐름에서 볼 때 '5·3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83학번인데 1학기까지는 학내에 백골단이 있다가 2학기부터 철수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학생운동이 학내시위 중심으로 흘렀고, 그런 시기를 거쳐서 84년부터는 가두로 나갔어요. 서울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가두집회를 하는 형태였죠. 집회를 시작하면 바로 체포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못하고 짧게 끝났어요. 85년도부터는 노학연대가 조금 더 넓혀졌어요. 대표적인 게 '청계피복 합법성 쟁취대회'예요. 그 전에는 가두시위를 하더라도 학생 중심이었는데 그게 좀 더 확장된 거죠. 그건 학생운동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

신민당이 개헌투쟁을 하는 데 5월 3일로 잡혀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우리도 결합해서 같이 싸우자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슨 특별한 결정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모두들 생각한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인노련에 소속됐거나 안 돼 있거나, 혹은 공개조직에 있거나 비공개조직에 있거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난 봐요. '그걸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건 대체적으로 합의가 돼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기는데 이 작업은 실행력을 갖고 있는 인노련에서 맡은 거죠. 유인물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싸움은 어떻게 하고 실제로 가두 투쟁은 어떻게 하고 기본적인 텍을 짜고 하는 거죠. ...**(중략)**... 저는 5·3이 갖는 특별한 의미 중 하나가 운동권이 분열하는 시발점이라고 봐요. 그날 썼던 인노련 유인물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노련 주장은 정말 소박해요. 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맨날 가두투쟁하고 경찰이 페퍼포그 쓰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골목을 막으려면 옆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를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화염병을 몇 개 던지고 맨 이런 거만 했죠. 전투부대 비슷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치위원들이 없었어요.

(다)

주로 직선제 개헌 쟁취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날 별도로 민통련이 다른 구호를 가져가자는 논의는 없었어요. 다만 시민회관이 우리의 통제권으로 들어오면 방송을 부르자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민통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를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신민당 현판집회인데 경찰이 민통련 집회를 원천봉쇄를 하겠느냐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느라 다른 쪽에서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시위와 돌 던지는 장면을 본 정도였습니다. 민통련 집회는 해가 아직 지기 전이었으니까 5시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전경차가 한 대 불탔던 것 같은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통련 집회는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소를 약간 이동하는 정도였지 격렬한 시위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 민통련은 현수막, 플래카드, 피켓 등 기본적인 시위 물품만 준비했고 화염병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위물품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습니. ...**(중략)**... 제 생각에 5·3대회 참가는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처음부터 막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폭력집회로 몰고 가서 운동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스프레이로 벽이나 전경버스에 구호를 쓴 것은 많이 봤습니. 유인물은 길바닥에 많이 뿌려졌어요.

※ (가), (나), (다) 증언에서 잘 알지 못하는 단어를 적고 뜻이나 개념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 (가) 증언에서 인천 5·3 항쟁 당시에 등장했던 구호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 (나) 증언에서 인천 5·3 항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장을 찾아 적어봅시다.

※ (다) 증언에서 인천 5·3 항쟁 당시의 상황이 자유로웠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어봅시다.

※ (가), (나), (다) 증언을 통해 사람들이 인천 5·3 항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 문헌 자료,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인천 5·3 항쟁의 전개 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합니다.

조사 자료1 출처 -

조사 자료2 출처

조사 자료3 출처 -

※ 제시된 (가), (나), (다) 증언과 우리 모둠이 찾은 정보를 활용하여 인천 5·3 항쟁의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여 정리합니다.



\* 다음은 인천 탐방길 중 ‘민주로드’ 중 하나입니다.



※ 제시된 코스 중에서 인천 5·3 항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장소를 찾아 봅시다.

※ 제시된 코스 외에 ‘인천의 민주주의’를 소재로 하는 탐방 코스를 검색하여 표에 정리합니다.

인천 내 지역 선정하여 ○ 하기	코스
<div> <div> <div>동구 / 중구 / 남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div> <div>서구 / 계양구 / 강화군 / 옹진군</div> </div> </div>	

\* 인천 5·3 항쟁, 기억의 길을 아래의 방법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 기억의 길의 구체적인 이름을 정합니다.
- 기억의 길에 들어갈 장소를 정해봅시다.
- 장소와 관련하여 인천 5·3 항쟁을 기억할 수 있는 요소(방법)를 토의합니다.
 

(내용 구성)

  - 인천 5·3 항쟁과 관련하여 구술 자료의 내용을 인용
  - 인천 5·3 항쟁의 전개 과정 중에서 장소와 관련하여 소개할 내용을 넣음

(방법 - 예시)

  - 인천 5·3 항쟁을 소개하는 표지판을 제작한다.
  -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인천 5·3 항쟁에 대한 기억의 길을 제작한다.
- 인천 5·3 항쟁을 기억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 탐방 코스의 이름을 정합니다.
- PPT의 형태로 인천 5·3항쟁, 기억의 길을 소개합니다.

※ 구성 내용

\* 모둠별로 제작한 ‘인천 5·3 항쟁, 기억의 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억의 길은 ( )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유는 \_\_\_\_\_ 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_\_\_\_\_ 과 같은 이유로  
 ( 우리가 만드는 기억의 길 제목 )을 만들어줄 것을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우리가 만든 기억의 길 코스와 이에 담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둠별로 제작한 PPT 내용을 아래에 삽입한다.)

※ 구성 내용

모둠에서는 어떻게 기억의 길을 구성하였는가?	
발표를 듣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궁금한 점	
발표에 대한 평가	☆☆☆☆☆
모둠에서는 어떻게 기억의 길을 구성하였는가?	
발표를 듣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궁금한 점	
발표에 대한 평가	☆☆☆☆☆
모둠에서는 어떻게 기억의 길을 구성하였는가?	
발표를 듣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궁금한 점	
발표에 대한 평가	☆☆☆☆☆
모둠에서는 어떻게 기억의 길을 구성하였는가?	
발표를 듣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궁금한 점	
발표에 대한 평가	☆☆☆☆☆



## 나.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인천 5·3 항쟁 소개문

1986년 5월 3일 인천남구 주안사거리 일대에서 80년 5월 광주이후 최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검찰은 이날의 시위를 좌경용공 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기도로 단정하고 형법 115조 소요죄를 적용하여 129명을 구속하고 60여명을 지명 수배하였다. 그러나 이날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80년 5월 전두환 일당에게 빼앗긴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민주화 시위이며, 폭력은 경찰이 먼저 행사하여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날의 시위 이후 전두환 군사정권은 소위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87년 6월 29일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할 때까지 민주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이날의 시위를 인천 5·3민주항쟁이라고 부른다.

1986년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겨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 노동자, 농민, 서민대중은 군사정권과 악덕자본가의 수탈 속에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건 신민당이 승리하면서 정국은 직선제개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신민당의 개헌추진지부 현판식대회를 계기로 전국각지에서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1986년 인천에서는 84년 11월 인천지역 학생운동 출신자들 중심으로 건설한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이하 인사연)과 인천의 노동자들이 건설한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하 인노련)이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86년 5월 3일 신민당의 개헌추진인천지부 현판식대회는 수도권집회라는 점, 인천이 대규모공업지대라는 점에서 온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5월 3일 주안시민회관 앞-12시가 조금 지났을 때 시민회관 건너편 주안1동 성당에서 나온 인사연과 민통련(민주통일민중연합)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와 이미 시민회관 앞 사거리에서 전두환 타도를 외치며 투쟁한 인노련 및 학생시위대는 시민회관 앞 사거리를 점거한 채 신민당의 행사와는 별도로 집회를 개최하며 직선제와 노동3권 보장 및 민중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시민회관 앞 사거리는 노동자, 학생, 시민들로 가득 찼다. 대회 개최 예정시각인 2시가 채 되기도 전에 이미 그 곳은 시위대와 최루탄연기로 가득 차 신민당의 현판식대회는 무산되었다. 탄압-전두환 군사정권은 국민의 민주화열기에 밀린 정국을 신민당의 인천 5·3민주항쟁을 계기로 반전시키고자, 좌경폭력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한 계산된 음모로, 일부 시위대의 반미 주장 등을 문제 삼아 인천 5·3민주항쟁을 좌경용공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기도로 규정했다. 이어 대대적인 검거선포로 구속, 수배, 고문 등 민주화운동 단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들었다. 군부독재정권의 무리한 탄압은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이어져 87년 6월항쟁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었다.

6월 항쟁-군사쿠데타로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일당으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민주세력의 투쟁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모진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87년 6월 29일 노태우의 “국민의 대통령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일겠다.”는 공식선언을 하게 하였다.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반환된 것이다. 인천 5·3민주항쟁은 이런 6월항쟁의 도화선이요 시발점이었다.

## 마. 참고 자료

### 1) 문헌

- 서중석,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8, 오월의 봄(2019)
- 인천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사』, 선인(2019)
- 김영곤, 「5·3 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인천학연구』 6,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2007)
- 이준한,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인천학연구』 2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2014)
- 이재성, 「1986년 개헌운동과 '5·3인천민주항쟁」, 『기억과 전망』 4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21)
- 제30주년 인천 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인천 5·3민주항쟁 증언록: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2016)

### 2) 인터넷 자료

-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인천 5·3항쟁 소개 (<https://idph.kr/demo/demo.php>)
- 인천 5·3민주항쟁은 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는가(2021.4.19. 인천투데이)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05>)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photo-archives/view/00756257>)
- '1987년 6·10 항쟁 도화선' 인천 5·3 민주 항쟁(2024.5.2. 경인일보) (<https://www.kyeongin.com/article/1690092>)
- 인천민주항쟁의 발자취를 찾아가다(2023.5.31. 인천in)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33>)



## 가. 수업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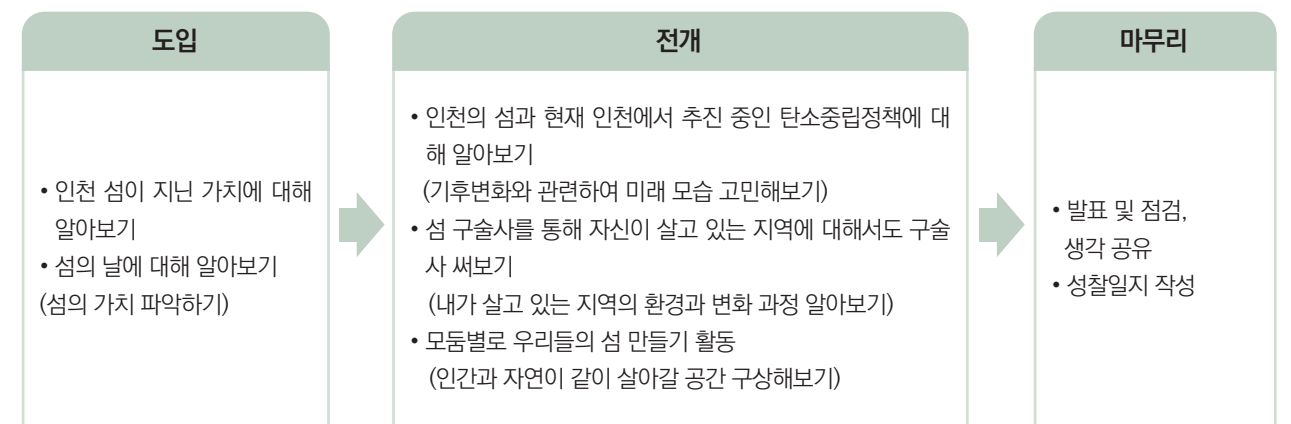
## 1) 수업 개요

수업 주제		섬, 사람과 미래를 잇다		총 차시	5차시
교과		한국사, 통합사회			
성취기준		[10한사2-02-04]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하고, 그것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친 영향을 인식한다. [10통사1-01-02]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탐구에 적용한다. [10통사1-05-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10통사1-05-02]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10통사1-05-03]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례로 공간 변화가 초래한 양상 및 문제점을 탐구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한다.			
교수학습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교수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토리텔링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젝트 학습 <input type="checkbox"/> 토의·토론 <input type="checkbox"/> 스마트 학습 <input type="checkbox"/> 협력 학습 <input type="checkbox"/> 거꾸로 학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학습			
학습자 역량	인천교육 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type="checkbox"/> 협력역량			
	교과 역량	<input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수업 준비	교사	스마트 기기(태블릿 PC 등), 학습지(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교육과정구성질문(본질적 질문, 프로젝트 질문, 내용 질문)			
	학생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이어폰 준비. 포트폴리오 제작, 스마트 도구 사용 방법 숙지			
	수업환경	1.교사 : 1인 1디바이스, 학생 : 개인별 1디바이스, 활동지 병행 2. 학교 무선인터넷 제공 및 유/무선 미러링 가능: 교사의 스마트 패드와 대형 모니터 연결			
주요 산출물		개인별 활동 보고서, 모둠별 프로젝트 작품			
평가 방법		개인활동 - 보고서 모둠활동 - 프로젝트 산출물, 발표			

## 2) 수업 의도

인천은 18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한국과 중국 간, 남측과 북측 간 해양 경계의 기준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인천의 섬에 대해서, 그리고 섬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통해 섬이 지닌 무한한 가치들과 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고, 우리들의 섬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섬마을 사람들의 구슬사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공간)에 대해서 구슬사를 써보는 경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3) 수업 흐름



## 나. 수업의 실제

단계	차시	수업 예상 흐름	유의점	교수학습자료
도입	1	[들어가기] ▶ 인천의 섬에 대해서 영상과 섬 포털 자료를 통해 알아보기 ▶ '섬의 날'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해 보기		개별활동지 1
실행	주제 선정	[모둠활동] ▶ 인천 섬이 가지는 가치- 인천의 섬이 경계선으로서 가지는 의미와 그 안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알아보기 ▶ 인천 섬이 지닌 가치 - 현재 큰 국제적 문제인 기후 위기에 맞서 바다와 섬의 역할 증대- 탄소중립정책 알아보기(미래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보기)  [개별활동] 구술사 활동(섬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 섬의 모습과 현재 모습 비교해보기) ▶ 나만의 구술사 작성하기 - 섬 주민의 구술사를 읽고 자신의 구술사를 작성해보기 ▶ 내 기억과 실제 모습이 맞는지 검증의 시간 가져보기(가족과 기억 맞춰보기- 기억은 주관성을 지님)		모둠활동지1 개별활동지2
	자료 수집 및 분석	[모둠활동] ▶ 모둠별로 우리들의 섬 만들기 활동 1단계: 섬 이름 짓기 2단계: 섬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장점 찾기 3단계: 우리만의 섬 구상하기(그림으로 표현) 4단계: 우리 섬에서 친환경적인 요소 찾기		모둠활동지2
	결과물 개발 및 검토	- B4 종이에 우리가 구상하는 섬의 모습들을 표현해보기 - 준비물: 사인펜 및 색연필		
프로젝트 결과 발표 또는 정리		▶ 결과물 발표 - 우리가 구상하는 섬의 모습에 대해 발표 - 친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발표		
성찰				성찰일지 1

##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인천의 섬, 알아보기

개별 활동지1

학년

반

번 이름

### <들어가기>

본인이 알고 있는 인천의 섬들을 한번 써볼까요? (3개 이상)

예시) 백령도, 연평도, 제주도, 마라도, 독도 등

### 2. 아래 인천 섬 들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그 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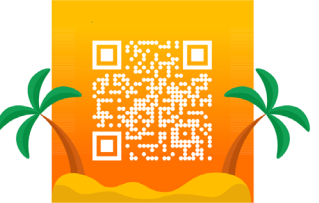
(영상 시청 뒤 인천 섬 포털 접속(<https://isum.incheon.go.kr>) 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추가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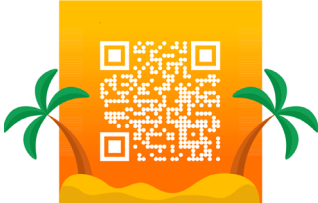
승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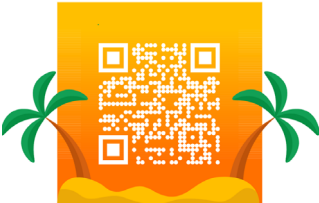
무의도



백령도, 대청도



자월도



석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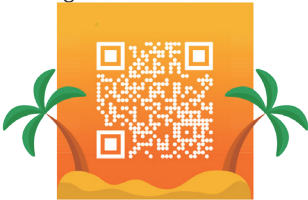
용유도

선택한 섬의 이름	
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3. 인천 섬의 지도를 보고, 인천 섬의 각 권역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인천 섬 포털 사이트  
<https://isum.incheon.go.kr>



- 강화도 권역
- 북도 권역
- 연평도 권역
- 백령-대청도 권역
- 덕적도 권역
- 자월도 권역
- 영흥도 권역
- 중구-서구 권역

4.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세계 10대 섬 보유국이라고 합니다. 그 중 464개는 사람이 사는 섬, 2,918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총 3,382개의 섬을 가진 ‘섬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나라의 섬을 알리기 위해서 섬의 날을 제정한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날짜	
이유	



▶ 그런데 이미 섬의 날이 있습니다. 무한대를 상징하는 8월 8일. 섬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수학기호 중 무한대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무한대 기호를 세우면 숫자 ‘8과’ 비슷해 섬의 날을 8월 8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 자료 줄 때는 내용 삭제, 말로 설명해주시기)

1. 다음은 인천의 섬과 관련된 뉴스 자료들입니다.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인천의 섬은 168개가 아니라 185개입니다.

인천의 섬은 몇 개일까.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옹진군은 인천의 섬을 168개로 소개한다. 그러나 인천 섬은 168개 아니라 185개이다. 이중 유인도가 32개이고 무인도가 153개이다. 법적으로 무인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 자연 지형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섬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인천 섬은 168개가 아니라 섬 발전 촉진법에서 규정한 유인도 32개에 무인도 153개를 더한 185개이다.

무인도는 영토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무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옹진군 등이 인천 섬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섬은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최전방 기준이다. 영해는 통상기선(간조 때 드러나 육지 해안선, 주로 동해에 적용)이나 직선기선(섬의 중간을 연결한 선, 주로 서해와 남해에 적용)으로부터 측정해 그 바깥쪽 12해리(약 22km)까지 이르는 수역을 말한다. 특히, 서해의 경우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은 모두 섬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섬이 정말 중요하다. 인천 섬은 한국과 중국 간, 남측과 북측 간 해양 경계의 기준이다. 현재 대한민국 서해 영해 직선기선은 인천 덕적군도 소령도에서 끝나는데 소령도는 무인도이다. 나아가 이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에서 200해리까지 해역을 그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한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황해에서 중복되는데, 이 경우 가운데 선을 그어 경계선으로 삼는다.

정부가 해양항만분야를 지자체에 이양하겠다고 하면서 지자체 간 해양 경계도 무척 중요해졌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3요소는 주민, 관할구역, 자치권이다. 인천 섬은 인천시와 강화군, 옹진군 등이 자신의 관할구역인 해양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경계 기준이 된다.

인천의 섬 185개 중 해양 경계의 기준이 되는 섬은 대부분 무인도이다. 옹진군 묵덕도, 선갑도, 하공경도, 석초도, 창서도, 향도, 광도, 남황산도 등 무인도들은 경기도, 충청남도과 인천시가 해양 경계를 확정하는 기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천 섬은 168개가 아니라 유인도 32개 무인도 153개를 포함해 총 185개이다. 유인도는 32개로 집계되고 무인도서 153개는 정부가 집계한 무인도서 집계 자료에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2019년 해양공간법을 제정한 이후 국내 법정 해양공간관리계획 지정 구역은 국내 광역단체 11개에 걸쳐 있고 총 9만2204㎢다. 이중 인천의 해양공간 관리 대상 면적은 1만1610㎢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인천시의 해양공간 대상은 토지 면적 대비 약 11배나 된다. 국내 연안 광역단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가 해양 항만 분야를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한 만큼 인천시와 옹진군은 자신들의 자치권 관할구역에 섬이 몇 개 있고,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과 배타적경제수역 범위, 해양경계와 해양자원 등에 정확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향후 진행될 해상풍력발전사업과 해양자원사용에 따른 환경보호와 세수 확보 등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2024. 7. 11

2. 북한과의 경계 지역이기에 중요하면서도 위험이 도사리는 섬들, 그럼에도 그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에 남은 사람들의 인터뷰

- 2010. 11. 26. MBC 뉴스서 발췌

나세웅 기자입니다. 여기 연평도는 포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육지로 떠나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20여 명의 주민들은 섬에 그대로 남아 텅 빈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70여년을 살아온 신유태 할아버지. 포격 당시 굴을 파고 있었던 그는 생활의 원천이자 삶의 모든 것이 있는 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무인도가 되다시피 한 허전한 마을에서 노인 홀로 있는 게 편치는 않지만 '토박이'의 고집마저 엿보입니다.

**신유태** : “개가 30마리 있고 그래서 못 나가고 있지. 아들도 여기 있고.

마음은 그렇지 지켜야 되겠다는... 조상 묘도 있고 옛날부터 그러니 나가질 않았고. 아직 그냥 여기 살고 있는 거야.”아들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섬을 지키는데 어찌 나가겠냐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기옥**: “아들이 있고 또 남동생이 있고 그런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겠어요...”

섬을 지키는 건 군인들만이 아니라는 자긍심도 있습니다.

**박철우**: “여기 군인만 있으면 북한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더 공격하기도 좋고. 민간인들 있을 때 쓰고 그러면 학살이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규탄 대상도 되는 거 아니에요.”어쩔 수 없이 떠나는 주민들도 섬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최수용: “다른 데 가서 일도 할 수 없고 여기서 있는 게 낫지 뭘 그래...”지금 연평도엔 아직 28명의 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활동하기 1> 우리 나라에서 인천 섬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1번 기사에서 찾아서 써보세요.

<활동하기 2> 북한과의 경계에 위치해 안전상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섬 주민들이 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를 2번 기사에서 찾아보자.

인천 섬의 또 다른 모습,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다.

지구 온난화 위기 대안 '주목'… 인천시 '블루카본' 거점도시로

■ 거대한 탄소흡수원 블루카본

블루카본은 얇은 바다 등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블루카본은 2009년 국제자연연맹(IUCN)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됐고, 2013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갈대나 칠면초 등 '염습지', 해양에서 자라는 나무인 '맹그로브', 해초인 '잘피'를 블루카본으로 공식 인정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미국의 한 과학저널에 소개된 '2021 글로벌 탄소수지보고서'(Global Carbon Budget)에 따르면 블루카본의 탄소흡수속도는 산림 등 그린카본보다 최대 50배 빠르고, 그린카본에 비해 적은 면적에서도 더욱 높은 흡수량을 보인다고 한다. 그린카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 흡수 역량이 떨어지는 반면, 블루카본은 수천년의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탄소 흡수 역량을 갖는다는 내용도 있다. 바다식물뿐만 아니라 바다 밑 토양 등에서도 탄소가 흡수된다. 육상에서는 토양 박테리아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반면 바닷속에서는 산소가 차단돼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못한 채 유기물과 함께 갯벌이나 바닷속 토양에 저장되는 것이다. 갯벌도 탄소를 흡수한다. 갯벌에 사는 플랑크톤의 일종인 미세조류가 사는데, 이 미세조류가 광합성을 하면서 탄소를 흡수한다.

■ 한국의 갯벌, 블루카본을 노린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갯벌'에 초점을 맞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은 약 1천300만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매년 26만t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승용차 11만대가 내뿜는 분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인천 앞바다 갯벌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됐다. 742㎢에 이르는 인천 앞바다 갯벌의 유기탄소 저장량은 492만3천여t, 연간 유기탄소 침적률은 3만4천여t으로 갯벌이 있는 전국 해역 중 가장 높았다. 유기탄소 저장량은 현재 저장돼있는 탄소량을, 연간 침적률은 매년 어느 정도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수치다. 인천 앞바다 갯벌에서 가장 많은 유기탄소 저장량과 침적률이 기록된 이유는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인천 앞바다에 큰 조수간만의 차가 있다는 점, 한강하구에서 유기물과 영양분이 유입된다는 점 등을 요인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권봉오 군산대 해양생물공학과 교수는 "인천의 갯벌은 어패류 등 1차 생산성이 뛰어날뿐더러 미세조류 광합성이 높아 탄소저장소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추후 갯벌이 IPCC로부터 국제적인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으면 인천 갯벌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인천시와 '블루카본 프로젝트'

인천시는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해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시작한 상태다. 이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잘피 숲 조성'과 '인천형 블루카본 개발'이다. 인천시는 블루카본이 언급되기 전인 2005년부터 잘피 복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잘피의 수질 정화 능력에 주목했던 것인데, 잘피를 이식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 이식한 잘피를 번식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잘피 관련 특허 6건을 비롯해 해초류 이식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황서도 해역에 잘피 200수를, 지난 18일에는 옹진군 어평도 해역에 잘피 400수를 각각 이식했다. 잘피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어느 정도 생존하는지를 분석한 후 어평도 해역 일대에 300여수를 추가로 더 이식할 계획도 갖고 있다. 황서도와 어평도는 모두 영흥화력발전소 인근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다. 인천시는 '인천형 블루카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인천시가 주목하는 해양 생물은 다름 아닌 '해조류'다. 미역 등 해조류가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이 있다는 건 여러 국제 연구를 통해 증명됐지만, 해조류 역시 블루카본으로 공식 인정되진 않은 상태다. 천시는 육상에서 연중 생산 가능한 해조류를 활용해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 양식장을 만들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해조류 양식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조류 외에도 고부가가치 수산생물을 함께 양식해 생산성을 높ی겠다는 계획도 있다. 인천시는 이 외에도 개불을 이용해 갯벌을 정화 시키는 생태환경복원사업, 염생식물인 칠면초 이식 사업 등을 추진하며 블루카본 거점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 경인일보, 유진주기자, 2022-07-21



### 인천시, 2024년 제3차 인천기후환경포럼 성료

인천시는 25일 개최된 3분기 인천기후환경포럼이 탄소중립, 기후환경 전문가 및 관련 부서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갯벌과 블루카본’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천의 주요 자원인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비식생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폭염, 산불,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악의 폭염으로 인천에서만 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열대야 일수도 46일로 관측(1904년) 이래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블루카본이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포럼은 김장균 인천대 교수의 ‘기후변화와 블루카본’으로 시작됐으며 구자근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자원연구팀장의 ‘갯벌 및 블루카본 관련 인천의 사업 및 동향’주제 발표와 포럼위원 및 담당 부서 관계자의 논의로 이어졌다.

국가 목표에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한 인천은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7개 부문, 154개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수립해 전략을 이행·점검하고 있다.

특히, 흡수원은 이미 배출된 탄소를 상쇄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의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인천 갯벌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천혜의 자원으로 탄소 흡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블루카본은 해안생태계와 해양생태계에 흡수되어 저장된 탄소를 가리킨다. 해안생태계는 바다 전체 면적의 2%에 불과 하지만 바다로 흡수되는 블루카본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탄소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갯벌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블루카본은 맹그로브, 잘피림, 염생습지와 같은 식생 갯벌이나 우리나라의 갯벌은 80% 이상이 비식생 갯벌이다. 비식생 갯벌 또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침적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됐다.

이순구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인천은 국가 목표에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부문별 전략을 수립해 추진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인천의 소중한 자원인 갯벌과 해안생태계 보전을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식생 갯벌 뿐 아니라 비식생 갯벌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강대웅·윤중국 기자, 2024-09-25

#### [참고] 인천의 갯벌

인천·강화갯벌은 인천광역시 영종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강화도 남단에서 남쪽으로 시화방조제까지의 갯벌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경기만 해역으로서 황해의 해수가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을 통하여 유출되는 담수에 의하여 희석되어지는 하구환경이며, 갯벌의 발달 형태 또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갯벌은 838.5㎢로 남한 갯벌의 35%를 차지하며 한강하구와 인접하지 않은 해안이나 내만에도 갯벌들이 분포한다. 최근 들어 갯벌의 경제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갯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1.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해서 찾아서 써보세요.

배경	
목적	
추진과제	

### 2. 아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 탄소 제로의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

먼바다에서 불어오는 하늬바람이  
 커다란 프로펠러를 경쾌하게 돌린다.  
 눈부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태양열 모듈은  
 은빛으로 빛나는 푸른 바다와 함께  
 섬 없이 청정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인천의 작은 섬 백아도이지만  
 탄소제로의 꿈을 향한 크고 작은 착한 마음들이 모여  
 인류의 작은 꿈 하나를 만들어냈다.  
 무한한 자연의 힘을  
 친환경으로 바꾸어내는  
 아름다운 도전이었다.

「섬, 숨이 되다」 본문 중에서-

**<활동>** 기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리고 아름다운 섬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위 ‘백아도’라는 섬 역시 태양광 시설과 풍력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인천의 섬 하나를 선택해서 섬마을 사람들이나 정부에서 섬의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 섬을 지키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공간의 변화)

#### 1. 다음 구술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 28년간 해온 면 살림 구술자 나수영의 삶

구술자 나수영은 1929년 용유도 덕교 7통에서 태어났다. 용유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천으로 가서 유학생활동을 하다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국전쟁 때는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부상으로 제대하고 그 후로 면서기 부터 시작하여 28년간 고향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 면장 재직 당시 새마을 사업으로 용유의 도로와 선착장 보수 작업을 주도했으며 부녀자들로 구성된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공무원 퇴직 후에도 덕교 어촌계장과 노인 회장직을 맡으며 마을을 위해 봉사해왔으며 용유면 3·1독립만세 기념공적비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

#### 용이 놀던 섬, 용유도

여기를 옛날부터 용유도라고 불렀던 거는 다들 알 거예요. 영종은 자연도였고 여기는 용유도였거든요. 영종은 제비가 많이 날아다녀서 제비 연(燕)자를 써서 자연도였고 여기는 용이 노는 데라고 해서 용유도라고 했잖아요. 놀 유(遊)자에 용 용(龍)자를 써서 용유도라고 했어요. 옛날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은 것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맞아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영종도는 제비가 높게 날고 여기는 용이 놀다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용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항이 생겨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니까 그게 참 맞아 들어간거죠, 옛날 사람들이 뭐 알고 한 것 아니지만 맞아 들어간거죠. 인천공항이 세계 일등 공항이잖아요.

용유에는 유인도가 네 개예요. 용유도, 대무의도, 소무의도, 팔미도만 유인도고 나머지는 전부 무인도예요. 실미도, 잠진도 이런 데는 다 무인도예요. 잠진도가 누에 잠(蠶)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잠포(巨蠶浦)는 클 거(巨)자를 쓰니까 큰 누에가 있었던 데라는 거잖아요. 재미가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진 거죠.

여기 덕교 칠통을 보면 가운데가 볼록하게 되어 있고 그 길을 논길로 돌아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지름길로 가게 되면 가운데 조그만 고개를 가로질러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볼록한 언덕 부분이 손을 이렇게 오므려서 거꾸로 엮은 것 같이 말 안장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말 마(마)자에 안장 안(안)자를 써서 '마시안'이라고 하는거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다로 나가는 냇가 길에 교량이 있어요, 구 교량 이름을 내가 지었거든요. 거기가 조금 때는 물이 안 들어오는데 사리 때는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길을 막아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용마교라고 교량을 지었어요, 또 옛날에 마시안 너머에 관청마을이라는 남북동이 있는데요. 거기가 학교, 파출소, 면사무소 그런 게 많았더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관청이 많다고 해서 관청마을이라고 하게 된 거죠. 우리네 사는 데는 이렇게 땅이 좁은데 학교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니 뭐니 웬만한 거는 다 학교에서 했어요.

#### 영종 농사의 산 증인 구술자 김병천의 삶

구술자 김병천은 1937년 12월 인천 중구 운서리 1702번지에서 출생했다. 1961년 군대 제대 후 부모님이 대를 이어 해오시던 농사일에 함께 종사했다. 손으로 하던 농사에서 기계화까지 농사 기술의 변천을 몸소 겪었으며 염전에서 일한 바 있다. 지역의 당제와 상여제, 영종 간첩 사건 등 마을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목격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히 구술했다. 또한 지역의 산림조합을 맡아 지역 발전에도 공헌했으며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군대에서 배웠던 기계 일을 바탕으로 공항공사 여객청사 건설에 참여했다.

#### 마을의 어업과 염전

여기가 사면이 바다니까 농사도 했지만, 바다 위주로도 일을 많이 했어요. 바다는 한번 조금이나 사리 때 나가면 낙지도 잡고 해서 지금 가격으로 한 십만원 이상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바다에 갔다 와서 또 농사를 짓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부업으로 염전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하는 계절 영농이에요. 농사 성수기가 끝나면 좀 한가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주로 바다를 가는 거예요. 논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아마 영종 사람들의 30% 정도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 때 당시는 뭐 먹을거라고는 반찬같은 게 김치밖에 더 있어요. 지금은 고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때는 밥상을 보면 주로 김치, 야채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먹으면서 생활을 했어도 그때는 나이로는 청년이 아니예요. 젊었으니까 낮에는 농사일 하고 저녁에는 물 때를 맞춰서 간조가 될 때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가면 뭐 이것저것 반찬거리를 많이 잡아오죠. 하다 못해 송어, 꽃게, 망둥이에 이것저것 많이 잡아 왔었어요. 잡아오면 그걸 가지고 반찬도 하고 했죠. 그 때는 배도 없었고 사들망이 있었어요. 왜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 태국이나 베트남서 이렇게 삼방이로 된 거에 그물을 쳐서 물에 대면 거기 들어온 고기를 잡는 거랑 같은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면 시장까지는 안가고 동네에서 팔았어요. 당시 시장은 거리상으로 머니까 갖고 갈 수도 없고 많지도 않았으니까. 하절기나 춥지 않을 적에는 물고기나 바다에서 나오면 금세 죽잖아요. 죽으면 이게 상하니까 상품 값어치가 없어지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운서동이나 구읍 뱃 터 사람들은 주로 바다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생선같은 걸 주식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운서리 쪽에서도 생선 같은 걸 잡아다 팔기도 했었는데 우리 부락에 오면 하나도 못 파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생선을 가지고 와서 팔러 다니면 운서동 쪽 사람들은 잘 사 먹는데 우리 쪽에 오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어를 이고 왔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나가는 거죠. 여기는 주식이 야채 위주의 식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채만 생각하죠. 주로 고기 같은거 잡고 살았으면 현재 운서동 사람들이예요.

#### 마을에 있던 염전들

우리 부락에는 황해도랑 평안도 일대에서 피란 나온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부락이 4개 반인데 2개 반이 피란민 동네예요. 거기는 순전히 피란민만 이주해 놓은 거예요. 국유지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터 댄아서 처음에 토담집을 지었더랬어요. 그러다 휴전되고 미국 천주교를 통해서 밀가루, 강냉이 가루, 우윳가루 같은 구호품이 많이 췌어요. 그 때는 정착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천주교도에 구호품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로 염전을 조성하는 조합을 구성했어요.

만약에 사람이 백 명이면 백 명이 조합을 구성해서 바다를 매립하는 거죠. 바다를 한쪽을 이렇게 막고 또 반대쪽도 막고, 하루 일당으로 강냉이가루하고 우윳가루 같은 걸 품삯으로 주는 거예요. 먹이라고, 그렇게 해서 완공을 하면 매립한 땅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인천공항과 하늘도시 조성으로 염전이 다 없어졌죠.

삼목도 뒤에 정착지 염전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기내식 식품을 조달하는 공장 자리가 염전 자리예요. 정착민들이 생활터전 잡으라고 정부에서 해 준거죠. 피란민들도 있었고 본토 사람들도 있고 노동력은 있는데 할 거 없는 사람들이 제방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염전이 보통 일정씩 약 3천평을 차지했었어요. 그것도 조합 단위로 묶어서 한 구역이 삼정, 사정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 이천평이죠. 그것을 이제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몫으로 쪼개서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해서 자기네가 파는 거예요. 그게 수입이 됐어요. 그게 최초의 염전이었고 삼목도 인천공항 물류단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일부 염전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돈 많은 개인이 조성한 거죠. 그게 이제 육십년대예요. 아마 1967년이나 1968년 그 때 매립해가지고 삼목도 앞에 염전을 만들었어요.

### 1>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명이나 마을 이름들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조사해서 써보세요.

예시> 용유도: 용이 노는 곳 / 마시안 : 말안장 모양

### 2>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섬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써보세요.

예시> 농사, 고기잡이, 염전, 낚지잡이, 공항 건설 후 공항에서 일하기

### 3> 예전에 농사나, 고기잡이, 염전을 하던 곳들이 현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지 위 내용을 토대로 써보세요.

예시> 공항에서 일하기, 물류창고서 일하기, 관광업 등

### <활동하기> 나만의 구술사 쓰기(나 때는 말이야~) (공간의 변화)

자신이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보고,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릴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같이 첨부해보세요.

#### ◇ 예시> 선생님의 구술사

제가 살던 곳은 인천 미추홀구의 학익동이라는 곳이에요. 학익?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전법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의미예요. 학의 날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학익동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예전 모습과 비슷하면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변화되었어요.

어릴 때 제가 최초로 기억하는 모습은 학익동 개천가에 앉아서 부모님과 놀던 모습이에요. 지금은 개천이 전부 메꾸어져서 찾아볼 수 없지만요. 그리고 개천 주변에는 동일레나온과 한국파이트 등 공장이 늘어서 있었는데 지금은 50층 높이의 아파트 등이 들어서서 마찬가지로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꼭 노란색 모자를 써야지만 교문을 통과했어요. 그러다보니 모자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항상 커다란 사인펜으로 이름을 써놓고는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던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는 학교 체육 대회 자체가 하나의 마을 행사였던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서 돗자리 깔고 맛있는 것도 먹고, 체육대회를 지켜보면서 즐기곤 했지요. 지금은 예전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전에 제가 다니던 학익 국민 학교를 찾아가봤는데 예전에는 운동장이 엄청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새삼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많이 자란 탓이겠죠.

그리고 어릴 때는 항상 여름이면 인근에 있는 송도유원지에 해수욕을 하러 갔어요. 지금의 옥련동(구송도)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1939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군의 휴양지로 사용되다가, 일제 패망 후 폐쇄되었다가 1963년부터 재개장했다고 해요. 당시 인천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휴양지였지요. 원래는 바닷가랑 접해있어서 바닷물로 수영을 했으나, 나중에는 송도 신도시 매립으로 수로를 통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예 폐장이 되었지요.



학익 개천(1980년대)



한국파이프(의류공장)



학익 국민 학교 체육대회



송도 유원지

나만의 구술사를 작성해보세요.(예전 어릴 때 살았던 곳에 대해서 작성하기)

<관련 사진이나 지도>

※ 자신이 쓴 구술사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혹시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무슨 내용인지 써보세요.

1. 섬 사람들의 구술사를 통해 드러나는 생활 모습과 탄소 중립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섬을 만들어보세요.

〈순서〉 1단계: 우리 섬 이름 만들기 / 우리 섬만의 키워드 생각해보기  
2단계: 우리 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 우리 섬의 자랑거리  
3단계: 우리 섬 모습 구상해 보기(그림으로 표현해보요~)  
4단계: 우리 섬에서 친환경적인 요소 찾아보기

〈준비물〉 사인펜 및 색연필 준비

◆ 1단계: 우리 섬 이름 만들기

섬 이름	
이유 ?	

◆ 2단계: 우리 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빈 네모에 섬 이름을 쓰고,  
그림이나 글을 사용해서  
1, 2, 3, 4번을 채워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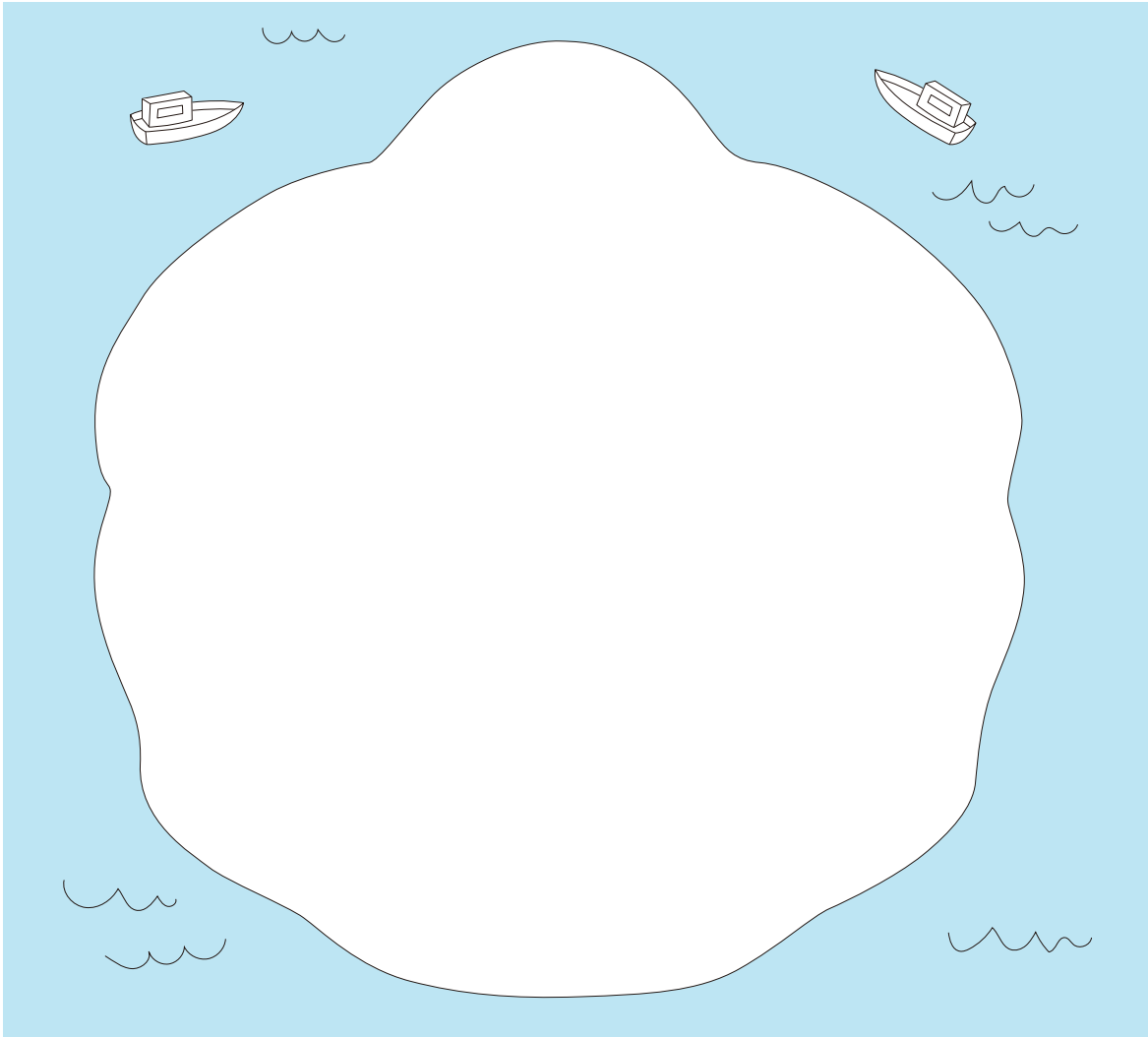


◆ 3단계 섬의 빈 공간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채워보자. (학생들에게 B4용지 제공)

우리 섬의 키워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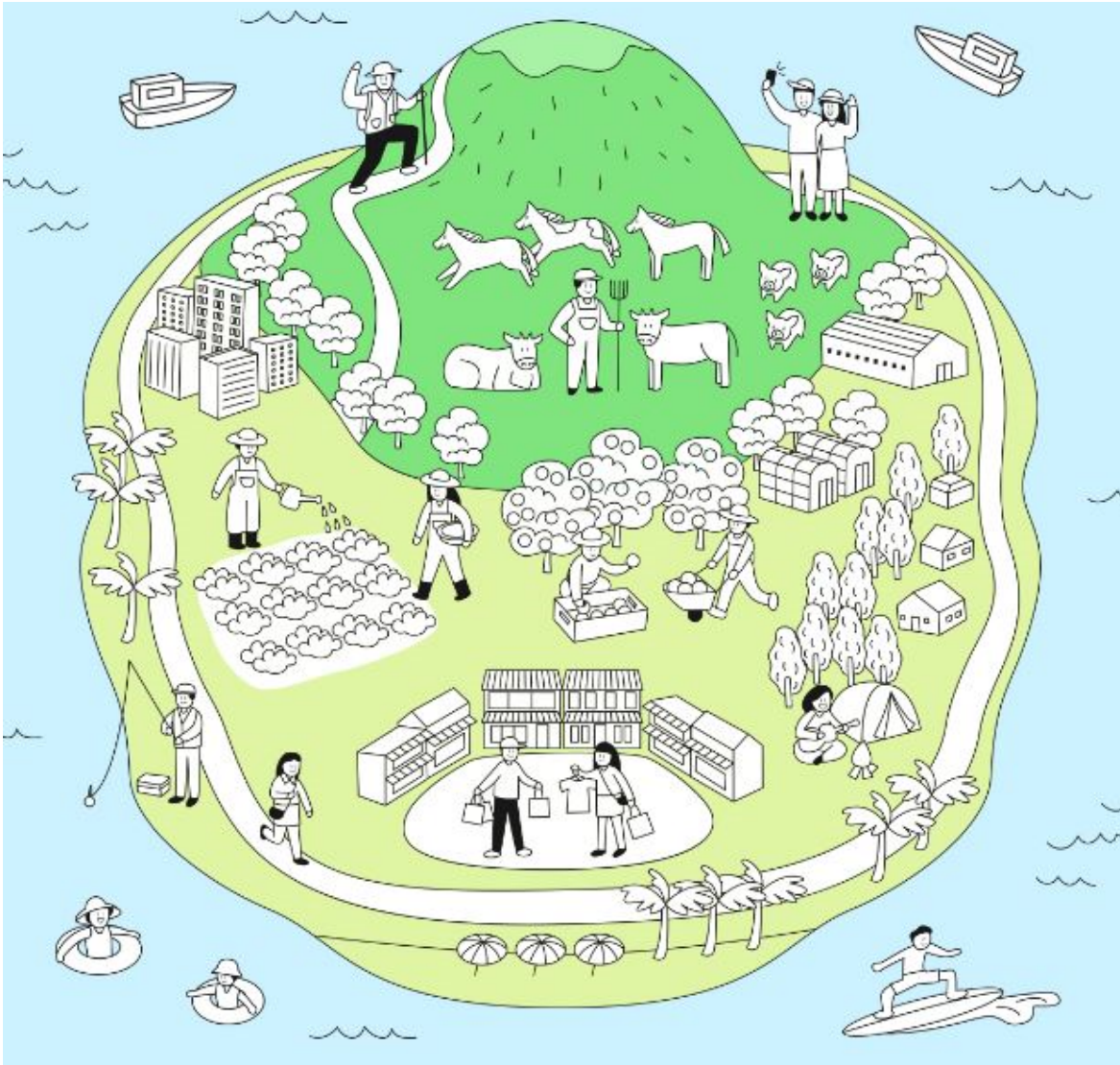
예시> 레트로도시, 환경도시, 최첨단도시

섬에 꼭 필요한 건축물	예시> 다리, 도로, 풍력발전소, 선착장
이관광을 위한 필요한 것들유 ?	예시> 돌레길 조성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	예시> 선박, 시장
섬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것들	예시> 재활용 안되는 물품들, 탄소배출 심한 산업시설물
기타	



◆ 4단계 : 우리 섬에서 친환경 요소 찾아보기

<예시> 환경을 지키는 섬 - 탄소배출 제로 만들기(이동수단은? 산업은? 식재료는?등 고려)



라. 교사 참고 자료

※ 프로젝트 모둠 활동지

모둠별 프로젝트		
모둠 이름		
모둠 장		
모둠원 역할	이름: 역할:	이름: 역할:
	이름: 역할:	이름: 역할:
우리 섬의 키워드		
섬에 꼭 필요한 건축물		
관광을 위해 필요한 것들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		
섬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것들		
기타		
조원평가 (조원들 서로 칭찬해줄 질문 작성)	예시> 아이디어를 많이 낸 친구?	
	예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준 친구?	
	예시> 가장 분석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 친구?	
	예시> 그림 실력이 뛰어나서 결과물 완성에 큰 도움을 준 친구?	

[ 성찰일지 ]

모둠		학년	반	번	이름:
프로젝트명 (혹은 수업 주제)					
탐구 질문 (혹은 핵심 질문)					
프로젝트 요약 (혹은 활동 요약)					
자기 자신에 대하여					
프로젝트(혹은 수업)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학습내용)					
프로젝트(혹은 수업)를 하는 동안 어떤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나요?	인천교육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type="checkbox"/> 협력역량			
	교과 역량	<input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가장 최선을 다한 프로젝트 활동(수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더 시간을 들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 (혹은 수업)에 참여한다면 무엇을 하기 원하나요?					
프로젝트(혹은 수업)에 대하여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젝트 (혹은 수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아쉬웠던 프로젝트 (혹은 수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 (혹은 수업)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마. 참고 자료

1) 문헌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바다와 섬, 인천에서의 삶」, (2012)
- 노형래, 「바다 그리고 섬을 품다」, 이너스(2012)
- 인천연구원, 「(인천시민 구술생애사) 섬을 지켜온 사람들: 용유도 편」, (2022)
- 인천연구원, 「(인천시민 구술생애사) 섬을 지켜온 사람들: 영종도 편」, (2022)
- 정연학, 「인천 섬 지역의 어업문화」, 인천학연구원(2016)
- 이재호, 「탄소 중립 골든 타임」, 석탑출판(2022)
- 윤지로, 「탄소로운 식탁」, 세종(2022)
- 권승문, 김세영,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 곰곰(2022)

2) 인터넷 자료

- 인천 섬포털 - <https://isum.incheon.go.kr>

2) 기사 자료

- 인천의 섬은 168개가 아니라 185개입니다.  
-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336>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 인천시, 2024년 제3차 인천기후환경포럼 성료  
- <https://www.ajunews.com/view/20240925151737509> (아주경제, 강대웅, 윤중국 기자)
- 지구 온난화 위기 대안 '주목'... 인천시 '블루카본' 거점도시로  
- <https://www.kyeongin.com/article/1601970> (경인일보, 유진주 기자)
-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에 남은 사람들의 인터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161562> (MBC BT, 나세웅 기자)

05

안녕, 나의 엄마들  
- 여성 구술(생애)사 쓰기

06

가. 수업 개관

1) 수업 개요

수업 주제		매우 사적인 역사 쓰기-여성 구술사 도서 제작	총 차시	8차시
교과		한국사		
성취기준		[10한사1-03-03] 개항 이후 사회·경제 변화를 파악하고, 서구 문물의 도입이 문화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10한사2-01-04] 일제의 식민 통치로 인한 사회 및 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의 양상을 파악한다. [10한사2-02-02]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국내외의 정세 변화와 연관하여 이해한다. [10한사2-02-04]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하고, 그것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친 영향을 인식한다. [10한사2-02-05]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문화 변동과 일상생활의 변화 사례를 조사한다.		
교수학습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교수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토리텔링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젝트 학습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의·토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마트 학습 <input type="checkbox"/> 협력 학습 <input type="checkbox"/> 거꾸로 학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학습		
학습자 역량	인천교육 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type="checkbox"/> 협력역량		
	교과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수업 준비	교사	수업 활동지, 노트북		
	학생	노트북 또는 태블릿		
	수업환경	1. 학생 : 1인 1디바이스, 교과서 병행 2. 학교 무선인터넷 제공 및 유/무선 미러링 가능		
주요 산출물		활동지 매우 사적인 역사책		
평가 방법		프로젝트 학습지, 프로젝트 산출물 갤러리 워크(전시), 동료평가		

## 2) 수업 의도

구술사란 과거의 기억을 말로 회상한 것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작업이다. 구술자의 입을 통해 쓰는 역사로 구술자 스스로가 역사 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실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한계로 구술자료의 객관성을 검증할 필요도 있지만 기록을 남기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 서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술사는 공식 기록이나 문헌 자료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한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기록하며 국가사나 민족사가 다루지 못하는 지역적 특수성과 특정 집단의 경험, 특히 소외 계층이나 주변적인 집단의 경험을 역사의 장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과거의 목소리를 현재에 되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 쓰기가 가능하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거시적 역사는 개인의 목소리를 잘 담지 못한다.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집중하면 시대의 구조와 배경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은 어떻게 거대한 역사와 만나는가? 개인의 구술과 시대적 맥락을 함께 조망하는 역사 글쓰기를 학생들과 하고 싶어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여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이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지도 모를 그녀들의 엄마와 할머니들의 경험을 되살려 역사로 기억하는 작업이 되었으면 한다. 역사의 물줄기와 함께 지나온 이름 없는 개인들의 역사를 만나보자.

## 3) 수업 흐름



## 나. 수업의 실제

단계	차시	수업 예상 흐름	유의점	교수학습자료
도입	1	구술사 - 우리가 배우는 역사 나누기 - 구술사의 특징 이해하기		[활동지1]
실행	주제 선정	1. 역사 속 여성들의 이야기 주제별 모둠 활동 - 일제하 여성 - 이민과 여성 - 전쟁과 여성 - 노동과 여성 - 민주화와 여성  2. 주제별 활동 내용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 주제소개 및 관련 자료, 링크 제공</li> <li>▶ 모둠별 주제 안배</li> <li>▶ 인물과 구술 내용 중 일부 선택 가능</li> </ul>	[활동지2] 교사참고자료1
	자료 수집 및 분석	매우 사적인 역사 쓰기 활동: 인터뷰 - 대상 선정 및 사전 조사 - 인터뷰 질문 만들기 - 인터뷰(개별) - 인터뷰 내용 정리 - 자료 조사 및 사실 검증	▶ 개별 인터뷰 안내	[활동지3] 교사참고자료 2,3,4
	결과물 개발 및 검토	매우사적인역사쓰기활동: 구술(생애)사 책 만들기 - 머리말 - 연표 - 본문: 소제목+내용 7개 이상 역사관련설명3개+구술관련이미지3개이상 - 맺음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 안내에 따라 스크랩북에 구술생애사 도서 제작</li> <li>▶ 구술의 역사적 확인 작업의 필요성 설명</li> </ul>	[활동지4]
프로젝트 결과 발표 또는 정리	8	구술사 도서 전시 및 갤러리 워크, 동료평가		[활동지5]
성찰	8	성찰일지 자기평가		[활동지6]





## 2-2) 구술 내용을 함께 요약하기

▶ **핵심어** : 6.26전쟁, 학도병, 피난, 중공군, 인민군, 압록강 북진

### ▶ 구술개요 :

- 춘천에서 전쟁의 시작 목격-비가 오는 일요일 인민군이 쌀이나 소를 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전쟁 폭탄이 떨어지고 시내가 불바다가 되어 남쪽으로 피난, 먹을 것도 없고 남의 집에 눕지도 못하고 겹쳐 앉아서 잠, 충주까지 피난갔다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투입되었다해서 집에 돌아감.
- 유엔군이 인천상륙, 서울이 수복되어 춘천도 수복, 학교에서 집합 군대에서 와 학생 뽑음 학도병 지원 정훈부에서 방송하고 포스터 붙이고 군대 따라가면 압록강까지 북진, 감개무량했으나 중공군 투입 인해전술로 후퇴,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겨우 돌아옴. 6사단 7연대 소속
- 바쁘게 살며 잊고 있었으나 학도병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후손들도 전쟁의 참혹함을 알았으면 함. 모두 한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자고 함.

▶ **관련역사** - 6.25 전개과정: 북의 남침 유엔군 참전 인천상륙작전 압록강 진출 중국 참전 인해전술 1.4후퇴 등/ 학교의 학도호국단과 여자학도병에 대해 조사

## 2-3) 구술자 연표 만들기

연도	1934	1950~	2010		
사건	춘천출생	학도병지원 정훈활동	전쟁유공자 훈장수여		

## 3) 구술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나 ‘지역적 특징’을 조사하여 2가지 이상 정리하고 나누기.

구술은 개인의 경험으로 기억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역사적 사실과 구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활동지3  
(4차시)

## 매우 사적인 역사 쓰기-인터뷰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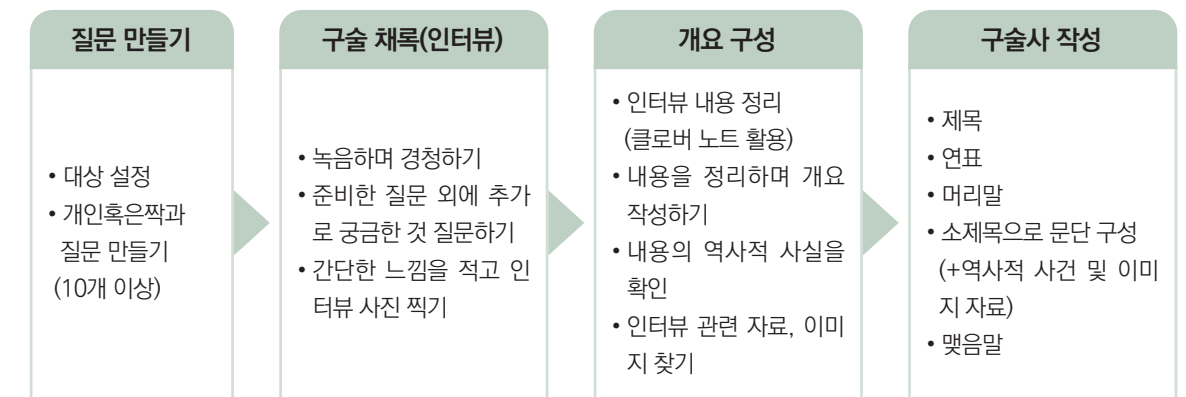
반

번 이름

## 3. 인터뷰

- 한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겪은 사건과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삶과 자신의 삶을 잇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인터뷰 대상의 삶 속에 들어가 고민하며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자. 나의 어머니, 할머니 등 주변 어른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가족의 기억을 공유해보자. 한 사람의 생애를 듣는 것으로 그 사람과 시대를 들여다보고 세상을 내다보는 일이다.

## 1) 구술사 프로젝트 과정



## 2) 질문 만들기

-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여 10개 이상의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어려우면 짝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 ▶ 인터뷰 대상:

### ▶ 인터뷰 질문:



3) 인터뷰 내용 정리 (클로버 노트 사용)

▶ 면담 장소 및 일시

▶ 핵심어

▶ 구술 상세 목록(7개 이상)

▶ 관련 역사와 이미지(각 3개 이상)



활동지4  
(6~7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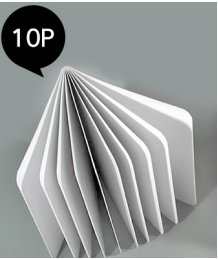
매우 사적인 역사 쓰기 - 구술(생애)사 책 만들기

학년 반 번 이름

4. 구술(생애)사 작성

1) 구술사 도서 작성 안내

페이지	포함 내용	예시
앞표지 1	<b>제목</b> (자유롭게 구성)	시집 잘못 간 죄가 내란죄? 공장노동자에서 지역활동가로 전쟁이 끝났어도 귀향하지 못한 월미도 원주민
2~16 +(17~19)	인물의 생애 관련 인터뷰 내용 <b>-소제목+내용</b> <b>내용</b> 은 소제목별(질문별) 1쪽 이상 소제목은 <b>7개 이상</b> 으로 구성  <b>+내용 관련 설명 또는 이미지 자료</b> 각 <b>3개 이상</b>	<b>머리말</b> 소제목 없이 내용, 인물 선택 이유와 내용 소개 등
		개인연표 / 역사연표 - <b>연표</b> 구성은 자유롭게
		<b>(소제목)</b> 김제의 꿈 많던 소녀 동일방직 입사부터 해고까지 뒤늦게 시작한 공부와 사회복지
		<b>(내용 설명)</b> 오빠는 독일에 광부로 가 계셨고... ⇒ 파독광부 설명 면사무소 직원이 통보해 이름을 바꿔... ⇒ 호적부 대조, 창씨개명 설명 등 1950년 인천여중 5학년 재학 중 의용대로 한국전쟁에 참전 ⇒ 학도의용군에 대해 설명
		<b>(사진 또는 그림)</b> 대학 교정 같았던 동일방직 ⇒ 동일방직 사진
뒤표지 20	제작자, 제작일	제작자: ○○○ 제작일: 2024. □□. △△



도서 제작 스크랩 북

- ▶ 크기: 가로16.5×세로16.5cm
- ▶ 장수: 표지 포함 10장(20쪽)
- ▶ 손글씨와 손그림 뿐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하여 오려 붙여도 됨
- ▶ 기본 포함 내용 외에 20페이지까지 더 많은 내용과 관련 자료 추가 가능
- ▶ 사진, 삽화 등 구성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넣어 완성도 높이기
- ▶ 기본 포함 내용 들어가면 20페이지까지 채우지 않아도 감점 없음

## 2) 구술사 작성

### ①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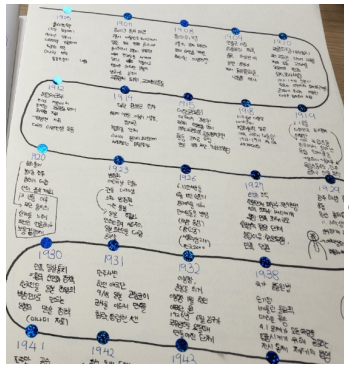
제목과 함께 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부분, 누구의 구술사인지 왜 구술사의 대상으로 정했는지 무엇이 궁금했으며 어떤 내용의 구술사인지 소개하는 부분

예시) 인천시민 구술생애사 『만석동 사람들』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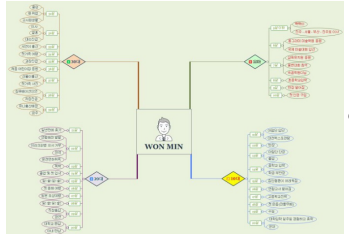
만석동은 개항 이후 해안매립이 진행되면서 공업지대로 성장한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자리 잡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만석동 사람들』에는 만석동 최초의 낚시 가게를 열었던 어머니를 이어 2대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정성자 씨, 제주도에서 남편을 따라 정착한 원광이부리 마을에서 60년간 거주하신 김명자 씨와 따님 권기분 씨, 한국전쟁 때 평안남도에서 피난 와서 만석동에서 선박 일을 하시면서 87년을 거주해 오신 김철관 씨, 운영하셨던 굴막 이야기와 함께 옆에서 크고 작은 동네 일상들을 구술해 주신 나형식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② 연표 작성

개인 연표와 구술된 시기에 해당하는 역사 연표를 작성, 각각 작성해도 합쳐도 가능, 형식 자유.



출처 <https://blog.naver.com/005491723075096793>



출처 <https://blog.naver.com/wmchang221814963686>

출처 인천시민 구술생애사 『괜찮아! 나는 이야기』

### ③ 문단 구성

소제목으로 문단을 구성, 소제목 달고 한 줄 띄고 내용 작성 소제목+내용은 7개 이상 구성, 1페이지 이상. 관련된 역사 설명이나 자료, 이미지 등은 추가로 페이지 구성하여 설명

예시) 인천시민 구술생애사 『만석동 사람들』 인용

#### 부두의 변화 - 동마당과 선상 파시

어렸을 적에는 부두 앞으로 바닷물에 떠밀려서 내려온 통나무들이 많았고 또 동마당 쪽으로도 목재가 많이 있었다. 옛날 연세 있으신 분들 집에는 아궁이에 나무로 불 때는 곳이 많았거든요. ....


예시) 민중구술 『열두 살에 동양방적으로 강제동원 된 양종희』 인용

#### 여자아이들은 구장 집으로 모여라

열두 살 되던 1943년 봄,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니 만으로 열 살 아니면 열한 살 때였다. 동네의 여자 아이들은 구장 집으로 모이라는 전갈이 왔다. ....

### ④ 맺음말(후기)

구술사를 작성한 후 자신의 생각 쓰기, 자신에게 구술사 내용의 의미, 구술생애사 작성한 후 알게 된 사실이나 달라진 점에 대해 서술




**활동지5**  
**(8차시)**

**결과물 전시 및 동료 평가 - 구술(생애)사 전시 및 갤러리 워크 -**

	학년	반	번호 이름
--	----	---	-------

구술(생애)사 인물			
구술생애사 도서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궁금한 점			
제작 도서에 대한 평가			☆☆☆☆☆
구술(생애)사 인물			
구술생애사 도서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궁금한 점			
제작 도서에 대한 평가			☆☆☆☆☆
구술(생애)사 인물			
구술생애사 도서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궁금한 점			
제작 도서에 대한 평가			☆☆☆☆☆
구술(생애)사 인물			
구술생애사 도서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궁금한 점			
제작 도서에 대한 평가			☆☆☆☆☆
구술(생애)사 인물			
구술생애사 도서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궁금한 점			
제작 도서에 대한 평가			☆☆☆☆☆

<div>  <div> <div>성찰 일지</div> <div>활동지6 (8차시)</div> </div> </div>			
	학년	반	번 이름

구술사 인물			
구술사 내용 요약			
자기 자신에 대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소개하고 싶은 우리 인천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인천교육 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type="checkbox"/> 협력역량	
	교과 역량	<input type="checkbox"/> 역사사실 이해 역량 <input type="checkbox"/> 역사자료 분석과 해석 역량 <input type="checkbox"/> 역사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량 <input type="checkbox"/> 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역량 <input type="checkbox"/> 정체성과 상호존중 역량	
프로젝트 수업에 대하여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아쉬웠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더 좋은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 라. 교사 참고 자료

### 1. 역사속 여성들의 이야기 자료

#### 1) 일제하 여성

- ▶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 조병창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  
- 지영례(1928.10.15. 출생, 동원지역 부평, 조병창 의무과 근무 1942.9~1945.8 동원)  
재학 중 '정신대' 동원을 피해 자퇴한 후 지원, 부평 거주, 조병창과 병원의 구조와 환자 실상  
구술  
<https://library.history.go.kr/library-services/search/all-collections?ALL=k%7Ca%7C%EC%A1%B0%EB%B3%91%EC%B0%BD> 원문보기 가능
- ▶ 「민중 구술 길에서 강제동원되어 동양방적에서 2년을 보낸 이인심」, 『작가들』79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8701764> 원문보기
- ▶ 「민중 구술 열두 살에 동양방적으로 강제동원된 양종희」, 『작가들』77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8409022> 원문보기

#### 2) 이민과 여성

- ▶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민의 역사, 하와이&멕시코 한인 이민사  
알쓸별집([https://www.youtube.com/watch?v=T0\\_3k6ERAwv](https://www.youtube.com/watch?v=T0_3k6ERAwv))
- ▶ 사진신부와 파친코 한국학 중앙연구원  
<https://www.youtube.com/watch?v=Pi0f-7ctBFQ&t=662s>)
-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구술테마컬렉션 경제외교-파독간호사 하영순, 김말자  
<https://mkoha.aks.ac.kr/oralRecord/OralRecordList.do>
- ▶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 ▶ 『할머니의 노래』, 바다출판사

#### 3) 전쟁과 여성

- ▶ 인천여성가족재단-아카이빙-인천여성생애 구술사-임인자, 강분희, 이진선, 유옥선, 한은미  
<https://www.youtube.com/watch?v=-TA7fdfPdLs>



- ▶ 전쟁기념관 오픈아카이브-소장자료-구술자료-정기숙(여자학도병)  
<https://archives.warmemo.or.kr:8443/pss/interview/pssInterviewList.do?MID=UM00017>
- ▶ 인천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6.25 전쟁 구술기록-조영옥  
<https://iharchive.ifac.or.kr/archives/item/view?pageNum=1&searchData=&categoryLargeGroupCode=0004&searchType=TITLE&rowCount=8&search=N&iidx=1184>
- ▶ 작가들91 민중구술시리즈-전쟁이 끝났어도, 귀향하지 못한 월미도 원주민 이야기:임인자(상,하)  
<https://webzinewriters.com/https://webzinewriters.com/%EA%B8%B0%EB%A1%9D%EB%AC%B8%ED%95%99/%EC%9D%B8%ED%84%B0%EB%B7%B0-%EB%AF%BC%EC%A4%91%EA%B5%AC%EC%88%A0/>

#### 4) 노동과 여성

- ▶ 인천여성가족재단-아카이빙-인천여성생애 구술사-안창순, 박명순, 정미자, 이인숙, 박옥이  
<https://www.youtube.com/watch?v=AAtUdrdxPz8>



- ▶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인천연구원-동일방직 최연봉, 공인숙, 김영순  
[https://hanzhong.ii.re.kr/storage/etc/2024/04/30/ETC\\_ATTACH\\_1714437685565.pdf](https://hanzhong.ii.re.kr/storage/etc/2024/04/30/ETC_ATTACH_1714437685565.pdf)
-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구술테마컬렉션 민주화와 종교-조화순(산업선교회, 동일방직), 김지선/ 정당정치-최순영(YH사건) <https://mkoha.aks.ac.kr/oralRecord/OralRecordList.do>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구술컬렉션-박인숙(6월항쟁, 노동운동), 최숙희/ 최순영, 권순갑(YH)/ 이충각(동일방직), 조화순, 김은임, 김지선/ 이미경, 남인순, 최영희, 홍미영/ 오성숙(민청학련 노동운동)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main>

#### 5) 민주화와 여성

- ▶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자료마당-동영상자료-내가 살아온 이야기:조옥화, 정명자, 장정옥, (조영명)노미화, 성효숙, (양원모)손채수, 장현자 <https://idph.kr/board/data.php?w=3>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구술컬렉션-박인숙(87년 6월 항쟁) 성효숙, 최숙희, 정정엽/ 최정순(서울의 봄)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main>

#### 6) 기타

- ▶ 미추홀 시민아카이브-미추홀사람-구술 인터뷰  
[https://www.archivecenter.net/MichuholCA/archive/CollectionGroupView.do?con\\_group\\_id=42](https://www.archivecenter.net/MichuholCA/archive/CollectionGroupView.do?con_group_id=42)  
(미추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주로 식당에 종사하는 여성의 생활에 대한 구술 인터뷰 다수)
- ▶ 『만석동 사람들』, 인천연구원-김명자(깡이부리마을 60년) (주소 인터넷창 복붙-파일 다운, 활동지 QR)  
<https://www.bing.com/ck/a?!&p=d6518d7f92ed90086c47b358968efe61bde4bc8ec11b14478dc02a23c119480dJmItdHM9MTczMzUyOTYwMA&ptn=3&ver=2&hsh=4&fclid=3f74737c-6826-627d-23d9-61f569b56375&psq=%ec%9d%b8%ec%b2%9c%ec%8b%9c%eb%af%bc+%ea%b5%ac%ec%88%a0%ec%83%9d%ec%95%a0%ec%82%ac&u=a1aHR0cHM6Ly93d3cuaWkucmUua3lvZG93bmxxvYWQvVEhVTUJOQUIMX0FUVFEFDSD9zdG9yYWdlTm89MTlyMQ&ntb=1>

## 2. 인터뷰 (한국구술사학회 2021년 9월 발간한 구술채록 매뉴얼의 내용 일부 인용)

### 1) 구술사 인터뷰

모든 구술사 인터뷰는 면담자와 구술자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술사 인터뷰는 국민의례와 같이 일상이 멈추어지고 면담자가 구술자와 함께 구술자의 과거로 여행을 하는 것이며 인터뷰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구술사 인터뷰는 질적연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자(면담자)가 연구의 도구가 되어 연구참여자(구술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따라서 면담자와 구술자 사이에 라포(rapport) 형성이 중요하다. 이 때 라포는 구술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내적 감정까지도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면담자는 구술자에게 신뢰감을 주어야만 구술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 2) 인터뷰 진행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구술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과 내면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담자 자신도 인터뷰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구술자가 인터뷰를 처음해서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시키고 친절하게 대한다. 예비 질문지는 인터뷰 진행 가이드 정도로 사용하고 질문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질문지를 자주 보지 말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구술자와 눈을 마주 대하면서 경청하는 것이 구술자가 잘 이야기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구술자의 말을 방해하지 말고,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여유를 가지고 서둘지 말고 한 주제에서 또 다른 주제로 갑자기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잠깐 기다려서 예상치 못한 주제에 대해서도 구술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순히 사건의 묘사뿐만 아니라 왜, 어떻게와 같은 질문으로 동기와 느낌까지도 알아본다.

좋은 인터뷰는 면담자가 알고 싶은 것을 다 다루면서 동시에 구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해온 질문을 하되 구술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 진행 시 구술이 주제로부터 너무 멀어질 때는 개입하는 질



문을 하여 주제로 돌아오게 한다. 구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사진과 다른 물증들이 인터뷰에 도움이 된다. 구술자의 구술에 대한 면담자의 소리 반응은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면담자의 소리 반응은 녹음의 질에 영향을 주고 녹취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소리 반응 대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와 같이 몸짓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 시 구술자의 대답이나 사고방식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구술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메모 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메모한 질문은 추후에 질문하면 된다. 구술에 모순이 있을 때에도 일단 구술이 계속 되도록 하고 나중에 추후 질문으로 확인한다. 구술사 인터뷰는 미디어에서 보는 약탈적인 인터뷰가 아니지만 때로는 어려운 질문도 해야 한다. 많은 인터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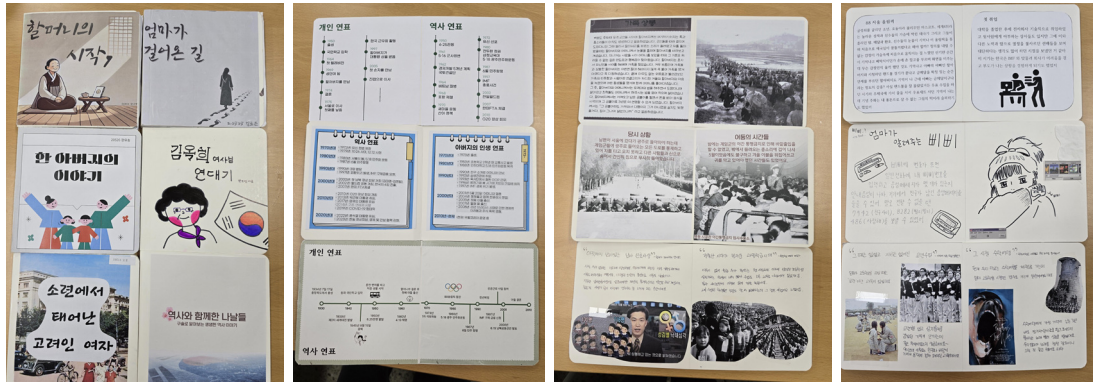
### 3. 인터뷰 질문

- 1) 인터뷰 대상에 대해 기본적인 사회, 역사적 배경을 조사한다.
- 2) 한번에 하나의 질문만 하고, 질문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3) 내용을 자유롭게 전개하도록 개방적 질문을 제시하며 구술자가 자신의 말로 답변하도록 한다.
- 4) 완성된 답변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자.
- 5) 구술자의 말에 집중하고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질문을 추가로 할 수 있다.
- 6) 기대하거나 선호하는 답변을 암시하는 질문은 피하고 불쾌감이나 비판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1.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장소	16. 육아 당시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2. 태어난 당시 집안 상황	17. 그 당시 있었으면 좋았던 것이 있는가(위와 연결지어)
3. 분봉집안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분봉이라 함은?	18. 시댁에 군대에 동담았던 분이 있는 걸로 안다 누구였는가
4. 토지개혁사업은 무엇이었고 어떤 변화를 불러왔나	19. 군사정권 당시 그 분으로 인해 피부로 와닿았던 것이 있는가
5. 6.25 전쟁을 겪은 적이 있는가	20.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기억은 어떠한가
6. 마산에 살았기 때문에 전쟁과는 동떨어진 것 같았는데	21. 옛날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책을 좋아했는가
7. 그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고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정확히 알고있는가	22.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어본 적 있는가? 책을 읽고 나면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8. 가세가 기울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23.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9. 방직산업에 취직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일인가	24. 자신의 노트북으로 강의도 듣고 수필도 쓰고 시도 쓰는데 이런 새로운 도전들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10. 그 당시 그 산업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나	25. 80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청년들에게 하고픈 말은
11. 일을 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12. 지금과 비교하면 노동환경이 어땠는가(전태일, 노동법)	
13.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14. 연애 결혼을 하면서 특이했던 점이 있는가	
15. 할아버지의 사업은 인테리어 사업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인테리어 산업이 어땠는가	

예시) 출처: <https://blog.naver.com/thebloom1819/222742005803>

### 4. 제작 도서 예시



▲ 표지

▲ 연표

▲ 내용

### 5. 인터뷰 녹음 및 채록 - ClovaNote 사용법

#### 1) 클로버 노트 앱 다운(모바일, PC 모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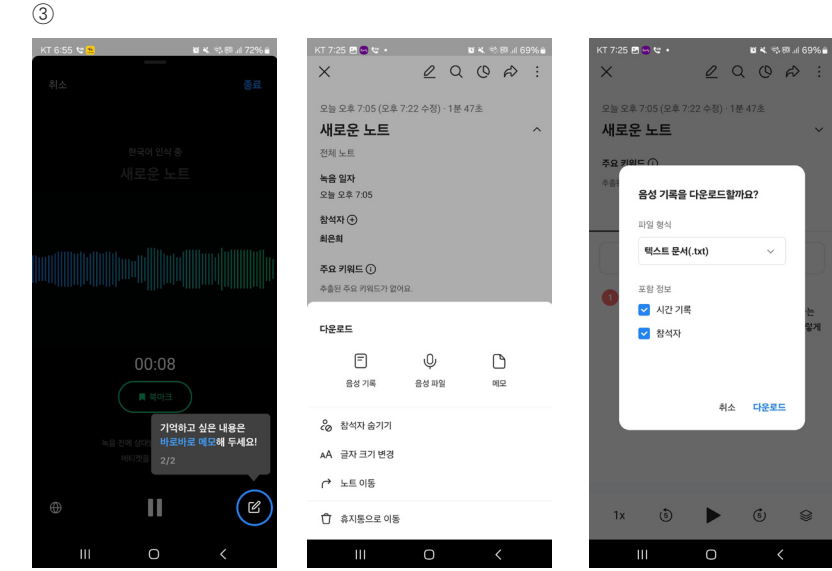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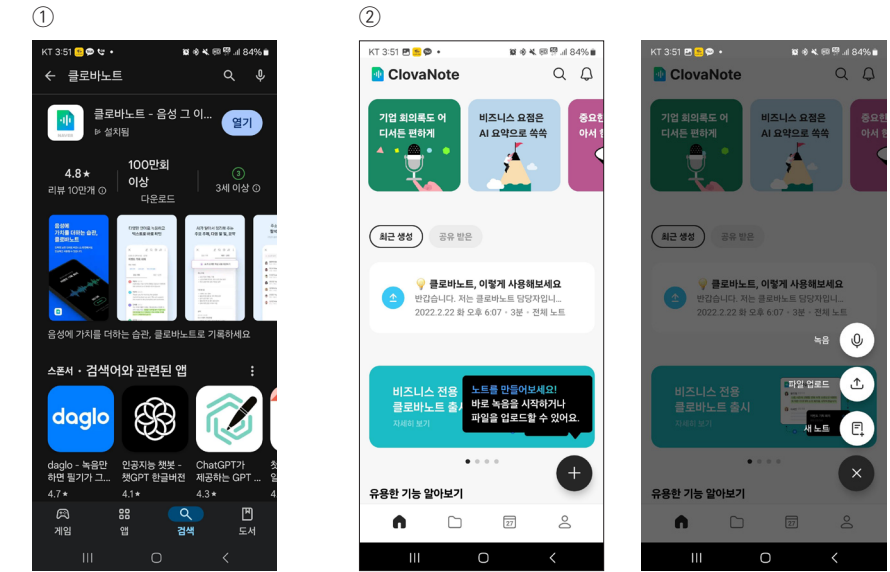
- 클로버노트는 네이버 아이디로 600분까지 무료 녹음과 파일 업로드 가능, 그 이상의 녹음과 파일 업로드는 유료

#### 2) 홈화면의 을 눌러 '녹음'을 누르면 음성 녹음

- '새노트'에 미리 제목, 참석자, 주제 등을 적고 시작할 수 있음

#### 3) 추가 기능

- 녹음하며 중요한 부분을 '북마크' 할 수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언어 선택과 녹음 중 메모 기능 있음
  - 녹음된 음성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되며 시가 내용을 정리, 요약할 수 있음
  - 녹음 후 내용 편집과 검색, 하이라이트, 공유 기능. 음성 종류에 따라 참석자 수 선택, 수정
- "을 누르면 음성기록은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 음성파일도 다운로드 가능





## 마. 참고 자료

### 1) 문헌

- 가와타 후미코, 안해룡 김해경 역, 『할머니의 노래』, 바다출판사(2024)
- 노선희, 『사진신부 이야기』, 북코리아(2023)
- 문옥표 외 4명,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2017)
- 박채란 외 9명, 『이번 생은 망원시장』, 글항아리(2018)
- 이호연 외 2명,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코난북스(2021)
- 이동해,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 푸른역사(2024)
- 장은교, 『인터뷰하는 법』, 터틀넥프레스(2024)

### 2) 인터넷 자료

- 재외 한인의 역사 <https://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viewMain.do>
- 2022년 인천여성생애구술사, 인천여성가족재단 <https://www.ifwf.or.kr/sub07/sub0701.do>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 영상자료, 구술영상 60여개  
<https://archive.much.go.kr/data/09/mapFolderList.do>
- 전쟁기념관, 오픈아카이브, 소장자료, 구술자료  
<https://archives.warmemo.or.kr:8443/pss/interview/pssInterviewList.do?MID=UM0001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구술컬렉션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main>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과 구술테마 컬렉션  
<https://mkoha.aks.ac.kr/oralRecord/OralRecordList.do>
- 인천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인천 6.25전쟁 구술 기록  
<https://iharchive.ifac.or.kr/archives/item/view?pageNum=1&searchData=&categoryLargeGroupCode=0004&searchType=TITLE&rowCount=8&search=N&iidx=1184>
- 지역N문화 국난극복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 - 전쟁일화  
<https://ncms.nculture.org/korean-war/introduction/war-story>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https://library.history.go.kr/library-services/search/all-collections?ALL=k%7Ca%7C%EC%A1%B0%EB%B3%91%EC%B0%BD> 원문 열람
- 『작가들』 91, 「민중 구술 길에서 강제동원되어 동양방적에서 2년을 보낸 이인심」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8701764> 원문보기
- 『작가들』 77, 「민중 구술 열두 살에 동양방적으로 강제동원된 양중희」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8409022> 원문보기

- 『작가들』 91, 「민중 구술 전쟁이 끝났어도 귀향하지 못한 월미도 원주민 이야기 임인자」  
<https://webzinewriters.com/https://webzinewriters.com/%EA%B8%B0%EB%A1%9D%EB%AC%B8%ED%95%99/%EC%9D%B8%ED%84%B0%EB%B7%B0-%EB%AF%BC%EC%A4%91%EA%B5%AC%EC%88%A0/>
- 『끝나지 않은 이야기-최연봉, 공인숙, 김영순』, 인천연구원  
[https://hanzhong.ii.re.kr/storage/etc/2024/04/30/ETC\\_ATTACH\\_1714437685565.pdf](https://hanzhong.ii.re.kr/storage/etc/2024/04/30/ETC_ATTACH_1714437685565.pdf)
- 미추홀 시민아카이브-미추홀사람-구술 인터뷰  
[https://www.archivecenter.net/MichuholCA/archive/CollectionView.do?con\\_group\\_id=42](https://www.archivecenter.net/MichuholCA/archive/CollectionView.do?con_group_id=42)
- 『만석동 사람들』, 인천연구원  
<https://www.bing.com/ck/a?!&&p=d6518d7f92ed90086c47b358968efe61bde4bc8ec11b14478dc02a23c119480dJmItdHM9MTczMzUyOTYwMA&ptn=3&ver=2&hsh=4&fclid=3f74737c-6826-627d-23d9-61f569b56375&psq=%ec%9d%b8%ec%b2%9c%ec%8b%9c%eb%af%bc+%ea%b5%ac%ec%88%a0%ec%83%9d%ec%95%a0%ec%82%ac&u=a1aHR0cHM6Ly93d3cuaWkucmUua3lvZG93bmxxvYWQvVEhVTUJOQUIMX0FUVEFDSD9zdG9yYWdlTm89MTlyMQ&ntb=1>

### 3) 기사 자료

- 박경호, 「일본 근로정신대 송현초 여학생...7명 아닌 13명 끌려갔다.」, 경인일보, 2023.8.13.  
<https://www.kyeongin.com/article/1651094> / (관련기사 경인일보 2019.6. 「일제, 초등학생을 징발하다.」1,2,3)
- 서예림, 「인천사람들이 겪은 한국전쟁-구술사와 지역사를 연결하다.」, 인천in.com, 2020.11.24.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37>

## 가. 수업 개관

### 1) 수업 개요

수업 주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웹툰 제작 활동	총 차시	8차시
교과		한국사 2		
성취기준		[10한사2-01-02] 일제의 식민 통치가 초래한 경제 구조의 변화와 그것이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교수학습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교수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토리텔링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젝트 학습 <input type="checkbox"/> 토의·토론 <input type="checkbox"/> 스마트 학습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 학습 <input type="checkbox"/> 거꾸로 학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학습		
학습자 역량	인천교육 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역량		
	교과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수업 준비	교사	• 스마트 기기(태블릿) 또는 개별 노트북, 영상자료(링크 활성화 확인) • 프로젝트 활동지 (교육과정구성질문이 내포된 KWL차트, 시놉시스-스토리보드 활동지) • [사전 동의서] 생성형 AI 프로그램 활용 동의서 안내 및 취합		
	학생	스마트 기기 및 개별 노트북 준비 및 원활한 사용 방법 숙지, 개별 필기구		
	수업환경	1.교사: 1인 1디바이스 , 학생: 1모둠 1디바이스, 개별 서책형 교과서 병행 2. 학교 무선인터넷 구동 가능 환경 3. 유/무선 미러링 가능 환경(교사의 스마트기기와 학습 모니터 연결)		
주요 산출물		영상 시청 후 작성하는 개별 KWL차트 모둠별 작성된 시놉시스(synopsis) 모둠 활동으로 전개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웹툰 제작물		
평가 방법		개인활동 - 프로젝트 활동지(KWL차트) 작성 모둠활동 - 프로젝트 활동지(시놉시스) 작성, 프로젝트 산출물(생성형 AI를 활용한 웹툰) 제작 및 발표 자기성찰일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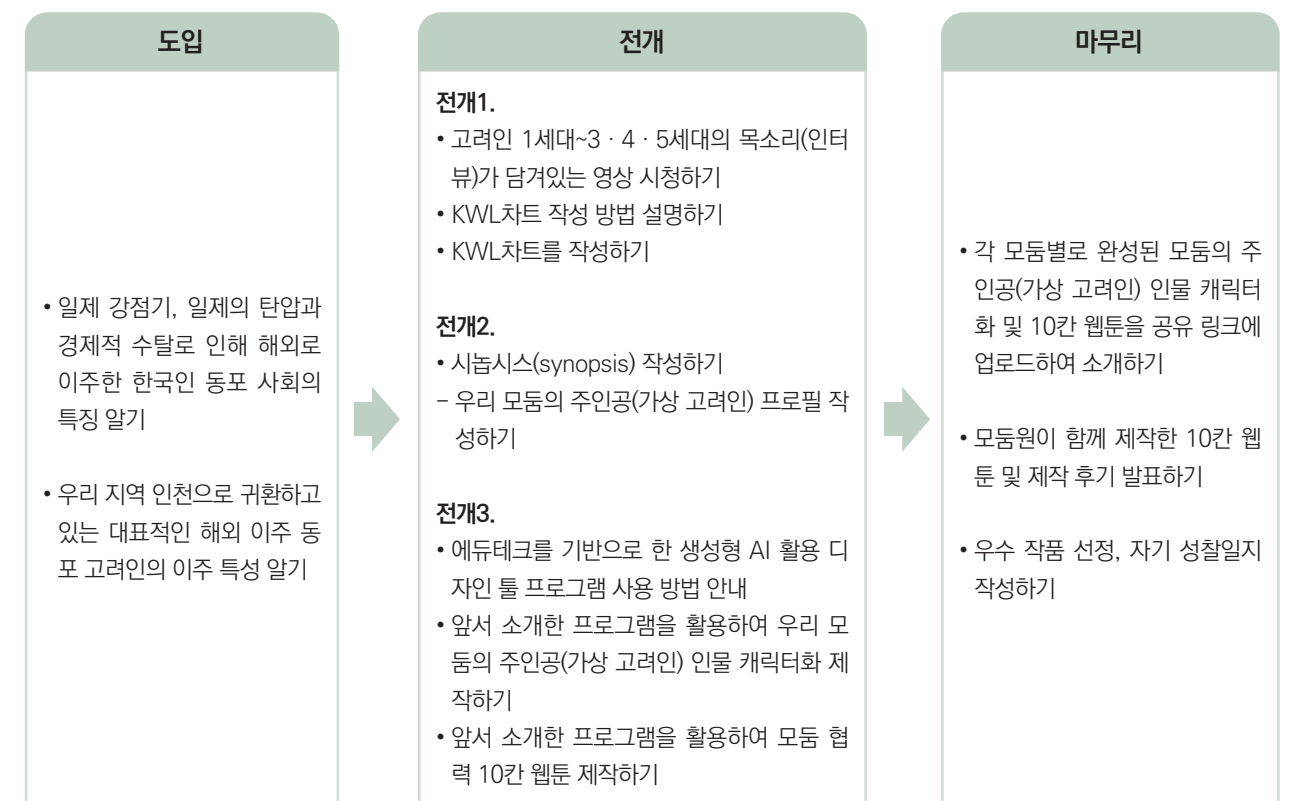
### 2) 수업 의도

우리 지역, 인천시 연수구 연수1동 함박마을에는 2023년 4월 기준, 약 8천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면적 대비 전국 최대 밀집 지역이 되었다. 인근 초등학교에는 러시아, CIS지역(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한국으로 이주를 택한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온 자녀들, 특히 고려인 자녀가 50% 이상 재학하고 있다. 이에 실제 고려인 1세대 ~ 3·4·5세대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직접 구술, 영상 속 구술, 구술 채록 서적 등)으로 청취하여 고려인의 발생 배경, 이주의 과정, 삶의 공통 문화 요소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거시적인 흐름에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가상의 만화(웹툰 작품)를 모둠 협력 활동을 통해 제작하도록 하며, 완성된 작품을 서로 공유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개별 인물들의 삶을 추체험함과 동시에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귀환 동포'인 고려인 동포와 자녀 가정 및 함께 살아가는 지역 구성원 및 학령기 도래 집단 가정 모두에게 개별적으로는 민족 정체성의 함양을, 지역 주민의 측면에서는 공동체성을 함양하여 지역 구성원으로부터 출발하는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차분하게 다름을 공유하며 상호 소통이 활발한 다문화 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수업 흐름



## 나. 수업의 실제

단계	차시	수업 예상 흐름	유의점	교수학습자료
도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제 강점기, 일제의 탄압과 경제적 수탈로 인해 국외로 이주한 한국인 동포 사회의 특징 알기</li> <li>국외 이주 동포 중 고려인이 발생한 역사적 상황 인식, 일상 생활의 모습 파악하기</li> <li>'귀환 동포' 중 고려인 사회가 구성된 국내 지역 중 우리 지역 '인천'의 함박마을이 갖는 특징 파악하기</li> </ul>	교과서 속 해외 이주 동포 거주지 찾아보기	교과서 읽기 자료
실행	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인 1세대~3·4·5세대의 목소리(인터뷰)가 담겨있는 영상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환 동포'의 마음 공감하기</li> <li>고려인 1세대~3·4·5세대의 목소리(인터뷰)로 그들의 경험 공유받기</li> <li>우리 지역 인천으로 귀환한 고려인들의 '지금 - 이 순간' 이해하기</li> <li>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 사회를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노력 제안하기</li> </ul> </li> </ul>	영상 속 주인공의 삶을 추체험 하기	동영상 자료 프로젝트 활동지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관심이 가는 고려인 세대 선택하기</li> <li>KWL차트 작성하기</li> </ul>	고려인 세대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선택 안내 ㉞ 고려인1세대 ㉟ 고려인2세대 ㊱ 고려인3·4·5세대 KWL차트 작성법 설명하기	프로젝트 활동지
	결과물 개발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이 선택한 고려인 세대 그룹(1~3그룹)을 중심으로 인원을 배분(모둠별 4~5인)하여 "협동 활동 진행 모둠을 편성"함</li> <li>시놉시스(synopsis)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모듬의 주인공(가상 고려인) 프로필 작성하기</li> </ul> </li> <li>앞서 소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듬 협력 활동으로 주인공(가상 고려인) 인물화 &amp; 8~10칸 웹툰 제작 (1인당 웹툰 표현 및 제작은 2컷 이상 제작해야함을 공지)</li> <li>공유 링크에 업로드하여 가상의 갤러리에 소개하기</li> </ul>	[사진] 생성형 AI 프로그램 활용 동의서 안내 및 취합하기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활용 디자인 툴 프로그램 사용 방법 안내	스마트 기기 (태블릿) 또는 노트북
프로젝트 결과 발표 또는 정리	8	모듬원이 함께 제작한 10칸 웹툰 및 제작 후기 발표하기		동료 평가 실시
성찰	8	우수 작품 선정, 자기 성찰 일지 및 동료 평가지 작성하기 (활동을 통해 성장한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 작성)		자기 성찰 일지 작성

##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프로젝트 활동지 1차시	[읽기 자료] 국외 이주 동포-고려인들의 모습은?		
	학년	반	번 이름

### 1. 일제 강점기, 일제의 탄압과 경제적 수탈로 인해 국외로 이주한 한국인 동포-고려인에 대해 알아보시다.

#### ① 고려인이란?

1991년 구소련 붕괴 이전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약 50만 명이 거주하였던 한민족 정체성과 혈통을 지닌 우리 동포를 지칭한다.

##### • 법률적 정의

– 국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약칭, 고려인 동포법)」(시행 2023.6.5.) [법률 제19228호, 2023.3.4., 타법개정]에 따르면, '고려인은 1860년 초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시기 동안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한다.

#### ② 고려인의 역사적 발자취

• 초기의 고려인 – 조선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빈곤과 가난 그리고 탐관오리의 학정과 착취를 벗어나고자 연해주로 정착한 사람들이다. 이후, 일본의 식민 지배를 피해 또는 국가 독립운동 등을 이유로 다수의 조선인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며 그 수적인 증가가 지속되었다.

• 1937년 스탈린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정책과 고려인 – 1937년 러시아 스탈린의 소수민족 강제 이주 정책으로 고려인 17만 2,000여 명이 갑자기 이주 통보를 받고 거의 맨몸으로 살던 곳을 떠나 3~4주간 시베리아 횡단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6,000km를 이동한 뒤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내려져 불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자유로운 이동과 한국어 사용을 금지당한 채 겨우 한민족 정체성만 유지한 채 살아남았다. 고려인은 160년간 1~5세대를 거치며 여기에서 저기로 이주-강제이주-재이주의 디아스포라 삶을 살면서 나라 잃은 조선인도 남한이나 북한 사람도 아닌 과거 고구려와 고려인의 후예로 남고 싶어 스스로를 고려 사람으로 구분하였고, 러시아에서도 이들을 '카레이츠(Кореицы)'라고 부른다.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당했지만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을 개척하여 '벼농사'와 '목화 농사'를 지으며 빠르게 정착했으며, 모범적인 집단농장(콜호스)을 운영하였다. 이처럼 고려인들은 낯선 구소련 연방 지역의 타국에서 러시아어를 익히며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교육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두각을 보이며 인정받는 집단이 되었다.<sup>2)3)</sup>

• 1991년 구소련 해체와 고려인 – 1991년 구소련 해체 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국어 부활 정책과 배타적인 민족주의 정책을 펼치며, 러시아어만 사용하던 고려인들은 취업과 교육 기회가 제한되었고, 낯선 거주국 언어를 새롭게 배우며 정착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하였으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고려인들은 마음의 고향이자 선조들의 모국인 발전된 한국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며 귀환을 선택하고 있다.

1) 친족의 범위: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2) 김호준(2013). 유라시아 고려인 150년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주류성. 17쪽  
 3) 김 게르만(2013). 나는 고려사람이다. 서울: 국학자료원, 27~28쪽



### ③ 고려인 디아스포라

한국 거주 고려인은 “이주-정착-재이주-정착-?”의 특징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이다. 1세대는 한반도에 서 떠나 연해주로 이주했고 2세대는 연해주에서 태어난 고려인인데 1937년에 강제 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3세대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1991년 구소련 해체 시기를 경험하였고, 한국으로 귀환하여 출신 국가와는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4~5세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여 성장하는 3세대의 자녀나 손 자녀들이다.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자신의 출신국 또는 모국과는 떨어져 살아왔고,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 3~5세대는 한국어 소통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고려인은 온전히 출신국이나 모국에 소속되지 못한 채 다국가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다른 삶의 생태체계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에, 다층적 다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sup>4)</sup>

### ④ 현재까지 이어져 온 고려인의 일상 속 문화 모습(기념일, 음식)



돌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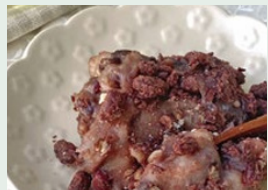
환갑잔치



한식<sup>5)</sup>



상례와 제례



찰떡기



당근김치



고려국시



시락장물

4) 심지은(2019). 상동

5) '한식'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 한식 때 알마티의 한 고려인 가족이 리스폴로바 공동묘지에서 상을 차리고 성묘하고 있는 사진이다. 차려진 음식은 보드카, 과일, 증편이(증편), 찰떡기(찰떡), 찜닭, 가주리(한과), 밥, 절금이(콩나물), 간초네(훈연생선), 삶은 계란, 물밥 등이다.

### ▶ 생각해보기

① 고려인의 일상 생활 문화를 보며 전통적인 한국 문화와의 공통 요소와 변용된 요소를 찾아보고 그 까닭을 추론해봅시다.

② 고려인과 한국인의 사회적(법률적) 구분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봅시다.

인천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 중 하나로, 여러 다양한 교통 경로로 서울과 연결되어 있다.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단지 28km이며, 서울 중심부에서 지하철로 인천의 서쪽 끝까지 이동하는 데 약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연수 1동에 위치한 '4단지'로도 알려진 “함박마을”은 한국 내 위치한 고려인 마을 중에서 러시아권 동포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2015년 이후 고려인 커뮤니티 형성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며,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 크게 거주 인구 수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지역의 교통 편리성(지하철 노선 및 공항과의 근접성), 비교적 풍부한 일자리(남동산업단지 근접),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 안산시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과의 근접성 등을 인구 유입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 많은 러시아어권 이민자에게 거주 장소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자녀의 교육(학교)인데, 고려인 마을 중심에는 문남초등학교가 위치한다. 2021년 문남초등학교의 총 579명 학생 중 235명이 다문화 학생이었고, 그 중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고려인 학생이 131명이었다.<sup>2)</sup> 2022년 이후 러시아어권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으로 러시아어권 학생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였다. 함박마을 근처 함박초등학교에서도 많은 러시아어권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19년 함박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총 436명 중 136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4.2%에 해당되었지만, 2022년 이후로는 50%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함박마을은 이민자 인프라와 러시아어권 인구 밀도가 높다. 또한 고려인 마을 외곽 부분은 연수역 근처까지 이어지며 2018년경 이후 새로운 이민자 인프라 중심지가 생겼다. 그래서 함박 고려인 마을이라기보다는 ‘연수1동 고려인 마을’로 호칭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특히 2018년경부터는 고려인들의 주거 공간이 함박마을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다. 아이가 있는 가족의 경우 함박마을을 떠나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연수1동 고려인 마을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특정 제품을 구매하거나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연수1동 고려인 마을을 자주 찾는 경향을 보인다. 많은 러시아 식당과 상점 간판을 볼 수 있는 상업적 인프라, 빵집, 카페, 휴대폰 매장, 옷가게, 인쇄소, 꽃집, 보석 상점, 책방, 고려인식 샐러드 상점 등 업체의 다양성도 연수1동 고려인 마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노래방, 술집, 당구장 등)은 국내 고려인들에게 인기가 많아 수도권 내 타 고려인 마을 주민들을 유인하는 주요 동력이기도 하다.

고려인 마을의 사회문화적 인프라는 한국 당국과 비영리 단체들의 관심과 돌봄의 마음이 보여지는데, 국립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보건소, 학원 등이 있다.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및 동 건물에 위치한 비류 도서관은 러시아어로 된 도서를 많이 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을 위한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그 외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사무실, 푸른마을 함박도서관 등에서는 성인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다.

그 외 한국 당국과 비영리 단체와 관련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러시아 학교’가 있으며, 러시아어로 예배를 진행하는 개신교 교회 등이 있다. 종교를 기반으로 러시아어권 신도들에게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시작하는 기회를 지원한다는 측면이 고무적이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거주 F-4 체류 자격 고려인 등록 통계

2) 임영상(2022). [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 고려인 육아공동체에서 ‘글로벌이상호문화대안학교’로...최마리안나와 인천CIS선교센터.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7>

문학장미공원, 문남어린이공원, 함박공원, 마리어린이공원 등의 공공 공간의 공원에서는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연 친화적 장소이기 때문에 안내판은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를 기반으로 적혀있다. 안내문과 지도에서 러시아어 표기가 함께 한다는 것은 동등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공존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 출처: 직접 촬영(2024.10.25.)

깨끗한 함박마을, 함께 만들어가  
(ВМЕСТЕ СДЕЛАЕМ ПХАМБАК ЧИСТЫМ)  
아래와 같이 분리배출 해주세요  
(РАЗДЕЛЫВАЙТЕ МУСОР КАК УКАЗАНО НИЖЕ)

종이류 종이, 비닐류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고철, 캔, 병, 스티로폼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함박마을 분리수거 안내문

함박비류도서관 회원가입안내

함박마을 어울림축제 안내 현수막

함박초등학교, 문남초등학교, 함박종합사회복지관

- 출처: 구글 지도\_인천함박마을(추가 기재: 함박초등학교, 문남초등학교, 함박종합사회복지관)

▶ 생각해보기

고려인 귀환 동포들이 ‘고려인 사회’가 구성된 다양한 지역 중 ‘인천’지역의 함박마을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102 지역사 기반 2022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교수학습 자료집

프로젝트

활동지

2~4차시

동영상과 함께 KWL차트 작성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영상 보기 전 활동	Know (내가 아는 것)					
	What (내가 알고 싶은 것)					
영상 자료	'귀환 동포'의 마음 공감하기	고려인 1세대 ~ 3·4·5세대 의 목소리로 경험 공유받기	우리 지역 인천으로 귀환한 고려인들의 '지금 - 이 순간' 이해하기			
	고려인 마을을 아시나요?	스몰넷 고려인 4세 유학생 ○샤가 부르는 아리랑	김 이○나	차 예○○○나		
			이웃집 찰스 - 인천 함박마을			
영상 시청 후 활동	Learned (알게 된 것)					
	고려인과 한국인,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노력의 모습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인상 깊은 인물 선정하기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위의 인물은 고려인 이주 동포 몇 세대인가요?				
		해당 인물의 삶의 기억 중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건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세요.				

함박마을로 귀환 이주하는 고려인 이야기

103



♣ 고려인이 정착했던 옛 소련에서 한국의 성과 소련의 이름이 합쳐져서 고려인만의 특징 있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듬의 주인공(가상 고려인)의 이름을 만들고 가상 프로필을 작성해 볼까요?

예시) 김 미하일(Ким Михаил) - 의미? 하나님과 같은.  
차 예카테리나(Чха Екатерина) - 의미? 순수함, 깨끗함,

[예시] 러시아어 문자 - 발음 - 뜻

Александр 알렉산드르	보호자, 남자	Анна 안나	좋은, 지지하는
Андрей 안드레이	용감한, 남자다운	Евгения 예브게니아	고귀한
Борис 보리스	투사	Елена 엘레나	햇빛
Геннадий 겐나지	고귀한 기원	Жанна 잔나	은혜로운, 자비로운
Георгий 게오르기	농부	Ирина 이라나	평화
Григорий 그리고리	깨어 있는	Лариса 라리사	갈매기
Евгений 예브게니	고귀한	Наталья 나탈리아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Сергей 세르게이	매우 존경받는, 고귀한	Ольга 올가	성자, 성인
Владимир 블라디미르	세상을 지배하라	Вера 베라	믿음
Виктор 빅토르	승리자	Виктория 빅토리아	승리자

우리 모듬의 주인공(가상 고려인) 프로필

우리 모듬의 주인공(가상 고려인) 소개		우리 모듬의 가상 고려인의 프로필 설정의 특색(특징)을 작성합니다.
이름(성별)	(      ) 고려인 _____세, 나이 _____세	
별명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장래 희망		
고려인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한국이란?		

	이주 단계	1차 이주 (1863~1937)	2차 이주 (1937)	3차 이주 (1956~현재)	4차 이주 (1991~현재)
고려인의 이주	성격 및 목적	연해주 이주  기근을 피해 살기 위한 이주	강제 이주  일본을 위해 고려인들이 간첩행위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추방된 이주	자유 이주  자유, 법적, 정치적 지위를 회복하고 교육을 목표로 한 이주	귀환 이주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주
	당시 상황	• 일제강점기 • 항일의병활동 • 독립운동	• 말라리아 병, 풍토병 유행 • 척박한 땅을 일구어 기름진 땅으로!	• 교육의 기회 증가 • 농업의 발전 • 분산 이주	• 소련의 붕괴로 인한 경제난 가중 • 일자리와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우리 모듬의 주인공 (가상 고려인)의 이주 단계는?					
우리 모듬의 주인공 (가상 고려인)을 표현하는 키워드(최대 3개)?	#	#	#	#	#
우리 모듬의 주인공 (가상 고려인)의 모습을 “질문을 통해” 표현해볼까요?  [활동 유의점] 사실적, 개념적, 토론을 위한 질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웹툰을 제작합니다.	[사실적 질문] (예시) 그/그녀는 어떻게 ○○지역의 고려인 문화를 형성하였는가?				
	[개념적 질문] (예시) 그/그녀는 어떻게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자신들의 문화를 적용(적응)하며 살아갔는가?				
	[토론을 위한 질문] (예시) 그/그녀는 ○○지역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한국(한국인)과 더불어 사는데(또는 기억하는데)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미지 & 말풍선 넣기	이미지 & 말풍선 넣기
[장면 간략 설명]	[장면 간략 설명]
이미지 & 말풍선 넣기	이미지 & 말풍선 넣기
[장면 간략 설명]	[장면 간략 설명]
이미지 & 말풍선 넣기	이미지 & 말풍선 넣기
[장면 간략 설명]	[장면 간략 설명]
이미지 & 말풍선 넣기	이미지 & 말풍선 넣기
[장면 간략 설명]	[장면 간략 설명]
이미지 & 말풍선 넣기	이미지 & 말풍선 넣기
[장면 간략 설명]	[장면 간략 설명]

① 시놉시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자?



: 투닝 GPT에는 다양한 인물 AI 캐릭터가 탑재되어 있어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 탐색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통해 자신이 찾은 정보와 AI를 통해 추출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교차 점검할 수 있어 주체성과 주도성을 지니고 올바른 생성형 AI 사용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투닝 GPT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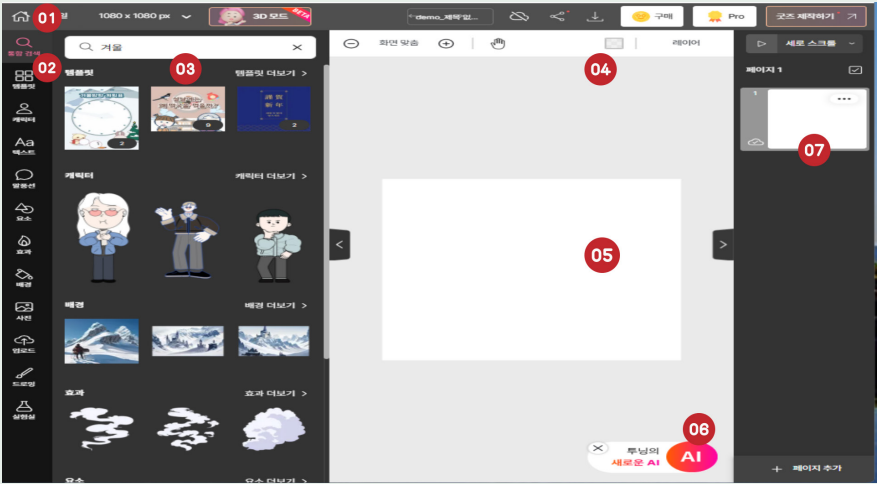
- ㉠ 한국사 속 인물 강감찬 외 약 38인  
 ㉡ 직업 세계 인물 AI콘텐츠 디자이너 외 약 35인  
 ㉢ 나만의 캐릭터 제작 가능
- ㉠ 세계사 속 인물 가쓰시카 호쿠사이 외 약 65인  
 ㉡ 교과 선생님 과학 선생님 외 약 7인

: 사용자가 직접 캐릭터의 직업과 성격을 정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임. 예를 들어 학생 이 본인의 이름을 적고, 장래 희망을 적는다면 미래의 꿈을 이룬 자신과 대화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② 웹툰 캐릭터와 말풍선 제작에 도움을 받자?

: 투닝 에디터는 PPT, 카드뉴스, 포스터 등 쉽게 활용되는 콘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웹툰 만들기, 생각 표현하기 등의 활동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음.

[투닝 에디터 화면 구성]



[투닝 에디터 화면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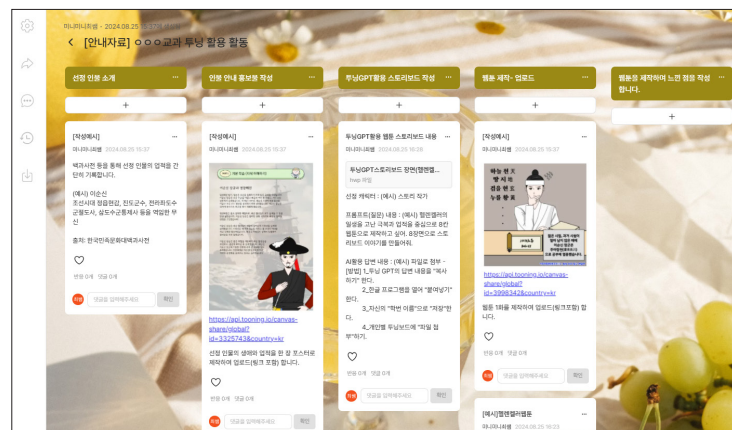
- ① 상단 탭  
 ④ 옵션 탭
- ② 메뉴 탭  
 ⑤ 대지(아트보드) 탭
- ③ 콘텐츠 탭  
 ⑥ AI 메뉴 탭
- ⑦ 페이지 탭

③ 내가 상상하는 모습(배경 이미지)을 그려내는 데 도움을 받자?

: 투닝 매직은 화풍 스타일 및 다양한 스타일(사진, 만화, 픽셀 등)을 설정하여 직접 체험하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④ 제작한 작품을 공유하며 나눔과 성장을 함께하자?

예시 [투닝 보드]



예시 [Padlet(패드렛)]



프로젝트명(혹은 수업 주제)	함박마을로 귀환 이주하는 고려인 이야기		
탐구 질문(혹은 핵심 질문)	예>고려인들은 어떤 이유와 목적을 지니고 대한민국으로, 인천으로 귀환 이주하고 있을까요?		
프로젝트 요약 (혹은 활동 요약)			
자기 자신에 대하여			
프로젝트(혹은 수업)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학습내용)			
프로젝트(혹은 수업)를 하는 동안 어떤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나요?	인천교육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type="checkbox"/> 협력역량	
	교과역량	<input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전에 비해 향상된 역량이 있나요?	예> 자료수집 능력, 중재 능력, 소통 능력, 추진력, 자료활용 능력, 글쓰는 능력 등		
일상을 함께하는 인천 속 다문화 시민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귀환 이주 고려인 측면		
	원거주민 측면		
	모두의 측면		
모둠별 프로젝트 발표(혹은 수업)에 대하여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젝트 (혹은 수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아쉬웠던 프로젝트 (혹은 수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어떤 방안을 새롭게 도입하면 프로젝트(혹은 수업)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 교사 참고 자료

1. 가정통신문

학교 로고	교 훈	가 정 통 신 문	2024. 〇〇.〇〇.(〇) 담당부서명 (담당자 해당번호)
학교 비전 문구			
학교 주소 ☎ 학교 대표 번호 학교 홈페이지 주소			

생성형 AI 활용 안내 - 생성형 AI 사용 연령 제한 및 유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부모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ChatGPT, Gemini, Wrtn 등 생성형 AI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 경제, 교육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기술이 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이를 사용하는 데에는 윤리적 취약성 및 연령 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연령 제한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거듭나 성장하고 앞으로의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유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생성형 AI 연령 제한 안내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해 18세 이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성형 AI 사용에 앞서 이용약관을 꼭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챗지피티(ChatGPT)	제미나이(Gemini)
- 만 13세 미만: ChatGPT 사용 제한 - 만 13세 이상 ~ 18세 미만: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하에 사용 가능 - 만 18세 이상: 회원 가입 및 사용 자유롭게 가능	- 만 13세 이상(=구글 계정 생성 조건) 이용 가능 - 한국은 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 - 일부 유럽 국가는 14~16세 이상 사용 가능
하이퍼클로바 X(네이버)	뤼튼(Wrtn), 아숙업(ASKUP)
- 만 19세 이상 사용 가능 - 개인 아이디만 가입 가능하며 단체 아이디 가입 불가	- 만 13세 이상 사용 가능 - 만 13세 미만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필요

※ 2024년 1월 기준, 각 생성형 AI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가능 연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 시 유의 사항  
학생들이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도 이를 숙지하시고 학생들에게 교육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 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학생들이 가족이나 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적절한 대답 가능성	→ 생성형 AI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어떤 질문이든 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언어나 내용을 입력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도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 편향성 및 인지 수준 차이 발생	→ 어린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인지 발달로 인해 세상의 다양한 개념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대답이 어린이들의 인지 수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신뢰성 문제	→ 생성형 AI는 사전에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대답을 내놓기 때문에 입력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를 이용해 정보를 얻을 때는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의존성 문제	→ 생성형 AI는 접근성이 쉽고,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정교한 대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존성과 중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적절한 시간 동안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 〇 〇 〇 학 교 장 [직인생략]

2. 이용동의서

학교 로고	교 훈	가 정 통 신 문	2024. 〇〇.〇〇.(〇) 담당부서명 (담당자 해당번호)
학교 비전 문구			
학교 주소 ☎ 학교 대표 번호 학교 홈페이지 주소			

생성형 AI 활용 안내 - 수업 활용을 위한 학부모 동의서

「생성형 AI」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정보를 주고받는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으로 ChatGPT, Gemini, 하이퍼클로바 X, 뤼튼(Wrtn), 아숙업(ASKUP)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으나, 법적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 13세 이상 18세 미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6항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적을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위치정보 전송을 확인한 뒤 「생성형 AI」 활용 교육활동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챗지피티(ChatGPT)	제미나이(Gemini)
- 만 13세 미만: ChatGPT 사용 제한 - 만 13세 이상 ~ 18세 미만: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하에 사용 가능 - 만 18세 이상: 회원 가입 및 사용 자유롭게 가능	- 만 13세 이상(=구글 계정 생성 조건) 이용 가능 - 한국은 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 - 일부 유럽 국가는 14~16세 이상 사용 가능
하이퍼클로바 X(네이버)	뤼튼(Wrtn), 아숙업(ASKUP)
- 만 19세 이상 사용 가능 - 개인 아이디만 가입 가능하며 단체 아이디 가입 불가	- 만 13세 이상 사용 가능 - 만 13세 미만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필요

※ 2024년 1월 기준, 각 생성형 AI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가능 연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절 취 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	1. 수집 이용 목적 -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및 관리·유지, 활용 교육실시, 개선 및 분석, 연구 수행, 프로그램 -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범죄 활동 또는 오용 방지, 보안 강화 등 2. 수집 항목 - 로그인 시 사용하는 계정 정보(성명, 소속, 학년, 전화번호 등) - 「생성형 AI」 사용 시 입력하는 내용과 업로드 파일 등 - 로그 및 사용 데이터, 장치 정보, 쿠키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4학년도 교육과정 종료 이후 즉시 파기 4. 개인정보 수집이나 「생성형 AI」 활용 교육에 동의하지 않을 시 「생성형 AI」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생성형 AI」 활용 교육 동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자녀	이름 학교명/학년/반	〇〇〇〇학교	〇학년 〇반 (서명)
보호자	보호자(법적대리인) 성명(필수) 신청인과의 관계(필수)	(서명)	

년 월 일  
〇〇〇〇〇〇 귀하



3.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지침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활용 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사 주도로 교육적 의도에 따라 활용</li><li>▶ 교사 시연 중심</li><li>▶ 학생 체험 가능한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당 연령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인 경우</li><li>- 또는, 교사의 추가 작업을 통해 생성형 AI 산출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 직접 활용</li><li>▶ 약관에 따른 사용 제한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초등학교용 가이드 적용</li><li>▶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가정통신문 등 활용하여 보호자 동의 후 사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 직접 활용</li><li>▶ 프로젝트 등의 보고 조사로 활용</li><li>▶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가정통신문 등 활용하여 보호자 동의 후 사용</li></ul>
	[공통] 수업 및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경우 사전에 생성형 AI 원리와 한계점,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학생 교육 실시(필수)		
	[공통]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시 약관을 통해 사용 가능 연령 확인(필수) ※ OpenAI 서비스의 경우 이용 약관에 따라 만 13세 미만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만 13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필요. 교사는 법적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음.		
학생	생성형 AI(초거대 언어 모델 등) 원리 및 한계점 이해		
	방과후나 가정에서 사용 시에도 윤리적 활용 실천		
교원	생성형 AI(초거대 언어 모델 등) 원리 및 한계점 이해 및 교육 실시		
	다양한 생성형 AI의 특징과 장단점 이해 및 교육적 활용		
	생성형 AI 활용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 관찰·연구		
	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 자동화에 활용하는 방안 탐색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주의		

Ⅴ 위 사항은 현재까지 발간된 ChatGPT 활용 가이드, ChatGPT의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생성형 AI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의 축적, 서비스 이용 약관의 변경, 학교 현장의 우수 대처 사례,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23.8.29.)

4. 생성형 AI 윤리적 사용 관련 자료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카드뉴스(2024.3.26.)

5. 고려인 읽기 자료

1) 고려인은 누구인가?

한국사회 내 대표적인 이주민 집단으로 고려인은 2024년 4월 기준 총 11만 명을 넘어섰고, 우즈베키스탄, 한국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기타 국가 순으로 많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 고려인 3,000명 정도가 국내 입국한 것으로 추산<sup>1)</sup>된다.

고려인은 한민족 정체성과 혈통을 지닌 우리 동포로 1991년 구소련 붕괴 이전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국내 「고려인 동포법」(2010년 5월 20일 제정)에 따르면, ‘고려인은 1860년 초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시기 동안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 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초기 고려인은 조선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빈곤과 가난 그리고 탐관오리의 학정과 착취를 벗어나고자 연해주로 정착한 사람들이다.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를 피해 또는 국가 독립운동 등을 이유로 다수의 조선인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며 그 수적인 증가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1937년 러시아 스탈린의 소수민족 강제 이주 정책으로 고려인 17만 2,000여 명이 갑자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불뿔이 흩어져 이주하게 되었고, 자유로운 이동과 한국어 사용을 금지당한 채 겨우 한민족 정체성만 유지한 채 살아남았다. 고려인은 160년간 1~5세대를 거치며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월보(2024.04.30.)



여기에서 저기로 이주-강제이주-재이주의 디아스포라 삶을 살면서 나라 잃은 조선인도 남한이나 북한 사람도 아닌 과거 고구려와 고려인의 후예로 남고 싶어 스스로를 고려 사람으로 구분하였고, 러시아에서도 이들을 ‘카레이츠(К о р е й ц ы)’라고 부른다. 고려인들은 낯선 구소련 연방 지역의 타국에서 러시아어를 익히며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교육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두각을 보이며 인정받는 집단이 되었다.<sup>2)3)</sup>

하지만, 1991년 구소련 해체 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국어 부활 정책과 배타적인 민족주의 정책을 펼치며, 러시아어만 사용하던 고려인들은 취업과 교육 기회가 제한되었고, 낯선 거주국 언어를 새롭게 배우며 정착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하였으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고려인들은 마음의 고향이자 선조들의 모국인 발전된 한국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며 귀환하게 되었다.

이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세대를 걸쳐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삶을 이어 온 고려인의 정체성은 다른 한민족 동포나 이주민들의 정체성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 고려인들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여기와 저기에 모두 속하는 경계인으로서 다중적 다층적인 정체성을 형성<sup>4)</sup>하며 살아가고 있다.

## 2) 고려인 디아스포라

구소련 지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삶을 살아낸 과거 고려인들은 1~3세대 동안 한국어 사용을 금지당하고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어만 사용하며 한국과는 분리된 채 살았다. 이후, 고려인 4~5세대는 1991년 구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성장하며 러시아어 사용보다는 출신 국가의 언어를 배워야 했고, 자녀와 부모 간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로인해, 국내 거주 고려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언어다. 세대별로 다른 디아스포라 삶으로 인해 모어(Mother language)와 모국어(Native language)가 다른 고려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설명할 수 없다.<sup>5)</sup>

한국 거주 고려인은 “이주-정착-재이주-정착-?”으로 그 특징이 나타나며 대표적인 디아스포라다. **1세대는 연해주로 이주했고 2세대는 연해주에서 태어난 고려인인데 1937년에 강제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3세대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1991년 구소련 해체 시기를 경험하였고, 한국으로 귀환하여 출신 국가와는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4~5세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여 성장하는 3세대의 자녀나 손자녀들이다.** 이처럼 대부분 고려인들은 자신의 출신국 또는 모국과는 떨어져 살아왔고,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 3~5세대는 한국어 소통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려인의 정체성은 세대별로 다양하고 특별하며, 한국으로의 이주 목적과 이유에 있어서도 세대별로 노동, 돌봄, 교육 등으로 다르다. 그동안 고려인은 온전히 출신국이나 모국에 소속되지 못한 채 다국가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다른 삶의 생태체계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기에, 하나의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층적 다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sup>6)</sup>

고려인은 생활문화 전반에서도 일반 한국인과는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거 한국문화와

러시아 슬라브계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거주한 중앙아시아 출신 국가의 문화가 융합된 현재 고려인의 생활문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고려인은 혈통을 유지하여 일반 한국인과 비슷한 생김새와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현재 한국인과는 다른 언어를 쓰고 변형된 러시아식 한국음식을 먹으며 고려인들끼리 모여 밀집 거주지역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고려인 3세대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비가 저렴하며 자녀를 위한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모여 산다.<sup>7)</sup>

## 6. 고려인 관련 구술 내용

### ① 고려인의 이주와 정체성\_남 빅토르(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대학교 교수) 주제 발표 중 발췌 (「관훈저널(가을호)」)

“한인들을 운송하는 모든 열차 행렬은 화물열차였다. 열차 한 개 제대는 대략 50~60량의 화물칸으로 이루어졌다. 경찰과 내무부 호송인원들만 객차에 탔다. 화물칸에는 창문 하나 없었으며, 문만 있었을 뿐이다. 문이 닫히면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 열차로 가족을 나르는지 사람을 나르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기차를 그냥 ‘검은 상자’라고 불렀다.”

- 출처: 우대국 ‘약혼반지’ - 보리스 박,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p.314, 재인용

“오후 4시쯤 우리 집으로 국가정치연합국 무장군인 2명이 탑승한 차량 한 대가 도착했다. 우리 집에는 7명의 아이들과 2명의 어른이 있었다. 어렵게 짐을 싣고 길을 떠났다. 저녁 8시경 철도역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말과 기타 대형 가축 운송용 화물열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차량은 사람을 나르기 위해 정비되어 있었다.”

- 출처: 황승걸 묘사 - 보리스 박,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p.314, 재인용

### ♣ 많은 고려인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해

“3세, 4세 고려인들의 정체성과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글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고려인들이 지금도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패스포트를 보면 민족이 따로 있거든요. 국적하고 민족을 우리는 좀 구별합니다. 그래서 패스포트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이지만 민족은 한국인이예요. 한국인, 코리아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곳,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이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식으로 교육받아 왔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모르지만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부모님들이 고집하는 게 꼭 고려인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 출처: 남 빅토르, p.252~253

2) 김호준(2013). 유라시아 고려인 150년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주류성. 17쪽  
3) 김 게르만(2013). 나는 고려사람이다. 서울: 국학자료원, 27~28쪽  
4) 김기영(2019). 고려인 고학력 여성의 초국가주의적 선택과 전략: 이주와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3(2), 45~79.  
5) 심지은(2019).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고향 신화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43(1), 241~269.  
6) 심지은(2019). 상동

7) 남부현(2020) 러시아어권 중도입국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한국어 교사의 경험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3), 77~108.

### ♣ 남북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

“사실상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 될 때는 우리 조국이 북한하고 남한으로 갈라지기 전 애기거든요. 고려인들은 통일조선에서 살다가 러시아로 이주하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 우리는 모국이라고 생각할 때는 통일된 모국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남한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 우리가 한국에 기대하는 건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계속 성장하면 우리도 우대를 받거든요.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이 많이 안정될수록 우리도 좋고요, 우리도 대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는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걸 원하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 출처: 남 빅토르, p. 257-258

### ② 함박마을 고려인 디아스포라들 이야기



1. 항일무장투쟁 독립유공자 박노순의 딸, 박발렌티나 이야기
2. 강제 이주가 만든 뼈아픈 가족사, 신무자 이야기
3. 조로자 체스클럽을 꿈꾸며, 조빅토르 이야기
4. 고려인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최예릭 이야기
5. 함박마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3모작, 텐 아샤 이야기

출처 : 최정학, 『고려인 이주 이야기 들꽃같은 사람들』(연주문화원) 제2부

## 7. 시놉시스(Synopsis)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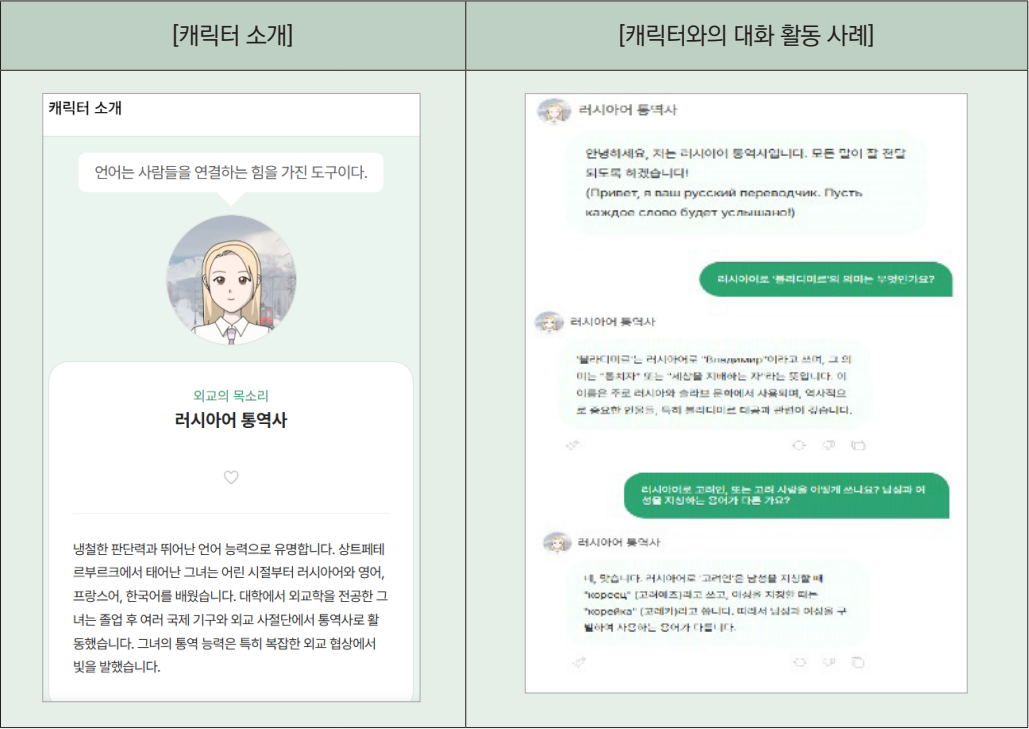
- ① 시놉시스는 책, 드라마, 영화 등의 작품 줄거리 및 주제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 ② 시놉시스에는 집필 의도, 줄거리, 등장인물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 ③ 시놉시스를 잘 써야 많은 작품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작품의 참신성을 알릴 수 있다.
- ④ 시놉시스를 통해 전체 줄거리를 공개하게 되면 작품에 대하여 독자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 8. 튜닝 활용 방안

### ① 시놉시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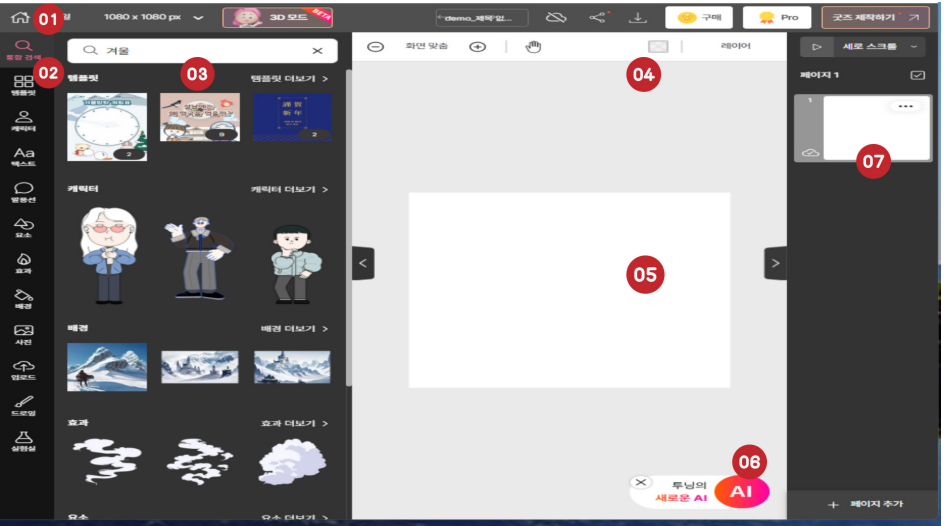
튜닝 GPT에는 다양한 인물 AI 캐릭터가 탑재되어 있어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 탐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통해 자신이 찾은 정보와 AI를 통해 추출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교차 점검할 수 있어 주체성과 주도성을 지니고 올바른 생성형 AI 사용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튜닝 GPT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 캐릭터]	
한국사 속 인물	강감찬, 계백, 고종, 관창, 광개토대왕, 김구, 김유신, 김정희, 김홍도, 단군, 박영효, 서재필, 세종대왕, 순조, 신사임당, 신윤복, 안중근, 안창호, 영조, 우장춘, 원효대사, 유관순, 윤동주, 윤봉길, 윤치호, 이성계, 이순신, 이이, 이종섭, 이황, 임궫정, 장기려, 장보고, 장영실, 정약용, 정조, 지석영, 한석봉 흥선대원군 등
2. 세계사 속 인물	가쓰시카 호쿠사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구스타프 클림트, 그레고어 멘델, 레오나르도 다 빈치, 로버트 오펜하이머, 루이 다게르, 루이 브라유, 루이 암스트롱, 루이 파스퇴르, 르누아르, 마그리트, 마리아 몬테소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하트마 간디, 몬드리안, 몽크, 바흐, 블라디미르 레닌, 비스마르크, 빈센트 반 고흐, 살바도르 달리, 수문제, 안네 프랑크, 안토니오 가우디, 안토니오 비발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알렉산더 플레밍, 알베르트 슈바이처, 알프레드 노벨, 알프레드 대왕, 앙리 루소, 앙리 마蒂斯, 애덤 스미스, 앤디 워홀, 안 베르메르, 에드워드 제너,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 월트 디즈니, 윈스턴 처칠, 윌리엄 1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소룡, 장 앙리 파브르, 잭슨 폴록, 조셉 폴리처, 조지 스티븐슨, 조지 워싱턴, 존 F. 케네디, 진시황, 칭기즈 칸, 카를 란트슈타이너, 캐서린 파, 코코 샤넬, 쿠르트 괴델, 클로드 모네, 파블로 피카소, 페르디난드 마젤란, 폴 세잔, 프리다 칼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함무라비, 헨델, 헨리 포드, 헬렌 켈러, 호찌민 등
3. 직업 세계 인물	AI 콘텐츠 크리에이터, CEO, PD, 가수, 간호사, 개발자, 건축가, 경찰관, 고민 상담사, 군인, 동물사육사, 디자이너, 러시아어 통역사, 마케터, 모델, 미술 선생님, 배우, 뷰티디자이너, 수의사, 스토리 작가, 안전관리자, 야구선수, 약사, 연구원, 영양교사, 요리사, 웹방송 전문가, 웹툰 작가, 의사, 제빵사, 중국어 통역사 축구선수, 콘텐츠 창작자, 탐정, 프로그래머, 환경운동가 등
4. 교과 선생님	과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미술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음악 선생님, 진로 선생님, 체육 선생님 등
5. 나만의 캐릭터	사용자가 직접 캐릭터의 직업과 성격을 정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임. 예를 들어 학생이 본인의 이름을 적고, 장래 희망을 적는다면 미래의 꿈을 이룬 자신과 대화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 ② 웹툰 캐릭터와 말풍선 제작에 도움을 받자

투닝 에디터는 PPT, 카드뉴스, 포스터 등 쉽게 활용되는 콘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웹툰 만들기, 생각 표현하기 등의 활동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음.



- ① 상단 탭  
(구성) 홈버튼, 파일, 화면 크기, 3D 모드, 작업취소/재실행, 제목, 저장, 공유, 다운로드, 냇이 구매
- ② 메뉴 탭  
(구성) 템플릿, 캐릭터, 텍스트, 요소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음
- ③ 콘텐츠 탭

- (설명) 메뉴 탭의 하위 카테고리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것을 클릭하여 ⑥로 불러올 수 있음
- ④ 옵션 탭  
(구성) 화면 크기 조정, 커서/이동, 배경색 설정, 레이어
- ⑤ 대지(아트보드) 탭  
(설명) 작업 중인 이미지가 보이는 창
- ⑥ AI 메뉴 탭  
(구성) 문장으로 튜닝 구성, 그림으로 요소 검색, 사진으로 캐릭터 형성 등의 기능 사용.  
또는 튜닝 매직 혹은 튜닝 GPT 이동 가능
- ⑦ 페이지 탭  
(설명) 작업 중인 콘텐츠의 페이지를 확인하고, 페이지 추가 및 이동-삭제 가능

## ③ 내가 상상하는 모습(배경 이미지)을 그려내는 데 도움을 받자

투닝 매직은 화풍 스타일 및 다양한 스타일(사진, 만화, 픽셀 등)을 설정하여 직접 체험하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① 프롬프트(명령어) 입력창  
: 키워드 위주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한다. 해당 입력 상자에 입력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미지가 생성됨.
- ② 스타일  
: 생성할 이미지의 화풍과 이미지 스타일을 선택함.
- ③ 생성 장수  
: 이미지를 몇 장 생성할지 1~5장 이내로 설정함.
- ④ 이미지 크기  
: 이미지의 방향과 비율을 통해 생성될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함.
- ⑤ 그리기 도구  
: 펜과 지우개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펜의 색상을 설정한다. 태블릿으로 이용시 필압 감지 기능 사용 가능함.
- ⑥ 배경 추가  
: 배경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음.

실시간 생성

① 기본 설정  
(구성) 스타일 변경, 선택, 요소 불러오기, 사진 불러오기, 색상 설정, 브러쉬 크기 설정, 필압 설정, 지우개

② 기타 설정  
(구성) 배경 색 변경, 실행 취소, 재실행, 선택 삭제

③ 실시간 생성 설정  
(구성) 명령어 입력 창, AI 강도, 생성 멈춤, 다시 생성, 이미지 향상

④ 대지(아트보드)  
(설명)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영역

⑤ 생성 이미지 대지  
(설명) AI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가 보이는 창

④ 제작한 작품을 공유하며 나눔과 성장을 함께하자

투닝 보드

Padlet(패드렛)

마. 참고 자료

1) 문헌

- 강건영, 『중국, 중앙아시아, 극동러시아 기행-민족의 공동체 의식-』, 도서출판 선인(2015)
- 바딤 아쿨렌코, 『한국 내 고려인 마을 조사 자료집』, 學古房(2024)
- 전선하, 「고려인 화가 안 블라지미르의 우즈베키스탄과 한반도를 향한 모국성」,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36집(2018)
- 튜닝스퀘어, 에듀테크교사연구회, 『생성형 AI 튜닝, 수업의 터닝포인트가 되다』, 튜닝스퀘어(2024)

2) 인터넷 자료

- 튜닝 사이트 <https://tooning.io/>
- 재외 한인의 역사 <https://theme.archives.go.kr>
- 서울특별시교육청 -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 부서업무방 -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가이드 (2023.8.29.)  
[https://buseo.sen.go.kr/buseo/bu10/user/bbs/BD\\_selectBbs.do?q\\_bbsSn=1240&q\\_bbsDocNo=20230829193450556](https://buseo.sen.go.kr/buseo/bu10/user/bbs/BD_selectBbs.do?q_bbsSn=1240&q_bbsDocNo=20230829193450556)
- 광산구청, 「고려인 역사문화탐방 청소년 마을교재-광주 고려인 마을 여행」, 2024.09.20..  
[https://www.gwangsan.go.kr/boardView.do?pagelId=www3&boardId=NEWS\\_NEW&seq=1847222&movePage=1](https://www.gwangsan.go.kr/boardView.do?pagelId=www3&boardId=NEWS_NEW&seq=1847222&movePage=1)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 네이버 블로그 카드뉴스(2024.3.26.)  
<https://blog.naver.com/kcc1335/223396015153>
- 강제 이주 80년 고려인, 아리랑 고개를 넘다(YTN 2017.09.30.)  
<https://youtu.be/mrqkdUe-GCk?si=3nwSVq6g8YJil2yV>
-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옛 '아리랑' 음원 확인(KTV 2017.8.24.)  
<https://youtu.be/cmrHOMe7CTI?si=5geLpzOy-k8a6xXI>
- [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 고려인 육아공동체에서 '글로벌아상호문화대안학교'로...최마리안나와 인천CIS선교센터.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7>
- 『고려인 이주 이야기 들꽃 같은 사람들』, 연수문화원(2021)  
[http://www.yeonsu.or.kr/img\\_up/shop\\_pds/yeonsucc/contents/myboard/deul-kkot-eun-sa-ram-deul-pe-i-ji-eop-ro.pdf](http://www.yeonsu.or.kr/img_up/shop_pds/yeonsucc/contents/myboard/deul-kkot-eun-sa-ram-deul-pe-i-ji-eop-ro.pdf)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국내 고려인 청소년, 소통과 통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2024.11.01.  
[https://www.youtube.com/live/dLuaUUjqJAc?si=6KOem\\_Pn1JOiRsai](https://www.youtube.com/live/dLuaUUjqJAc?si=6KOem_Pn1JOiRsai)



### 3) 기사 자료

- 임영상, 「고려인동포를 품어주는 인천 지역사회, 함박마을 북콘서트」,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2022.04.09.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8>
- 김원진, [함박스탄] 프롤로그-함박마을 사람들의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인천일보, 2024.08.01.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315>
- 김원진, [함박스탄] ① 함박마을의 여름방학, 인천일보, 2024.07.31.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316>
- 김원진, [함박스탄] ② 함박N컷, 인천일보, 2024.08.07.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1345>
- 박해윤, [함박스탄] ③ 목요일 오후 2시의 레시피, 인천일보, 2024.08.21.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183>
- 이아진, [함박스탄] ④ 함박마을 하나뿐인 반찬가게, 인천일보, 2024.08.28.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4225>
- 박해윤, [함박스탄] ⑤ 30대에 처음 쓰는 자서전, 인천일보, 2024.09.04.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5040>
- 곽안나, [함박스탄] ⑥ 안나가 만나에게, 인천일보, 2024.09.11.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5761>
- 이아진, [함박스탄] ⑦ 꽃을 든 남자, 인천일보, 2024.09.19.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113>
- 이순민, [함박스탄] ⑧ 디아스포라 도시의 맞춤법, 인천일보, 2024.09.25.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606>
- 곽안나, [함박스탄] 에필로그, 인천일보, 2024.10.01.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7067>
- 김상욱, 고려인들의 영원한 디아스포라 ‘한식’, 충청리뷰, 2023.04.13.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22>

### 4) 기타 자료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ISSUE BRIEF- 국내 거주 동포 자녀 현황과 정책 과제」, 2023.4.vol.7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ISSUE BRIEF- 국내 고려인 청소년 현황 및 지역사회」, 2024.10.vol.12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국내 고려인 청소년, 소통과 통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24.11.01.
- 관훈클럽 해외세미나, 「관훈저널 가을호- 고려인의 이주와 정체성」, 2011.08.25.

# 07

## 인천에서 듣고, 말하는 6·25 전쟁

# 07

### 가. 수업 개관

#### 1) 수업 개요

수업 주제		인천에서 듣고, 말하는 6·25 전쟁	총 차시	6차시
교과		한국사 2		
성취기준		[10한사2-02-02]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국내외의 정세 변화와 연관하여 이해한다. [10한사2-03-03]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교수학습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교수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토리텔링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젝트 학습 <input type="checkbox"/> 토의·토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마트 학습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 학습 <input type="checkbox"/> 거꾸로 학습 <input type="checkbox"/> 문제해결학습		
학습자 역량	인천교육 핵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역량		
	교과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수업 준비	교사	스마트 기기(아이패드 등), 학습지		
	학생	스마트 기기(아이패드 등), 스마트 기기 사용 방법		
	수업환경	1.교사 : 1인 1디바이스, 학생 : 1인 1디바이스, 서책형 교과서 병행 2. 학교 무선인터넷 제공 및 유/무선 미러링 가능: 교사의 스마트패드와 대형모니터 연결		
주요 산출물		학습지 ①, ② 활동자료 ①: 사건 보고서 작성 활동자료 ②: 가상 일기 작성 활동자료 ③: 나에게 평화란?		
평가 방법		개인 활동 - 학습지, 활동자료 ①, ②, ③ 자기평가, 동료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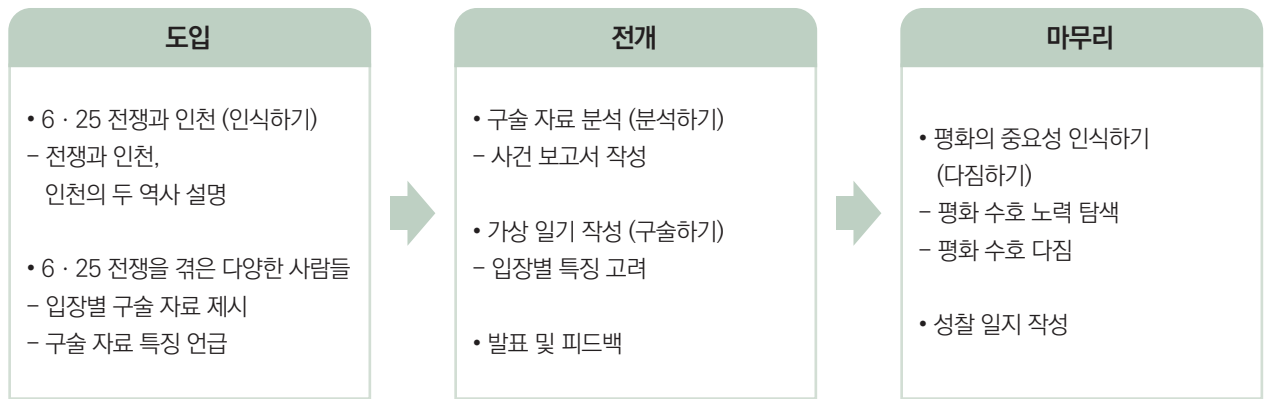


## 2) 수업 의도

6·25 전쟁은 한반도의 비극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특히 인천 지역은 그 여파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인천은 38도선에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북 간 전선 이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전쟁은 군사적 충돌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피란민도 유입되며 이 시기 인천의 공동체는 충격과 혼돈 속에서 재편성되었다.

매년 9월 15일, 인천 월미도에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가 열린다. 그와 동시에 한 편에서는 군사 작전 당시 희생된 월미도 주민들을 추모하는 합동 위령제가 열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 속 다양한 주체의 기억이 공존하는 인천에서 여러 입장의 구술 자료를 통해 서로 다른 경험과 고통을 직접 들어보며 전쟁의 참혹함과 고통을 느끼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수업은 다양한 입장의 인천 주민의 구술 자료를 활용하여 전쟁의 아픔을 넘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평화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한 개인으로서 전쟁의 참혹성을 추체험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

## 3) 수업 흐름



## 나. 수업의 실제

단계	차시	수업 예상 흐름	유의점	교수학습자료
도입	1	1. 6·25 전쟁과 인천 - 인천에서 찾는 전쟁과 평화의 흔적: 지역별 관련 장소 조사 - 6·25 전쟁 속 인천, 인천의 두 역사: 38도선 인근, 월미도의 두 역사  2. 6·25 전쟁을 겪은 다양한 사람들 - 각 입장별 구술사 자료 제시, 입장별 특징 분석 - 구술 자료 특징 및 분석 유의점 언급	• 6·25 전쟁과 관련된 인천 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상반된 역사 언급 • 구술 자료의 특징 언급 및 분석 시 유의점 안내	• 학습지 • 구술 자료
실행	주제 선정	1. 입장별 자료 선택 및 모둠 구성 - 한국 군인/민간인: 원주민, 피란민 구술 자료 중 한 가지 입장 선택 - 입장별 모둠 구성	• 전쟁 당시 입장별 특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 • 제시된 자료 외 구술 자료 활용 가능함을 언급	• 구술 자료
	자료 수집 및 분석	1. 사건 보고서 작성 - 〈활동자료 ①〉, 인천 백지도(장소 위치) 활용 - 구술사 자료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역사 오류 검증, 새로운 단어 검색  2. 사건 보고서 공유 및 발표 - 보고서 공유 및 발표	• 사건 보고서 작성 시, 작성 불가한 부분은 넘기도록 안내 • 패들렛 작성법 안내	• 활동자료① • 인천 백지도
	결과물 개발 및 검토	1. 가상 일기 작성하기(구술하기) - 입장별 택 1(한국 군인/민간인: 원주민, 피란민)  2. 가상 일기 공유 및 발표(패들렛): 느낀 점 공유	• 평가 기준과 배점 안내 • 구술 자료를 토대로 본인이 직접 구술하듯이 작성하도록 안내	• 활동자료②
프로젝트 결과 발표 또는 정리	5	1.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탐색하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a href="https://www.jinsil.go.kr/">https://www.jinsil.go.kr/</a> ) - 정의기억연대 ( <a href="https://womenandwar.net/">https://womenandwar.net/</a> ) -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a href="https://www.ice.go.kr/peace/">https://www.ice.go.kr/peace/</a> )  2.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말 작성 및 공유 - 본인이 6·25 전쟁에 참여했던 인물로 가정하고, 미래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과 꿈꾸는 미래 작성	•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탐색 • 현 세대로서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 패들렛 게시물 • 활동자료③ 참고
성찰	6	- 성찰일지 작성	• 자기평가	• 성찰일지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인천에서 찾는 전쟁과 평화의 흔적

학습지1

학년   반   번 이름

1. 인천의 전쟁, 평화와 관련된 장소를 알고 있다면 모둠원과 이야기해보자.

2.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6·25 전쟁 관련 장소가 있는지 조사해보자.

장소 명칭	위치(주소)	간략한 소개

[참고 자료]



▲ 부평 전투 승전비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408



▲ 맥아더 장군 동상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76(전동)  
카페 근처(자유공원 내)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1-11(자유공원 내))



▲ 강화 평화 전망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

6·25 전쟁 속 인천과 인천의 두 역사

학습지2

학년   반   번 이름

2. 다음 지도를 활용하여 6·25 전쟁 당시 인천의 지리적 특징을 말해보자.

- 힌트 ① 인천을 색칠해보세요.  
힌트 ② 38도선을 그려보세요.  
힌트 ③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그려보세요.



2.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6·25 전쟁 관련 장소가 있는지 조사해보자.

- 1) 제 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5712> (박예진 기자, 2024.09.11.)
- 2) 인천상륙작전 74주년, 월미도 원주민 귀향 대책 여전히 제자리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868> (현동민 기자, 2024.09.09.)



3. 구술 자료

학년 반 번 이름

1) 한국군 구술 자료

1. 류○○(카투사 1기): 전쟁기념관 오픈 아카이브 구술영상 자막



2) 피해 민간인 구술 자료

1.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당시 민간인 구술 자료

(출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권 2부



성명	진술일	진술 형태 장소	진술 성격	진술 내용
유○○	2007. 3.13.	진술조서 (조사실)	목격 (2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마을주민은 90여 호 약 400여 명이었다. 희생자 규모는 적어도 수십 명은 되었다고 본다.</li><li>▶ 인민군 본부는 민가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인 월미산에 있었다. 인민군은 수백 명으로 많았으며, 그들은 본부를 순환도로 위 아래로 병커를 파서 요새화했다.</li><li>▶ 폭격 이전에 비라 등의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폭격이 있을지를 전혀 몰랐다.</li><li>▶ 하늘에서 비라가 뭉텅이로 떨어진 것을 누가 주워서 인민위원회에 가져다주는 것을 김○○가 보았다고 하였다.</li><li>▶ 이 폭격 이전에는 비행기들이 인천, 월미산 서쪽 요새를 폭격하곤 했으나 월미도 동쪽 민가를 폭격하는 일은 없었다.</li></ul> <b>〈폭격 당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9월 13일 새벽 6시경에 네이팜탄이 투하되기 시작했다.</li><li>▶ 폭격이 갑작스러워 잠자다 숙옷 바람으로 대피했다.</li><li>▶ 간조 상태의 갯벌로 대피하였으며 대피한 사람들은 기총소사를 피하기 위해 서로 진흙을 발라주었다.</li><li>▶ 저녁 때 마을로 돌아와 타버린 집터를 치우고 옷 입은 채로 잤다.</li></ul> <b>〈피해자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아버지 우○○○이 머리에 파편 2개가 박힌 채 희생되었다.</li></ul> <b>〈폭격 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음날 폭격이 없어 집집마다 희생자의 사체를 각각 가매장했고, 그 다음날 다시 폭격이 시작되자 주민들은 모두 월미도를 급히 떠났다.</li></ul>

성명	진술일	진술 형태 장소	진술 성격	진술 내용
이○○	2007. 10.25.	녹취 (조사실)	목격 (19세)	<b>〈폭격 당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1차로 우○○의 집 근방에 네이팜탄이 떨어진 후, 사람들이 급히 해변으로 뛰었는데, 재차 네이팜탄이 남쪽 수산물시험장에 떨어졌고 미군이 기총소사를 했다.</li><li>▶ 주민들은 월미도다리 북쪽의 갯벌로 뛰어가 개흙을 바르고 엎드려 대피했다. 물이 불어나자 물으로 올라와 나무그늘에 숨어 있다가 폭격이 끝난 어스름녘에 마을로 들어왔다. 그날 종일 굶었으나 먹을 것이 폭격으로 다 타서 텃밭의 감자 등을 캐어 먹었다.</li><li>▶ 동네는 폭삭 완전히 무너졌다. 미군부대 막사는 폭격하지 않았다. 철조망너머 군부대 막사는 멀쩡했다. 미군이 점령한 후에 외자청에서 동네주민들을 시켜서 쓸 만한 목재를 나르도록 해서 월미도에 들어가봤는데 미군막사는 멀쩡했고 다시 들어온 미군이 사용하고 있었다.</li><li>▶ 미군은 월미도에 민간인 거주 여부나 주거상황을 잘 알았다. 해방 후 월미도에 미군부대가 진주했다가 일본으로 철수한 적이 있고, 인천상륙 후 다시 월미도에 들어온 부대가 바로 그 부대였다.</li></ul>
유△△	2007. 11.19.	녹취 (조사실)	목격 (10세)	<b>〈폭격 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우리 집을 인민군 본부의 식당으로 썼다.</li><li>▶ 우리 집은 민간인 거주지에서 300여m 떨어져 월미산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높은 언덕 지대에 있었다. 우리 집 바로 옆에 인민군 본부가 있었는데, 이 건물은 8:15 후에 주둔한 미군이 지어 장교 식당으로 썼던 큰 가건물이었다.</li><li>▶ 월미도는 일제 강점기시대에 공원으로 조성하여 북쪽으로는 용궁각, 조탕이 유명한 유원지였고, 숲에는 한 아름이 넘는 나무들이 무성하고 울창하였다.</li><li>▶ 인민군들이 주민들에게 부역을 안 나오면 싸 죽인다고 했고, 참호 파는 일 등을 하면 주먹밥을 주며 주야로 다그쳤다.</li><li>▶ 인민군이 마을에 오는 일이 더러 있었지만, 인민군과 주민들은 거주하는 지역이 달랐다.</li><li>▶ 동사무소 자리에 내무소가 있었는데 인민군이 총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li><li>▶ 전쟁이 난 직후에는 피난을 간 사람도 꽤 있었지만, 이미 인민군이 피난민보다 앞질러 가 있었고 인민군 점령이 길어지자, 대부분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친척집도 식량이 부족해 부담이 돼서도 돌아왔다.</li><li>▶ 당시 월미도 다리에서 인민군이 검열을 해서 통행이 자유롭지 못했다.</li></ul> <b>〈폭격 당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폭격에 놀라서 갯벌로 대피해 개흙을 바르고 숨었던 것은 주민들 뿐이었다.</li></ul>

2. 강화(강화도, 석모도, 주문도)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출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권 2부

성명	진술일	관련 장소	진술 내용
고○○	2007. 11.19.	강화면	고○○(하점면 주민)은 인공 통치 시 명신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전력 때문에 경찰이 강화로 복귀하기 전인 1950년 10월 초순경 치안대원 3~4명에게 끌려가 강화산업창고에 구금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고○○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창고 안에는 30~40명 정도가 구금되어 있었는데, 성명불상의 사망자 2명, 인사불성자 2명, 고문을 견디다 못해 나중에 우물에 빠져 죽은 자살자 1명 등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창고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주로 인공 통치 시 인민위원회 관련자로 고○○은 구금 당시 18살밖에 되지 않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풀려나왔다고 한다.
최○○	2007. 06.13.	강화면	최○○에 따르면, 1950년 10월 10일 강화경찰서장 김○○를 위시한 전투경찰이 선발대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강화치안대에 의해 연행되어와 경찰서 마당에 둘러앉아 있던 200여 명의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일부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발로 짓밟았다고 한다. 최○○은 이렇게 구타당한 사람 중 일부는 다음날 사망하였으나 사망자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다만 현장에 있던 구금자 중에서 강화면 관청리 주민 안○○와 그의 딸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다른 참고인의 증언에 의하면 안옹호는 당시에는 풀려나왔다가 1951년 1월 초에 용정리 고리나무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해되었다고 한다.
박○○	2007. 04.17.	서도면	서도면 볼음도의 박△△는 인공 통치 시 면사무소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로 1950년 초 겨울 주문리 소재 서도지서로 불려가 2~3일간 고문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박△△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서도지서58)에서 코에 고춧가루물을 붓고, 기절하면 머리를 다시 물속에 반복해서 처넣어 아무래도(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 고○○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할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었다. 박△△는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다시 서도지서로 불려갔는데 그 다음날 가족에게 박△△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박△△의 삼촌과 매형 김○○이 서도지서로 갔고, 서도지서 지하실에서 가마니로 덮여 있는 박△△의 시신을 수습하여 가까운 논두렁 부근에 매장하였다. 수습 당시 박△△의 시신은 눈이 튀어나온 상태였다고 한다. 신청인 박○○은 삼촌으로부터 “박△△는 치안대장 고○○가 사주하여 서도지서 경찰관의 고문으로 죽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서도지서 주임은 조○○이었다.

성명	진술일	관련 장소	진술 내용
전○○	2007. 12.14.	강화면	참고인 전○○(용정리 주민)는 1950년 12월 말경 특사령으로 출소하여 용정리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인천형무소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갑곶지에서 붙잡아 살해한다”고 전해주던 11살가량의 소녀 덕분에 피신하여 생존하였다. 다음은 전○○의 증언내용이다. “저는 의용군에 차출되었다가 도망쳤으나 10월경에 용정리치안대장 황혁주가 경찰에게 고발하여 강화경찰서 유치장과 무도장에 다른 300여 명과 함께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소년형무소로 보내졌죠. 거기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은 적은 없었고 12월 말경 서류재판을 받고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초지나루를 건너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나루 근처 소년단사무실(치안대사무실)에서 밤을 지낸 후, 아침에 해안도로를 따라 선원면 연리 용진진 근처로 가다가 11살쯤 되는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저씨 인천에서 오세요? 저도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창리 건너 갑곶지에서 사람들이 붙잡아 다 죽이니깐 그곳으로 가지마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길로 처가가 있는 인산리로 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대한청년단원들이 갑곶나루에서 기다렸다가 인천에서 특사령을 받고 출소한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3. 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출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조사보고서



3) 원주민 구술 자료

(출처) 인천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인천 6·25 전쟁 구술 기록,

성명	거주지	구술 내용 QR코드
조○○	인천 남동구	
심○○	인천 부평구	
강△△	인천 미추홀구	
강○○	인천 미추홀구	


4) 피란민 구술 자료

(출처) 이세영(2017), 「해방~한국전쟁기 인천 지역 월남민의 정착과 네트워크 형성」, 『동방학지』, 제180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성명	구술 내용
이○○	면담자: 그러면 인천에 어디 살고 계셨어요? 구술자: 여기 송현동. 면담자: 그때 송현동이 아까 그 수도국산 있는 데. 그렇죠. 거기에 피난민들이 많이 와서 살고... 구술자: 그때는 뭐 딱 찾아. 송현동, 시장까지 전부 다 피난민. 맨 피난민이야. 면담자: 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네요. 다 그냥 피난민들 사는 데서. 구술자: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시장에서, 옷가게에서 누비, 그걸 해주고.
장○○	구술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있는데 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인하대 자리예요. 인하대학교 자리가 옛날에 미군 원조를 받아가지고 난민들을 위한 수용소를 지었더라고요. 난민수용소를. 그래가지고 거기 가 한 300호 정도. 굉장히 많이 크게 지었어요. 거기에 뭐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튼간 거기서 그러니까 51년도 10월, 11월 정도부터 거기에 난민수용소에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인천에 정착을 한 거죠. 근데 그게 53년도인가 해가지고 인하대학교가 생기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교민들 뭐 몇 주년 해가지고 인하대학교를 만들면서 그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저 주로 많이 간 게 독쟁이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 사람들 옛날에 흩어진 사람들이예요. 독쟁이,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죠.
이△△	면담자: 전쟁이 나기 전까지 한 2~3년 정도 서울에서 계속 계셨나요? 구술자: 아니요, 서울에서 못 이계,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서북청년회라고 서울 고학생회관 밑에 무슨 지대라 그래서 지금 기억이 거기 이제 살기 힘들고 해서 서북청년단에다 가 있게 된 거예요, 거기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데 고학생회관에서 거기로 내려가서 의식주를 해결했죠, 그래가지고 고계 들어서 제주도 가게 된 거예요. 국민경비대로.
고○○	구술자: 백령도에 황해도 장연군, 송화군, 신천군이 다 피난을 나와서 백령도에 와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한 거지. 정말 사람하고, 똥하고 (웃음) 물도 없어. 백령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조직이 생겼냐, 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북에 가서 쌀을 가져와서 먹자. 그래서 조그만 배를 타고서 또 이북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쌀을 한 말이고, 두 말이고, 세 말이고 가지고 나와서, 된장, 고추장도 가지고 나와서 먹고 하다보니까. 인민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간첩들이 내려와서 쌀 가지가고, 가족들 데려가고 그러니까... (중략) ... 야, 이젠 우리가 개들이 총을 쓰고 하니까, 인민군을 덮치자. 그래서 5명이 한 조면, 3명은 쌀을 등에 지고 또 2명은 이제 또, 총이 생기더라고. 가서 한 패가 인민군이나, 경찰서를 덮쳐서 죽기 살기로 그냥 총을 뺏어서, 2명은 총을 가지고 가서 개들이 쏘면, 우리도 쏘고 이랬는데. 이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면, 미군의 선발대 8240 특수부대야. 미군이. 그래서 미군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 이북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너희 쌀 2말, 3말 때문에 20리, 30리씩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말만 잘 들으면, 인민군 하나씩만 잡아오면 알랑미. 알랑미 한 포대씩 주겠다.” 또 그걸 줘. 그때는 쌀 주우려 갈 필요가 없어. 경찰, 이북의 내무서원이거든. 내무서원 있는데 가서 그 놈들 잡아오고. 그게 쌀 주우려 가는 것보다 쉽거든. 그래서 인민군을 잡으면 철사로 포승을 해서 끌고 오면 쌀 한 포대 준다. 근데 이건 황해도 장연 사람들 얘기야. 신천군도 있고, 웅진군도 있고 한데, 다른 데는 인민군들 몇 명 잡아왔대, 알랑미가 몇 포대래.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또 경쟁을 붙이는 거야.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구술 자료에서 한가지 입장(한국 군인 / 민간인: 원주민, 피란민 중 1)을 택하였는가?
- ☐ 구술자의 구술 내용에 역사적 오류가 없는가?
- ☐ 구술자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구분하였는가?

항목	작성 내용
구술자의 입장	한국 군인 / 민간인: 원주민, 피란민
구술 내용에 등장하는 지역	
구술 내용 (육하원칙에 따른 요약)	

1.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발견한 역사적 오류있다면, 작성하고 수정하기

2. 새롭게 알게 된 점(역사적 사실, 용어나 단어)이나 감정의 변화





모둠		학년	반	번	이름:
프로젝트명					
핵심 질문					
프로젝트 요약					
자기 자신에 대하여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어떤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나요?	인천교육 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type="checkbox"/> 협력역량	<input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교과 역량	<input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가장 최선을 다한 프로젝트 활동은 무엇인가요?					
더 시간을 들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무엇을 하기 원하나요?					
프로젝트(혹은 수업)에 대하여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젝트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아쉬웠던 프로젝트 활동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1. 학습지 ①

- 부평 전투 승전비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백운공원 내에 부평전투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부평구청에서 2008년 5월 31일 이 비를 세웠다. 부평전투는 인천상륙작전성공 후 서울 탈환 목적으로 진격하던 중 부평에서 있었던 전투를 말한다. 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맥아더사령관의 지휘로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의 최우선 과제는 서울 수복을 위한 김포비행장의 조기탈환이었다.

연합군은 미 제1해병연대와 제5해병연대를 앞세워 서울을 향해 진격을 하였고 미 제5해병연대에 배속된 한국해병 제3대대 9, 10, 11중대가 공격대열의 선봉에 섰으며 경인국도를 따라 서울로 진격하던 연합군은 부평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던 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적을 섬멸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군이 전사하였다.

이 비는 당시 부평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 뿐만 아니라 UN의 깃발아래 조국의 수호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한국과 미국의 젊은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자 격전지였던 이 자리에 건립하여 2008년 6월 13일 준공식을 가졌다.

-맥아더 장군 동상

: 인천시 중구 중앙동 자유공원 내에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맥아더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1957년 9월 15일 동상을 만들어 세웠다.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의 불법남침으로 경남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토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 실로 나라 존망이 위태로운 때 9월 15일 맥아더(Douglas McArthur) 사령관이 지휘한 UN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우리 조국을 구원한 맥아더 장군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우의를 기념하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의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자유공원에 장군의 동상을 세웠다.

-강화 평화 전망대

: 강화평화전망대는 2006년 말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양사면 철산리 민통선 북방지역 임야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타 지역에선 전망하기 힘든 이북의 독특한 문화 생태를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도록 준공되어 2008년 9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시설내역으로는 지하층과 4층은 군부대 전용시설이며, 1층에는 강화특산품과 북한의 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토산품 판매장과 식당, 관리사무실, 게스트 룸이, 2층에는 고성능 망원경과 전쟁의 참상과 흔적을 볼 수 있는 강화의 국방체험과 북한의 도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통일정책을 볼 수 있는 끝나지 않는 전쟁과 우리는 한민족, 북한으로의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통일로 가는 길, 끝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배경과 국내·외 전쟁 발발과정 및 그 이후 생애 잊지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상황 등을 영상 시설을 통해 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3층에는 이북의 온 산하가 한눈에 가까이 볼 수 있는 전망시설과 흐린 날씨에도 영상을 통해 북한 전경 등을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본 전망대는 전방으로 약2.3km 해안가를 건너 예성강이 흐르고 우측으로 개성공단,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역을 경계로 김포 애기봉 전망대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일산신시가지가 위치해 있으며 좌측으로 중립지역인 나들섬 예정지와 연백군으로 북한주민의 생활모습과 선전용 위장마을, 개성공단 탐, 송악산, 각종 장애물 등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 2. 구술사 자료

### 1) 한국군 자료

- 류영봉(카투사 1기): 전쟁기념관 오픈 아카이브 구술 영상과 자막
  - 카투사: 대한민국 육군인사사령부 예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駐韓美八軍 韓國軍支援團) 소속으로서 주한 미국 육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부사관(임기제부사관)과 병을 말한다.

### 2) 피해 민간인 자료

#### I.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권 2부

##### 1. 결정사안

: 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 10일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들의 인천 월미도에 대한 집중 폭격에 의해 월미도 거주 민간인들이 집단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된 사례.

##### 2. 결정요지

- 월미도 거주 민간인들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월미도 마을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집단희생되었다. 폭격은 리차드 루블 제독의 해병대항공단 제15함모전단 항공기들에 의해 월미도를 무력화시키는 작전의 일환으로 발생하였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해병항공기들은 95개의 네이팜탄을 월미도 동쪽 지역에 투하하고 기총소사하였다. 이 집중 폭격으로 동쪽지역의 전물, 숲 등과 함께 민간인 거주지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 본 사건의 희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정○○ 등 10명이다. 실종자 및 남은 가족이 타지로 이동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는 100여 명까지로 추산된다.
-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은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선행하여 월미도 점령을 위한 작전계획 하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으려했고 월미도는 인민군이 주둔했던 인천의 관문으로서 반드시 무력화시켜야 할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
- 당시 미군은 월미도 동쪽에 민간인 밀집 주거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미군은 상륙작전에서 인민군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자국 군인에게 큰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작전 개념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월 13~14일 함포사격 작전의 사전 작업으로 인민군의 방어시설을 숨겨주는 은폐물을 없애려는 것이 폭격의 주요 목표였다. 따라서 미군은 다수의 민간인 거주지를 포함한 월미도 동쪽 전체를 집중 폭격했다.
- 미군의 월미도 폭격에 대한 군사적 필요를 인정하고 적을 기만해야 할 군사적 필요가 컸다고 하더라도, 폭격 이전 폭격지점 선정에서나 폭격 중 식별할 수 있었던 민간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희생을 줄이

려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월미도 폭격의 경우 그러한 노력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월미도 전체를 무차별 집중폭격하고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고도에서 주민에게 기총소사까지 한 것은 국제인도법, 전쟁법의 민간인 면제규범에 의한 민간인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작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 월미도 주민들은 거주지가 인천상륙작전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지역이 되면서 민간인 면제규범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전쟁의 혹독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월미도는 군사기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 유족과 거주민은 50년이 넘도록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다.

#### II. 강화(강화도, 석모도, 주문도)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권 2부

##### 1. 결정사안

: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4후퇴를 전후한 시기 군·경의 지원을 받은 ‘강화항토방위특공대’가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에서 최소 139명 이상의 민간인을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한 사례.

##### 2. 결정요지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윤○○ 등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139명을 포함한 430여 명 이상의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들이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 점령 시기의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1951년 1·4후퇴를 전후한 시기에 ‘강화항토방위특공대’에 의해 특공대 본거지인 강화경찰서와 면 지서 등으로 연행·구금되어 고문을 당한 뒤 갑곶나루, 옥림리갯벌, 월곶포구, 돌모루포구, 철산포구, 온수리 사של재, 선원 대문고개, 매음리 어류정(개학부리) 등지로 끌려가 집단학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민간인 집단학살은 강화군의 12개면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졌는데, 이는 ‘강화항토방위특공대’가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 점령 시기의 부역자는 물론, 부역혐의자와 그들의 가족이 북한 재점령 시 북한에 협력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본 사건 희생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원이 확인된 139명 중 부역혐의자 가족이 83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신귀향자가 9명으로 6.4%, 부역혐의로 이미 사법상 처벌을 받은 특사령 출소자도 8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42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미만도 14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삼산면(석모도) 매음리 어류정(개학부리) 희생 사건의 경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17가족 53명이 살해되었다.
- …(중략)…
-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가해주체는 ‘강화항토방위특공대’(대장 최○○)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경기도경찰국장 한경록의 부역자 처리와 관련된 지침에 따라 1951년 1·4후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화경찰서장 김○○와 청년방위군 강화지대장 송○○으로부터 가해 관련 지시와 함께 무기를 지원받았고, 그들의 목인·방조 하에 민간인을 살상하였다. 또한 강화특공대는 1951년 1·4 후퇴 이후에는 서해안지역에서 첩보전 등 비정규전을 수행하고 있던 한국군과 미군으로부터 무기 등을 지원받고 그들의 목인·방조 하에 민간인을 살상하였다. 당시 서해안지역에서는 적정(敵情) 및 각종 전술정보 수집, 피난민 심문 등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군과 미군의 정보·첩보부대가 경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강화특공대 등 우익치안대에 무기와 식량, 군복 등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서해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국군은 물론 미8군도 강화특공대에 의해 자행되고 있던 민간인 집단 학살에 대해 인지했으면서도 목인 또는 방조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군과 미군이 강화 민간인 집단 학살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강화항토방위특공대’의 민간인 살해 행위는 전시에 군경이 후퇴한 치안공백 상태에서 항토방위를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마찬가지로,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하여 ‘강화항토방위특공대’에게 무기 등을 제공함으로써 준군사조직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민간인 살해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군·경의 행위는 사형금지법(私刑禁止法)과 국방경비법(國防警備法) 등에 어긋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6. 강화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직접적인 지휘 책임은 관할 경찰과 군에 있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 사회 혼란기에 군경과 강화항토방위특공대의 폭력행사를 통제·감독하지 못한 국가에 귀속된다.

### 3) 원주민 자료

(출처) 인천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인천 6·25 전쟁 구술 기록

심○○: 심○○님은 부평에서의 6.25 기억에 대해 증언했다. 전쟁 발발 후 멀리 피난 가지 않고 그의 집은 계속 부평에서 생활한다. 심○○선생의 이야기에 옛 부평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퇴각하다 죽은 인민군들의 모습 전쟁의 기억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또한 인민군 징집을 피해 탈출한 삼촌의 이야기도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힘겨웠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와 함께 전란기 부평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한 증언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할 수 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미군부대에서 나온 물자를 시장에서 구하던 모습 등은 지역사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경험담이라 하겠다.

조○○: 조○○님은 인천에서 태어나 5세의 어린 나이에 6·25전쟁을 겪었다. 피난길에 보고 들은 폭탄이 터지는 소리와 불빛에 대한 공포가 그의 기록에 남아 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전쟁의 공포는 지금도 조○○님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해진다. 조○○님의 전쟁 공포에 대한 증언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으로 다가온다.

강○○: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존재는 정규군인들만이 아니었다. 나이 어린 학생들도 전장으로 자원해 나갔다. 바로 학도의용군들이 그들이다. 여학생들도 학도병의용군 길을 택해 자신의 위치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그 제1기 여학생 의용대 중 한 명이었던 강○○님은 1950년 6.25 발발 당시 인천 간석동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인천에서 학도의용군으로 자원하여 부산으로 내려간다. 전투 일선에 직접 서지는 않았지만 부산에서 전쟁의 비참한 일면을 목격했고 육군 병원에 실려 오는 부상병들의 참혹한 모습을 견딜 수 없어 간호부서의 근무를 포기해야 했다. 처음에는 당찬 생각으로 학도의용대에 자원했지만 전쟁의 실상을 목격한 뒤에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강△△: 강△△님은 인천에서 태어나 10세에 6.25전쟁이 발발하자 온몸으로 전쟁을 경험하였다. 인민군이 인천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학교에서 여성동맹원들에게 〈김일성장군의 노래〉, 〈아침 해〉 등의 노래를 배웠다. 강△△님은 여전히 전쟁 중에 배운 노래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에게 남겨진 여러 기억은 전쟁의 아픔이자 또한 중요한 역사적 사료이기도 하다.

### 4) 피란민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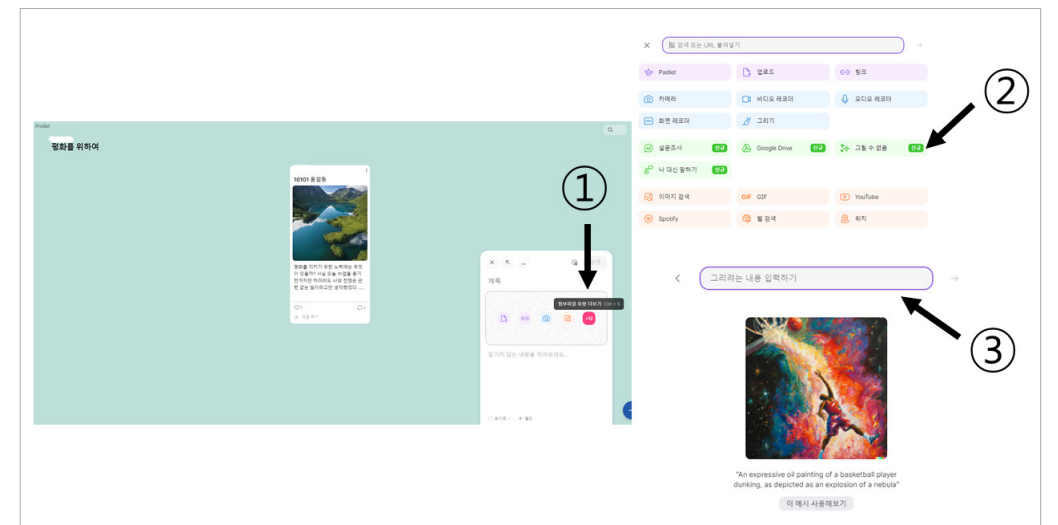
(출처) 이세영(2017), 「해방~한국전쟁기 인천 지역 월남민의 정착과 네트워크 형성」, 『동방학지』, 제180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인천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해방 직후부터 많은 월남민들이 유입되어 왔으며, 한국전쟁을 거치며 다수가 인천에 정착하여 현재까지도 인천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인천의 월남민 판도를 크게 뒤흔들었다. 무엇보다도 황해도민들이 대거 인천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전쟁을 피해 급히 피난을 오게 되어 경제적으로 전쟁 이전의 월남민에 비해 어려운 처지였으며, 전쟁이 금방 끝나리라 보고 잠시 피신하려는 생각으로 단신 월남한 이들이 많았다.

이때 들어온 대규모의 황해도민들은 우선 동구 송현동과 만석동에 피난민촌을 형성하였다. 특히 피난민들이 대거 모여 살던 송현동 산1번지는 '수도국산'으로 불렸다. 1909년 일본인들에 의해 인천시에서 노량진을 잇는 상수도 공사를 진행, 인천시 일대에 수도물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산꼭대기에 배수지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수도국산'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수도국산 달동네는 '도시 저소득층의 밀집 주거지'로서 1900년대 초 일본군이 전동 부근에 주둔하면서 전동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주하였던 것이 시초였다. 또한 전쟁 중 인천에는 피난민을 위한 수용소가 만들어졌다. 동구 만석동과 중구 북성동 일대에 천막식 수용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지금의 인화대 자리에도 피난민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고○○의 사례처럼 백령도에 피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와 물자가 부족하였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 식량을 구하려 황해도 본토로 약탈하러 간 것이 유격대 활동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유격대 활동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향에 남아 있던 가족을 섬으로 탈출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행동들이 미군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 미군은 유격대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이들에게 식량 등 물자를 제공하였다. 유격대원들은 섬에 있는 가족과 피난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다.

## 3. 패들렛 작성 방법



#### [유의점]

- 그림 내용 입력 시 영어로 번역해서 입력해야 함.

(참고) 구글 번역기 <https://translate.google.com/?hl=ko&sl=en&tl=ko&op=translate>

## 마. 참고 자료

### 1) 논문

- 이상의(2021), 「한국전쟁 구술사 연구와 인천」, 인천학 연구, 제 34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이세영(2017), 「해방~한국전쟁기 인천 지역 월남민의 정착과 네트워크 형성」, 『동방학지』, 제 180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2) 인터넷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전국 백지도와 인천 백지도, <https://www.ngii.go.kr/child/content.do?sq=149>
- 현충시설정보서비스, 부평 전투 승전비, <http://mfis.mpva.go.kr/memorial/movementView.do?gubunCode=ALL&sid=73>
- 현충시설정보서비스, 맥아더 장군 동상, <http://mfis.mpva.go.kr/memorial/movementView.do?gubunCode=HG&sid=369>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강화 평화 전망대,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tour/tour/tourInfoDetail.do?tour\\_seq=31](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tour/tour/tourInfoDetail.do?tour_seq=31)
- 전쟁기념관 오픈 아카이브, 류영봉 구술자료(카투사 1기), <https://archives.warmemo.or.kr:8443/pss/interview/pssInterviewDetail.do?MID=UM00017&archvNttNo=5783>
- 인천 문화재단 디지털 아카이브, 인천 6·25전쟁 구술 채록, <https://iharchive.ifac.or.kr/archives/item/war/list?pageNum=1&searchData=&categoryLargeGroupCode=0004&searchType=TITLE&rowCount=8>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https://www.jinsil.go.kr/>
- 정의기억연대 <https://womenandwar.net/>
- 인천난정평화교육원 <https://www.ice.go.kr/peace/>
- “북한 경치 보며 커피 한 잔”... 김포 애기봉 스벅 외신도 주목, 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41130015800009?input=1195m>

### 3) 기사 자료

- 현동민, 「인천상륙작전 74주년,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 여전히 제자리」, 인천투데이, 2024.09.09.
- 박예진, 「74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 다양한 관변단체 참여」, 인천일보, 2024.09.11.

### 4) 기타 자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권 2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



집필진 일동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과장	김은주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관	이경아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남경화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손보경

개발진

〈교수-학습자료〉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오미영
	옥련여자고등학교	교사	조인규
	연수여자고등학교	교사	최은희
	신현고등학교	교사	이은영
	삼산고등학교	교사	최선미
	학익고등학교	교사	조민혁
	인천아라고등학교	교사	김주현
〈과정중심평가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김호진
	작전여자고등학교	교사	김민정
	인천과학고등학교	교사	박지혜
	부평여자고등학교	교사	길진봉
〈검토위원〉	삼산고등학교	교장	오미영
	인천발산초등학교	교사	임지백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주소	(우)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